



광고문의 02-2276-1190



CHASE DREAM  
DESC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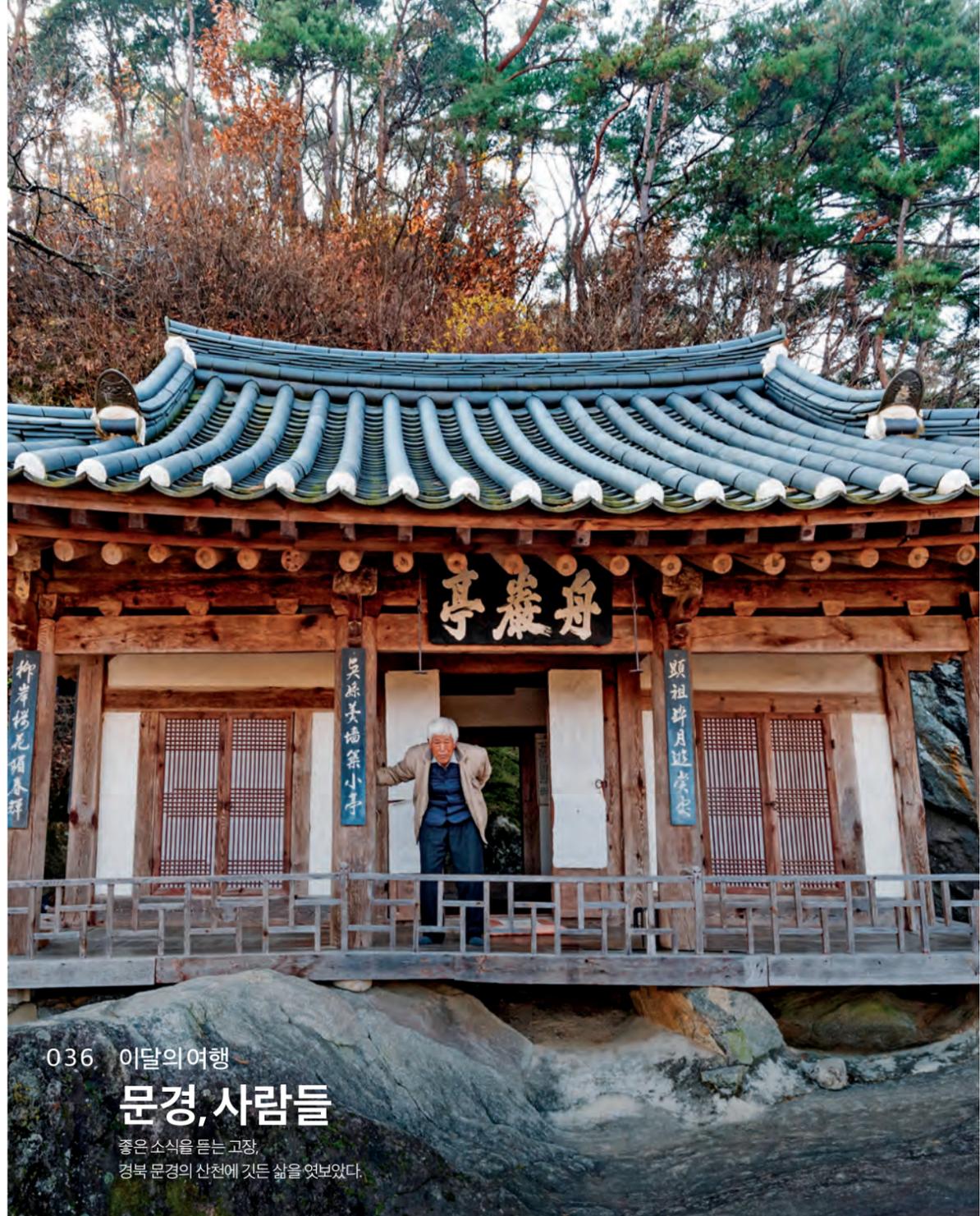


ARC'TERYX



KOLON SPORT





036 이달의여행  
**문경, 사람들**

좋은 소식을 듣는 고장,  
경북 문경의 산천에 깃든 삶을 엿보았다.



**표지 이야기**

**문경 돌리네습지**

새의 눈으로 바라본 문경 돌리네습지의 겨울 풍경. 햇빛은 버드나무와 미루나무가 물웅덩이에 조용히 모여 섰다. 고라니와 왜가리, 수달, 원앙이 살아가는 이곳은 약 49만 제곱미터(15만여 평) 규모에 달하는 생명의 사원이다. 한국에서 스물다섯 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으며, 2028년 유네스코 국제지질공원 등록을 추진하고자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www.tasaki.co.kr



# TASAKI

058 여행의 발견

**강진이 즐거운 네 가지 이유**

청정빛 아름다움을 지닌 전남 강진을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 프로그램으로 가볍게 여행한다.

114 인터뷰

**대화할 수 없는 사물과의 대화  
<구본창: 사물의 초상>**

사진을 현대미술 장르로 확장한 사진가 구본창.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와 나는 대화를 펼친다.

136 KTX 타기 1시간 전

**춘천역에서 보물찾기**

군침 도는 먹거리와 근사한 볼거리가 공존하는 강원도 춘천역 주변을 빠르게, 살살이 살폈다.

142 지역 생산자들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첫걸음, 김포**

누구도 만들지 않아서 만들기로 했다. 한국 위스키의 선구자, 김창수 대표를 만났다.

160 플레이리스트

**터치드와 떠나는 음악 여행**

강렬한 목소리와 연주로 사랑받는 록 밴드 터치드가 기차에서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한다.

168 코레일 소식

170 편의시설 및 부가서비스

172 열차이용안내

174 비상시 행동매뉴얼

**BOOK  
in  
BOOK**

made in BUSAN

**부산을 만든 사람과 공간,  
그 일곱 가지 이야기**

영도부터 기장까지, 커피에서 전통시장까지. 가장 현재적인 부산의 즐길 거리를 망라했다.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 많이 보고 싶어요  
거기선 잘 지내세요? ”**

당신께서 남기신 선물을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아름답게 전달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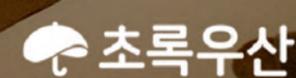
추모기부는 소중한 이를 기억하고,  
아름다운 여운을 이어가는 추모의 방법입니다.



초록우산  
추모기부 알아보기



초록우산  
온라인 추모관



추모기부 문의하기  
1588-1940

초록우산은 유산기부, 추모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후원자 모임인 그린레거시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호

# KTX MAGAZINE

제22권 제1호 통권 제247호  
2025년 1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박정인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부편집장 강은주 unddu@bandicom.com

기자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우지경 김진 김영은 정예지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전재호 김은주 고승욱 안홍범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강태선 kenkang@naver.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와 ITX-청춘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 문경, 새로운 시대의 개막!

수도권까지 단 50분!

문경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KTX로 연결되는 더 가까운 문경,

문경이 더 큰 내일로 도약합니다.



## 문경,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합니다!

- KTX문경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창조 실현
- 체류형 관광지 전환으로 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 터널 및 도로 건설과 연계,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 KTX문경역 인근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 문경, KTX로 더 가까워집니다



## 통권 247호, 새롭게 출발합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TX매거진>의 최현주 편집장입니다. 갑자기 편집장이 바뀌었다니 의아하실 텐데요, 지난해 말 <KTX매거진>의 제작사가 바뀌면서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편집부와 디자인 팀, 사진 팀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인쇄사도 바뀌었습니다. 편집부는 <KTX매거진>의 정체성을 중심에 놓고 책 외형과 기획 방향, 사진과 디자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꺼내 들고 싶은 잡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KTX매거진>의 책장을 넘길 때 설렘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오랜 논의 끝에 우선 종이를 비침 없고 내구성 강한 지종으로 바꿨습니다. 매거진의 가로 사이즈를 0.5센티미터 늘려 디자인의 확장성을 높이고, 고감도 인쇄로 지면 속 풍경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KTX매거진>은 앞으로 표지를 포함해 총 180페이지의 볼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깊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나라면 어떤 칼럼이 보고 싶을까' '나라면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을까'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기획은 오랜 시간 KTX를 이용하고, <KTX매거진>을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 몸집을 키우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여행, 문화, 미식,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사람 이야기. 그렇게 콘텐츠를 쌓아 2025년 1월호를 채웠습니다.

이달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문경, 사람들'에선 경북 문경 읍살마을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자 900여 종의 생물이 깃들여 사는 돌리네습지를 탐구하고, '강진이 즐거운 네 가지 이유'에선 전남 강진을 반값으로 여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망원동과 합정동에서 제대로 맛을 내는 채식 지향 레스토랑 일곱 곳을 소개하고, 흰 눈이 펄펄 날리는 경기도 용인중앙시장에선 상인들의 호쾌한 웃음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구분창: 사물의 초상>전을 열고 있는 구분창 작가에겐 사물에 대한 애처로움을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했는지 그 섬세한 마음의 진동을 물었습니다. "다른 기후는 다른 위스키를 만들 뿐"이라며 경기도 김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위스키를 만드는 김창수 대표에겐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멋을 배웠습니다. KTX를 타고 가볍게 떠나는 여행도 제안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겨울 나들이를 하고 싶다면 '무무와 함께하는 양평 나들이'를, KTX 타기 1시간 전 강원도 춘천역에서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춘천역에서 보물찾기'를 살펴보세요. 커피와 맥주, 시장과 브랜드 등 부산을 만든 사람과 공간을 다룬 책 속의 책 'MADE in BUSAN'은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KTX매거진>에서 다뤘으면 하는 도시가 떠오른다면 귀띔해 주세요.

사실 저에게 <KTX매거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4월 창간한 <KTX매거진> 첫호부터 2011년 12월호까지, 93권을 만들었거든요. <KTX매거진>을 떠나 10년 넘게 외지살이를 하다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첫 마음 그대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서울우유 서울우유

A2  
전용목장  
100%  
A2우유



플러스1.  
체세포수1등급  
세균수1A

플러스2.  
EFL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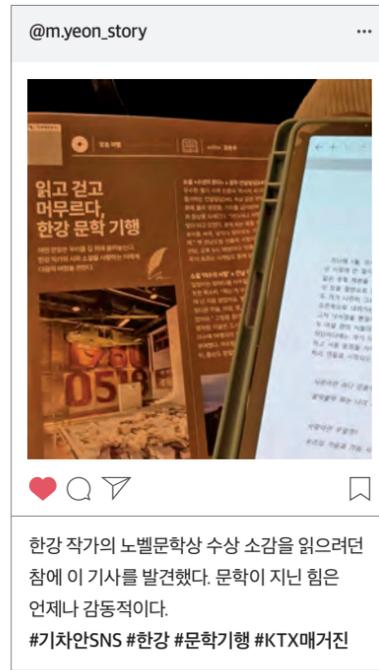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러리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로 휴대하기 편하고 탄탄한 내구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02-2256-7901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전해 드립니다.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여행 중 찍은 사진 (600KB 이상)을 보내 주세요.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독자 선물을 보내 드릴 수 있어요. 📧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1월 11일까지

# 2025 지역상품 전시회

지도 안 정으로 떠나는 전통시장 여행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참고

#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02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03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04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05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06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07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08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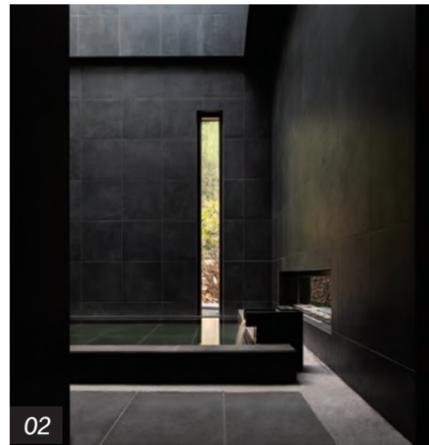
##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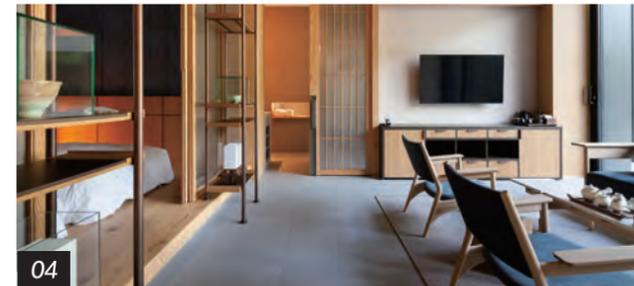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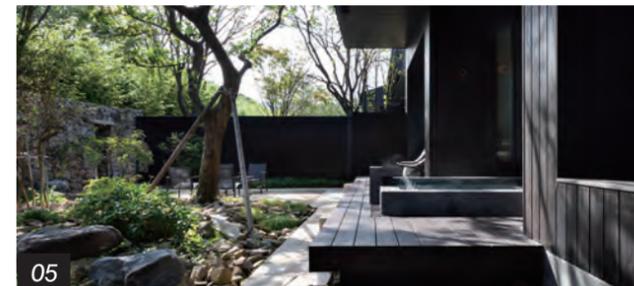
02



03



04



05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06

##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 강진만, 겨울 철새의 노래

크림색 갈대꽃 위로 한 무리의 오리 떼가 날아옵니다. 큰고니가 물속에 연신 머리를 담그며 먹이를 찾는 오후. 전남 강진만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QR코드를 찍으면 강진만생태공원의 새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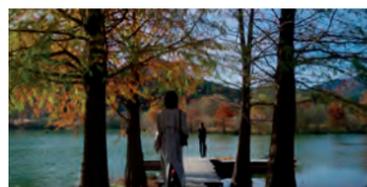
# 고요한 호수, 고독한 결혼

드라마 <트렁크>에는 기간제 결혼으로 만난 두 사람의 관계처럼 베일에 싸인 호수가 등장한다. 그 위에 떠오른 트렁크 하나가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

적막한 새벽, 한 여자가 호수에서 카약을 탄다. 그리고 그의 휴대전화 알림이 울린다. “다음 결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지난 11월 29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드라마 <트렁크>는 기간제 결혼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다. 계약 결혼 당사자인 노인지와 한정원이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과 경찰이 호수에서 발견한 트렁크의 비밀을 밝히는 모습이 교차하며 내용이 전개된다. 이때 드넓은 호수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바로 전북 진안에 위치한 주천생태공원 내 인공 호수다. 노인지가 회사 동료에게 사라진 약혼자의 행적을 전달 받는 장면도 이곳에서 촬영했다. 처음에는 길 옆에 꽃 공원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아 ‘도화동산’이라 이름 붙였으나, 2011년 휴식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주천생태공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호수에 구름과 나무가 비친 풍경이 신비롭고, 물안개가 깔리면 더 은밀한 장소처럼 느껴진다. 호수 가운데 자리한 섬이 공원까지 이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길이 물에 잠겨 고립됐다. 노인지의 말이 떠오르는 전경이다. “섬이 된 것 같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섬이 돼서 떠 있는 기분이에요.”



소설 <트렁크>를 각색한 미스터리 로맨스 드라마. 결혼 매칭 회사 직원 노인지 역에 서현진, 음악 프로듀서 한정원 역에 공유가 출연한다.



© 진안군청, 넷플릭스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3 | 홈페이지 www.monami.com



Plus Pen 3000  
P R I M E  
유성 볼펜으로 거듭나다

플러스펜 3000 프라임은 모나미의 플러스펜 3000 수형 디자인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유성볼펜입니다



© 한국관광공사

## 모두가 편안한 숙소

숙박 시설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을 향해 발돋움한다. 해남126호텔은 호텔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취득했다.

지난해 11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새로운 호텔이 들어섰다. 120개 객실 모두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이곳은 '해남126호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본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호텔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뜻한다.

해남126호텔은 출입구는 물론 공용 공간과 전 객실의 단차를 모두 없애고, 휠체어 이동이 원활하도록 문 개방 시 유효 폭을 1.5미터 이상 확보했다. 주 출입문에 건물 내부 배치를 점자로 표시한 안내판을 세우고, 점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직원 호출·음성 안내 버튼을 마련하는 등 시각장애인 접근성도 강화했다. 방향 인지를 돕는 점자블록 또한 바닥에 설치했다. '핸디캡 트윈'이라 부르는 객실은 총 네 개로 화장실에 자동문, 비상 호출 벨, 변기 등반이, 샤워 공간 손잡이 등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휠체어에서 내려 걸터앉기 수월하게 일반 객실보다 침대 높기도 낮췄다. 또 불빛으로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실내에 비치했다.

이처럼 여행의 문턱을 낮추고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진다.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늘면 해남126호텔을 수식하는 '유일한'이라는 말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장애 유무로 구분한 경계도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주소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야로 576-33 문의 061-534-3000

\*더 많은 무장애 숙소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access.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무장애 편의 시설

경사로 설치, 휠체어 무료 대여,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안내 요원, 점자 축지도 등

# 모디하우스

모디하우스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의 일환으로 '모-디' - '모두의 여행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모디하우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산복도로의 빈집을 활용해 부산의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동 책방골목 근처에 1, 2호점, 초량 이바구길 위에 3호점이 있습니다. 원도심 관광지와 더불어 부산의 로컬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모디하우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예약하기]

## 1호점 [산복어울스테이]



산복어울스테이는 보수동 주택가에 위치한 주택, 산복도로와 맞닿아 있는 주택으로 로컬의 분위기와 함께 스테이에 방문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알아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중구 망양로288번길 7-3



## 2호점 [하이앤드하우스]



Hi! 하이앤드하우스에 초대합니다. 산복도로 동네친구집 <하이앤드하우스>는 우리 동네 산복도로와 동네사람, 여행자를 연결하는 지역 거점 브랜드입니다.

부산시 중구 고가길 24-1



## 3호점 [이바구캠핑]



조용한 산복도로 마을에서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러다 환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바구캠핑입니다.

부산시 동구 망양로525번길 28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부산관광공사



# 아무도 없는 겨울 별장에서

커다란 가방에 여장을 꾸러 훌쩍 떠난다.

짐이 많아도 넉넉히 수납할 수 있는 보스틴백은 보스.

문의 보스 02-3467-8359



데님 소재 이어 플랩으로 보온성을 높이고 따스한 컬러 퍼를 조합한 모자, 신축성과 보온 효과가 뛰어난 야외 활동 시 유용한 울 삭스는 모두 파타고니아.

문의 파타고니아 1544-1876

1비타민 C, 글루타티온, 니아신아미드를 함유해 피부에 광채를 더하는 **벨리프 슈퍼드롭스** **비타C 토닝 세럼**, 2비타민 세럼과 크림 베이스로 보습과 탄력은 물론 생기를 더하는 **달바 세럼 앤 크림 모델링 마스크**, 3 뛰어난 밀착력과 풍부한 보습으로 최상의 립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CNP 프로폴리스 립세린**, 4 고보습 내추럴 세라마이드 성분과 자연 유래 성분이 입술에 영양을 공급하는 **버츠비 오버나이트 인텐시브 립 트리트먼트**.



**더 환하게, 더 눈부시게**

한낮 햇살의 광채가 피부에 깃든다.

문의 벨리프 080-023-7007, 달바 02-332-7727, CNP 080-023-7007, 버츠비 080-202-3355

#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5년 신규회원모집

SONOROUS	NOBLIAN BLACK
대한민국 18곳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하나를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 II. 추가할인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2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III. 계속되는 비전

쑤비치 남해가 2025년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있고, '경주도 연이어 완전히 리뉴얼 오픈 예정입니다. 'SONO'는 지속적인 변화와 새로움으로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쑤비치 남해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쑤비치양양·삼척·진도 | 소노캄 고양·여수·거제·제주 | 소노벨 천안·청송·경주·변산·제주 | 소노문단양·해운대 | 소노휴 양평



에곤 실레, '블터바강가의 크루마우(작은 마을 IV)', 1914년, 캔버스에 유화, 검은 분필, 99.5x120.5cm, 레오폴트 미술관

EXHIBITION

##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서울

2024.11.30~2025.03.03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의 소장품 191점을 엄선했다. 세기가 전환할 때 비엔나를 무대로 자유와 변화를 꿈꿨던 예술가들 한데 모아 1900년대 비엔나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했는데, 먼저 프롤로그에서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찾고자 했던 비엔나 분리파의 초대 회장 구스타프 클림트를 소개한다. 1부에서 3부까지는 비엔나 분리파의 역사 및 이념과 생활용품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립한 '비엔나 디자인 공방'을 다룬다. 4부와 5부에는 에곤 실레, 리하르트 게르스틀, 오스카어 코코슈카 등 표현주의 경향을 드러내며 세대교체를 알린 '신예술가 그룹'의 작품을 전시한다. 에곤 실레의 '파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블터바강가의 크루마우' 등 대표 작품을 감상할 기회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세상을 떠난 후 에곤 실레가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원탁, 제49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포스터'를 영상으로 만든 에필로그 섹션으로 마무리한다.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02-2077-9000



# 함안 구경

9景

좋은 사람과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





**FESTIVAL**

**제8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공주  
01.16~20

겨울 대표 간식 중 하나인 밤의 고장, 공주로 간다. 기존에 3일간 진행하던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올해는 5일로 늘어나 더 풍성한 행사를 기약한다. 대형 화로에서 알밤을 굽는 체험과 알밤을 활용한 비누 만들기 등 기존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밤 직거래 장터 부스의 규모를 확대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겨울공주 눈꽃왕국'이라는 이름의 놀이터도 조성했다. 다회 용기와 세척 시설을 활용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축제를 도모한다.

장소 충남 공주 금강신관공원 일원  
문의 041-840-8090



**FESTIVAL**

**2025 상주곶감축제**

상주  
01.09~12

달콤한 곶감을 마음껏 즐기는 축제가 돌아왔다. 올해는 곶감 판매 부스를 넓혀 54개 업체가 햇곶감을 내놓는다. 임금님 진상 재현, 짬짬 경매, 가요제 등 곶감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상주 전통 곶감 농업을 소개하는 농업유산홍보관을 운영해 배움의 장 역할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인기 뮤지션의 공연 또한 흥을 돋운다. 1일 차에 안성훈, 2일 차에 김희재, 3일 차에 이찬원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장소 경북 상주 태평성대 경감감영공원  
일원 문의 054-537-7529



**K-줄기세포, 전 세계를 사로잡다**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이 젊음을 되찾아 줄 K-줄기세포 시술의 모든 것을 밝힌다.

한국인 여행객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중국 등을 찾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반대로 동남아나 중동 등지에서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젊음을 되찾는 K-줄기세포 치료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이 줄기세포 시술의 세계를 안내한다.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관건은 어떤 의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느냐일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여전히 저렴하지 않으므로, 치료비가 저렴한 곳을 우선순위에 두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피하려면 저렴한 치료비가 아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기준으로 병원을 찾아야 만족도 높고 안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가 복제 능력으로 적절한 신호에 따라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세포를 줄기세포라 합니다. 다분화능, 즉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무한히 동일한 줄기세포를 재생산하는 것이 곧 자가 복제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손상된 세포를 줄기세포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이러한 특성은 당뇨병, 척수 손상, 뇌·심장 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연구가 발전하면서 치료 범위가 더욱 넓어졌지요. 피부 재생, 탈모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줄기세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세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줄기세포의 유형과 치료가 필요한 곳의 상태에 따라 사용 양상이 달라집니다. 심장병, 신경 장애,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적 치료법으로 활용되죠. 줄기세포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몸의 재생 능력 전반을 높이려면 정맥주사를 활용합니다. 땀나 두피나 잔주름이 늘어난 피부, 통증이 생기는 부위, 성기능 저하 등에 국소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줄기세포는 항염증 분자를 분비해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면역 체계를 조절해 자가면역반응을 완화하고 위험을 줄임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혈류를 개선해 조직 복구를 돕는 겁니다. 세포가 어떻게 필요한 곳으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줄기세포는 '호밍 효과'를 일으킵니다. 정맥주사로 투여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을 뜻하지요.

**시술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줄기세포 치료는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술이든 완전히 부작용을 차단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잠재적 부작용 중 하나는 종양 발생인데, 줄기세포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을 때 줄기세포와 역분화 줄기세포의 경우 치료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체 줄기세포는 종양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치료에 활발히 적용하지요. 면역원성 문제도 짚어 봐야 합니다. 환자의 면역 체계가 줄기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해 염증 반응이나 조직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환자

**줄기세포 치료 후 언제부터 치료 효과가 나타날까요?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대부분 시술 후 2주 내외로 치료 반응이 나타납니다. 효과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줄기세포 시술 후에는 금주·금연은 물론 소염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환자의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은행 '셀뱅킹(Cell Banking)'은 줄기세포를 영하 200도의 액체 질소 탱크에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해동해 시술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연구소도 운영 중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최적화된 줄기세포 이식 방법을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줄기세포는 환자의 혈액, 골수, 지방을 통해 추출한 뒤 병변 부위에 이식합니다. 이곳에서 양질의 세포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담셀의원**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의료 기관이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기술로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줄기세포치료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의학 전문가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학병원 브리검여성병원에서 항노화 분야를 공부했고, 현재는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2-514-2225

시절, 풍경

EDITOR 최현주 · PHOTOGRAPHER 안흥범



2022년 12월  
이른 아침

노스님들의 거처인 도성당 담벼락,  
루비처럼 영롱한 산수유나무 위로 눈발이 흩날린다.

## 송광사, 그해 겨울

전남 순천 송광사에 수년간 기거하며 사진을 찍어온 안흥범 작가.  
그가 송광사의 겨울을 보내왔다.



2023년 1월  
오후 두어 시

조계산 자락에 숨은 듯 자리한 암자, 인월암. 스님들의 공부방이자 수행처였던 이곳은  
안타깝게도 그해 봄 화재로 전소되었다.



2024년 1월  
해가 뜬 무렵

보름달과 구름 사이로 살갓빛 여명이 비추는 시간. 승보전 기왓골을 얇게 덮은 흰 눈이 착시를 일으킨다.  
해가 뜨면 달은 진다. 밝음과 어둠, 낮과 밤이 스치듯 자리바꿈을 하는 겨울날의 풍경.



# 문경, 사람들

들을문, 경사경. 새해 기쁜 소식을 들으러 경북문경으로 떠났다.  
이땅에 기대어사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또 걸었다.

새재를 넘고, 물길을 따라 걷고, 성곽을 오르고, 습지를 가로지른다.  
문경은 끊임없이 여행자의 감각을 깨우는 땅이다.

가는 방법 수도권 출발을 기준으로  
경기도 판교역에서 KTX를 타고  
문경역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 겨울날의 은신처, 돌리네습지에서

모든 것이 동면에 든 듯 고요한 습지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언 땅에 햇살이 스미기 시작한 아침, 버드나무 뒤편에 웅크린 고라니가 가냘픈 몸을 일으켜 물가로 다가갔다. 기척에 놀란 갈까, 잠자코 있던 오목눈이는 켜 날갯짓을 하며 빠르게 튀어 올랐다. 그 바람에 은백색 물억새꽃이 나부끼며 춤을 쳤다. 분방하고도 눈부신 군무다.

산북면 우곡리의 굴봉산이 감춰 둔 생명의 사원, 돌리네습지에 발을 디딘다. 2007년 문경시청과 국립환경과학원 생태조사단의 공식 보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돌리네습지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10여 년 전엔 야 좁은 포장도로가 낫을 만큼 오염되지 않은 땅, 오랜 시간 지게와 낫을 사용한 전통 농경 방식을 지켜 낸 정직하고 순전한 땅이었다. 2017년 습지보호지역, 2024년 경북 지역 최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이곳엔 여전히 오미자밭과 사과를 기르던 과수원, 우물 터 세 곳과 논두렁 등이 남아 아득한 세월을 증언하고 있다.

## 문경 돌리네습지

약 49만 제곱미터(15만여 평) 규모에 달하는 생태의 보고로, 한국에서 스물다섯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2028년 유네스코 국제지질공원 등록을 추진하고자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탐방 지원 센터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문의 [www.gbmg.go.kr/doline/](http://www.gbmg.go.kr/doline/)

## 마르지 않는 땅, 마르지 않을 생명의 노래

방문객 일행을 실은 탐방용 전동차가 가파른 언덕을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린다. “돌리네는 탄산칼슘을 함유한 석회암 지표면이 지하수나 비에 녹아 형성된 둥근 웅덩이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보통의 돌리네와 다르게 이 웅덩이 바닥엔 풍화도인 테라로사가 깔려 있어 언제나 일정량

이상 물을 머금고 습지를 이루지요.” 운전대를 쥔 채 가이드 역할을 능란하게 수행하는 김한웅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이 이어진다. “지구상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이 2500여 곳인데, 그중 돌리네습지는 여섯 곳뿐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지형이지요. 932종의 생물이 깃들여사는 거대한 집이기도 합니다.”

김 해설사가 나고 자란 고향 또한 이곳이다. 그는 돌리네습지의 생태를 몸으로 배우고 경험한 읍살마을 토박이로, 수달·샬·고라니·담비 등 다종다양한 생명체를 목격해 왔다. 팡팡 언 물웅덩이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날이 풀리면 소를 먹이며 습지를 어슬렁거리는 게 이 동네 소년들의 일과였다고 했다. 때때로 습지 아래 형성된 석회동굴을 누비기도 했단다. “굴봉산이라는 이름에서 ‘굴’은 예부터 동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돌리네습지는 굴봉산 자락 290미터 높이에 위치하지요. 서울 남산이 해발 고도 262미터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쉽게 실감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에 ‘굴봉산 석회동굴’을 검색하려던 차, 통신 신호가 명멸하더니 끊어지고 만다. 김 해설사가 웃으며 말을 덧붙인다. “깊은 산중이라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잘됐다고 좋아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돌리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침식되고 있어서 안전을 위해 동굴 진입을 막아 두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디지털 디톡스의 순간. 점차 머리

돌리네습지는 읍실마을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오랜 시간 지게와 낫을 사용한 전통 농경 방식을 지켜 낸 정직하고 순전한 땅이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이곳엔 여전히 사과를 기르던 과수원,  
우물 터 세 곳과 논두렁이 남아 아득한 세월을 증언하고 있다.



가 환해지고 긴장이 누그러진다. 비로소 자연과 맞닿을 준비를 마친 듯하다.

###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곳, 문경의 허파 돌리네습지

물과 흙, 풀과 나무로 빚은 크고 질박한 찻사발. 전망대에서 굽어보는 돌리네습지의 모습은 문경 전통 공예품 다완처럼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과 생동감이 흘러넘친다. 자연의 생명 활동이 은밀하게 벌어지는 겨울, 산뱀나무와 층층나무가 꽃망울을 틔우는 봄, 모든 생명이 살아있음을 소리쳐 외치는 여름, 복자기나무와 신나무가 잎을 물들이는 가을. 어떤 계절이든 고유한 활기를 뽐어낸다.

돌리네습지의 지형적 특성은 마을 풍습과 생활상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아낙들이 길어 온 물을 항아리에 부어 석회 가루가 가라앉기를 기다릴 때, 사내들은 키버들 가지를 삶아 채반이나 키를 만들고 대나무 가지로 자리를 짚습니

다. 참방거리며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이따금 붕어, 미꾸라지, 민물새우를 한 움큼씩 건져 올렸어요. ‘물밤’이라고도 부르는 물풀인 마름을 따서 묵을 쑤어 먹기도 했죠.” 옛 농로에 설치한 생태 탐방 텍을 거니는 동안 김해설사가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를 두런두런 풀어 놓는다.

읍실마을의 아이로 자라 어느덧 일흔이 훌쩍 넘은 그는 날마다 이 땅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희귀 동식물을 관찰, 보존하고 있다. “몇 해 전 이곳에서 길이가 3미터나 되는 구렁이를 발견해 보고하기도 했어요.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돌리네습지의 풍경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제 앞에 서면 포즈도 취해 주지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왜가리 한 마리가 그림인 양 우아한 자세로 날아와 앉는다. 수면에 비친 제 옆얼굴이 얼마나 근사한지 알까. 겨울보다 투명하고 고요하던 겨울날의 돌리네습지. 가만히 숨 죽이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 돌리네습지의 희귀 동식물

**수달**  
족제비과에 속하며 멸종위기 1급에 해당한다. 예민한 청각, 후각으로 서식지를 탐지한다.

**구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유린목뱀과의 파충류. 한국의 뱀류 중 몸집이 가장 크다.

**들롱발**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로, 습지의 유충을 잡아먹는 수생 식물이다. 겨울에는 잎이 검어진다.

**꼬리진달래**  
여름에 토끼 꼬리처럼 생긴 탐스러운 꽃을 피운다. 양지바른 산기슭에서 잘 자란다.



문경에서 만난 사람  
**김한웅**  
자연환경해설사.  
읍실마을의 삶과 생태를 이야기한다.



# 문경을 굽어보다

유려한 성곽길과 깎아지른 듯한 벼랑길을 거닐며  
이 땅을 밟았을 옛사람들을 생각했다.

문경에서 만난 사람  
**박원일**

문화관광해설사. 문경에  
얽힌 옛이야기를  
수집한다.



## 선비의 길을 따라서, 새재에서 돌고개까지

경상도를 가리키는 영남이란 표현은 소백산맥의 고갯길인 조령과 죽령의 남쪽이란 뜻을 지닌다. 조령은 문경의 새재, 즉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토록 높고 험준한 새재건만, 선비들은 과거를 치르기 위해 이곳을 곧잘 오르내렸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나 다른 경로인 추풍령을 지나면 추풍낙엽처럼, 죽령을 지나면 죽죽 미끄러지듯 시험에 낙방한다는 우스개개 떠돌았기 때문이다. 겨우 새재를 통과한 선비들은 돌고개를 경유했다. 돌고개의 다른 이름은 '꿀떡고개'. 영남대로를 드나들던 많은 이가 여기서 조청 문힌 떡을 사 먹었다는 민담이 전해 온다. 오늘날 꿀떡고개 표지판 너머엔 성황당과 주막을 복원해 놓은 다정한 거리가 펼쳐져 있다.

겨울 별이 흠바닥을 몽근하게 달구는 오후, 박원일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돌고개를 넘어 성곽길을 누비기로 했다. 돌리네습지 옆 마을에서 유년을 보냈다는 그는 한때 문경탄전의 단산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했고, 청송을 비롯한 경북 지역 교도관으로 근무했으며, 퇴임 후 귀향해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었다. 남다른 길을 걸은 까닭일까, 그의 설명엔 풍부한 예시와 생생한 장면이 가득했다. 돌고개 성황당에 얽힌 전설부터 영남대로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내력까지, 그는 걸음걸음마다 문경의 역사와 자연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아로새겨 주었다.

## '길의 박물관'에 닿다 진남문과 진남교반

"이제 진남문으로 천천히 내려가 봅시다." 박해설사의 말을 듣자 하니 이 부근엔 '진남'이란 지

무수히 많은 이의 발길에 차여 반들반들하게  
 닳은 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름다운 길은 결코 쉬운 길일 수 없다고,  
 때로는 온몸으로 기어 넘어야 하는 벼랑길이라고.

명을 내건 지형지물이 여럿이다. 진남휴게소, 진남터널, 진남숲, 그리고 TV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도 출연한 식당 '진남매운탕'... 그중 제일은 누가 뭐라 하든 진남교반, 그러니까 진남교 주변의 경관일 것이다. 진남이란 단어의 연원은 임진왜란 당시 남쪽을 진압하기 위해 쌓은 석현성의 관문인 진남문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문을 분기점으로 신라 시대에 축조한 성곽인 고모산성을 따라 올라가거나, 영남대로 옛길인 토끼비리를 따라 내려가면 진남교반의 눈부신 풍광을 맞닥뜨린다. 조령천과 영강이 만나 휘몰아치듯 흐르는 물길, 어룡산과 오정산의 푸른 능선이 빚어 낸 병풍 같은 산세, 철길과 다리와 도로가 한데 교차하는 역동적인 모습은 과연 살아 있는 길의 박물관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벅차게 다가온다.

**오정산 자락의 아찔한 잔도,  
 토끼비리에서 배운 것**

우리의 걸음은 고모산성 남문지에 펼쳐진 돌무지와 동·북·서문지를 지나 다시 진남문으로 돌

아왔고, 마지막 코스 토끼비리에 다다랐다. 이곳은 오정산 자락의 협곡에 낸 아찔한 잔도로, 영남대로 옛길에서 특히 험난한 구간이라 손꼽힌다. 어떤 구간은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폭이 좁기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곤 했다. “비리란 벼랑의 사투리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벼랑길을 따라 달아나는 토끼를 쫓아 진군했다는 설화를 간직한 곳이죠.” 토끼비리는 2007년 문경새재와 죽령 옛길, 강원도의 구룡령 옛길과 함께 ‘길로는 최초로 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여말선초의 문인 어변갑은 이곳을 두고 “넘어지는 것은 빨리 가기 때문이요/ 기어가니 늦다고 꾸짖지는 말게나”라며 노래하기도 했다. 이 길을 지나는 과정이 그만큼 고되고 험난했음을 말해 주는 시구다. 무수히 많은 이의 발길에 차여 반들반들하게 닳은 길. 앞장서 걸어가느라 해설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름다운 길은 결코 쉬운 길일 수 없다고, 때로는 온몸으로 기어 넘어야 하는 벼랑길이라고.

- **돌고개**  
 영남대로를 오가던 길손을 위한 주막이 늘어섰던 옛 고개다. 문경의 마지막 주막 ‘영순주막’을 재현해 옛정취가 느껴진다.
- **성황당**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의 안녕을 기원하던 건물. 1976년 제작한 상량문이 발견되어 2013년 12월 문경 옛길박물관에 기증됐다.
- **진남교반**  
 문경 8경의 하나로, ‘경북제1경’으로도 불린다. 1933년 한 언론사가 진남교반을 경북 최고의 명승으로 선정했다.
- **진남문**  
 임진왜란 당시 남쪽을 진압하고자 세운 석현성의 관문이다. 2004년 복원 당시 서예가 황규옥 선생이 현판을 썼다.
- **진남숲**  
 영강이 진남교반을 휘도는 저점에 청청한 솔숲이 펼쳐진다.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깍지기가 이 일대에서 발견된다.
- **토끼비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감천과 토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잔도다. 영남대로에서 가장 험한 길로 손꼽힌다.





문경에서 만난 사람  
**채훈식**  
주암정을 날마다 살고  
뒀는 그는 이따금 자신이 쓴  
시를 객들과 나눈다.

## 물길 따라 흐르는 마음

경치 좋은 금천 변에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근사한 풍경이 이어진다.



### 물 맑은 문경, 금천 변의 구곡 문화

아름다움을 공유하려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  
나 다르지 않다. 우리가 멋진 풍경을 디지털 이  
미지로 복제한 뒤 '스토리'에 올리듯, 선인들은  
경관마다 이름을 붙이고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  
렸다. 여기에 이따금 정사(精舍), 즉 자연의 기  
운으로 몸과 마음을 닦기 위한 학문적 은신처  
를 세워 올리기도 했다. 송나라 주희가 중국 무  
이산의 아홉 굽이 계곡을 가리켜 무이구곡이라  
부르고 구곡가를 지어 부른 것이 이러한 구곡  
문화의 시작점이었다.

물길이 유려한 문경 땅은 안동, 영주와 더불어  
경북 지역의 구곡 문화를 대표한다. 문경읍의  
화지구곡, 농암면의 쌍룡구곡, 신선이 노닐 만  
큼 눈부신 가은읍의 선유구곡도 이름 높지만 이  
번 여정에서는 산양·산북면에 걸친 금천 변의  
원림 석문구곡의 일부를 들여다보았다. 석문구  
곡은 조선 정조 때 문신인 근품재 채헌이 스승  
인 청대 권상일의 청대구곡을 계승해 농청대에  
서 석문정에 이르는 아홉 굽이를 꼽은 것이다.

### 금천 변의 또 다른 정자

**경체정**  
벽정이라고도 부르며,  
청대구곡 제2곡이다. 금천  
부벽과 어우러지는 풍광이  
한 폭의 산수화다.

**우암정**  
청대구곡 제1곡, 석문구곡  
제3곡인 우암대 위에 우암  
채덕동 선생이 선조를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

**비파정**  
잘생긴 소나무와 함께  
기암괴석 위에 올라선  
정자로, 석문구곡 제6곡  
반정에 해당한다.

### 주암정의 신선 채훈식 응을 만나다

제2곡 주암에 올라선 주암정은 문경의 구곡 문  
화를 논할 때 단연 '점네일'로 꼽을 만한 장소다.  
뱃머리를 닦은 바위 주암에 지어 올린 그림 같은  
정자. 홍길동전보다 100년 앞선 한글 소설 <설  
공찬전>을 쓴 나재 채수의 6세손, 유학자 주암  
채익하를 기리기 위해 1944년 후손들이 세운  
건물이다. 봄이면 진분홍 박태기나무꽃이, 여  
름이면 색색의 연꽃이 피어나 운치를 더한다.  
여기 신선이 산다. 나재의 10세손 채훈식 선생.  
그는 몸소 주암 아래 연못을 파서 '배를 띄운' 인  
물로,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일으켜 날마다 정자  
를 쓸고 닦으며 손님을 환대하고 있다. 경치 좋  
은 자리에 주전자와 커피 믹스를 두곤 "주인이  
없어도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라는 메시지를  
써 붙이는 일도 잊지 않았다. "땅을 팔아 연못  
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가꿀 때 다들 나  
를 조롱했지요. 순탄치 않은 세월이 흘러 백발  
이 되었으니, 평생을 이 정자에 바쳤네요." 우곡  
이산을 옮길 때, 채공은 풍경이 되었다.



**문경에서 만난 사람  
신현국**  
문경시장. 고향의 자연과  
먹거리에 깊은 애정을 느낀다.  
지역 특산물 감홍 사과를 손수  
재배하고 있다.

## 문경의 이야기꾼

감홍 사과를 전국에 알린  
주인공이자 가은읍에서  
나고 자란 문경 사람, 신현국  
문경시장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건넨다.

**1월, 문경을 방문할 여행자에게 코스를 추천해 주세요.**  
겨울은 우리를 추위에 웅크리게 하지만 그만의 정취를  
간직한 계절입니다. 문경의 첫 번째 여행지, 문경새재는  
겨울에 유독 더 아름답습니다. 제1관문에서 제3관문까  
지 이어지는 옛길의 풍경을 두 발로 누비며 감각해 보시  
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피할 곳도 추천해 드립니다. 문  
경 에코월드는 탄광 역사를 간직한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을 아우르는 테마파크입니다. 옛 모습  
을 그대로 재현한 갯도 열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즐기  
세요. 문경오미자테마터널에 들러 색색의 조명을 배경  
으로 근사한 사진을 남겨도 좋겠습니다.

**문경에서 반드시 맛봐야 할 먹거리가 있을까요?** 제철  
과일을 눈여겨보았다면 감홍이란 이름이 반가울 겁니  
다.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인 감홍 사과는 껍질 색깔이  
검붉은 편이라 한동안 시장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문  
경 사과 축제에서 껍질 벗긴 과육을 시식한 방문객들에  
게 빼어난 맛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꽃 같은 향기에 과즙이 많아 한 입 베어 물면 잊을  
수 없는 풍미가 입안 가득하니까요. 오미자도 빼놓을  
수 없죠. 품질이 뛰어난 문경 오미자는 시고, 달고, 맵고,  
쓰고, 짠 다섯 가지 맛이 또렷합니다. 음료, 술, 한과 등  
으로 가공해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드라마 & 영화 속 장면에서 종종 문경의 풍경을 만납  
니다. 촬영지를 짚어 주신다면요.** 지난봄 TV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문경 곳곳이 등장하면서 여행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 '용두리'가 된 문경을  
용연리는 물론, 구랑리역과 문경 에코월드가 아름답게  
소개되었지요. 그런가 하면 지난가을에는 우리 고장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문경>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  
다. 주인공 이름이 지명인 문경과 가은일 뿐 아니라 주  
암정과 고모산성, 선유동계곡과 잉카마야박물관&캠  
핑장 등 우리 지역의 명소가 멋지게 그려져 눈길을 끄  
니다. <문경>의 주인공처럼 문경의 산천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땅, 문경이란 지명에 깃든 유래가 궁  
금합니다.** 한반도 중부를 탄탄히 받치고 있는 문경은  
예부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새재를 넘고 나면 경사스  
러운 소식이 들려온다고들 했지요. 선비들이 조령을 거  
쳐 과거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았기에, 좋은 소식이란  
흔히 과거 급제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더 거  
슬러 역사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가은역이 있는 가  
은읍은 건원 장군이 태어난 지역인데, 태조 왕건이 여  
기서 건원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투항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를 좋은 소식이라 여긴 겁니다. 바로 여  
기서 문경이란 이름이 비롯되었다는 설화가 전합니다.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문경의 여행 콘텐츠를 소개해  
주세요.** KTX 문경역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1월 1일  
부터 전면 무료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새재를 비롯한  
유수의 여행지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  
경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봉명산 출렁다리, 야경이 아  
름다운 영강보행교도 놓치지 마시고요. 머지않아 주  
흘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이동 약자도 편리하게 여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면 첫사발축제가, 가을이 오면 사과·오미자·한우 등  
3대 특산물을 알리는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니 문경의  
맛과 멋을 두루 음미해 보세요.

### 카페 가은역

옛가은역 건물에  
들어선 카페다. 민트색  
지붕과 창틀, 벽한편에  
걸어둔 역장 제복  
등 곳곳에서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문경 사과로 정성껏 만든  
사과쿠키크림라테와  
사과밀크티, 사과콩포트,  
사과버터 등이 향기롭고  
맛갈스럽다.



# 문경 여행자를 위한 일곱 가지 즐거움

보랏빛 오미자 와인부터 투박한 아름다움이 깃든 찻사발까지.  
문경에서 즐겨야 할 일곱 가지를 꼽았다.

## 1

### 봉명산 출렁다리

주흘산을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

문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 바로 봉명산 출렁다리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계단 500여 개를 올라야 하지만, 호젓한 숲길의 정취와 압도적인 풍광이 모든 수고로움을 잊게 한다. 길이 160미터, 폭 1.5미터의 현수교를 따라 걸으며 해발고도 1108미터 주흘산의 유려한 능선을 감상할 시간. 스틸그레이팅 소재와 유리로 이루어진 바닥은 짜릿함을 더한다. 최고의 포토존은 출렁다리를 다 건넌 뒤 되돌아가는 길에 마주하는 풍경이다. 주흘산은 물론이거니와 조령천이 흐르는 문경 읍내의 시원스러운 경관이 일상의 시름을 씻어 내린다.

📍 문경시 문경읍 온천강변1길 27

### Bongmyeongsan Suspension Bridge

Aerial Views of Juheulsan Mountain

For a sweeping panorama of Mungyeong, head to Bongmyeongsan Suspension Bridge. While the trek up 500 steps is challenging, the 160-meter-long, 1.5-meter-wide bridge rewards visitors with breathtaking views of Juheulsan Mountain's elegant

ridgelines. The glass and steel flooring adds a thrilling touch.

📍 27, Oncheongangbyeon 1-gil, Mungyeong-eup, Mungyeong-si

## 2

### 봉천사

가슴 벅찬 새해 해맞이

산북면의 대승사와 김룡사, 가은읍의 봉암사 등 아름다운 사찰을 여럿 거느린 문경. 새해, 새로운 해를 마주하며 마음을 닦고 싶다면 해발고도 360미터 월방산 자락에 자리한 봉천사에 찾아가기를 권한다. 잘생긴 너럭바위와 수백 년 동안 자라난 소나무 세 그루 사이로 황홀한 해돋이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참선하는 마음으로 대웅전 앞에 앉아 붉은 하늘을 감상하고, 해가 완전히 떠오른 뒤엔 문경 시내를 구석구석 굽어본다. 향긋한 개미취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가을에 다시 방문해도 좋겠다.

📍 문경시 호계면 봉서2길 201

### Bongcheonsa Temple New Year's First Sunrise

Bongcheonsa Temple, nestled on the slopes of Wolbongsan Mountain at an altitude of 360 meters, is the

perfect place to welcome the new year. Witness the mesmerizing sunrise through a trio of centuries-old pine trees and a striking rock plateau. After admiring the crimson sky before the temple's main hall, take in panoramic views of Mungyeong below.

📍 201, Bongseo 2-gil, Hogye-myeon, Mungyeong-si

## 3

### 화수헌 & 산양정행소

여행자를 위한 쉼터

꽃과 나무가 아름다워 화수헌이라 부른 200년 된 고택, 오랜 세월 술을 빚던 산양합동주조장 건물이 카페 '화수헌'과 '산양정행소'로 새롭게 부활했다. 공간 기획 스타트업 리플레이스의 솜씨다. 옛 건물의 흔적을 살리고 내력을 그대로 전시해 지역 고유의 문화가 느껴진다. 두 곳의 널따란 마당은 반려동물에게도 열려 있다. 락토프리 우유와 시리얼을 넣은 펫음료 '퍼푸치노'를 주문한 뒤 함께 우리 집 털멍치와 달콤한 휴식을 즐긴다.

📍 문경시 산양면 현리3길 9(화수헌), 문경시 산양면 불암2길 14-5(산양정행소)

### Hwasuheon & Sanyang Jeonghengso Rest Stops for Travelers

The 200-year-old traditional house, Hwasuheon, and the historic Sanyang Cooperative Brewery have been reimagined as cultural cafés by the creative startup Replace. These revitalized spaces, named Hwasuheon and Sanyang Jeonghengso, respectively, offer a glimpse into the region's heritage. The sprawling courtyards are even pet-friendly, perfect for travelers with furry companions.

📍 9, Hyeolli 3-gil, Sanyang-myeon, Mungyeong-si (Hwasuheon), 14-5, Buram 2-gil, Sanyang-myeon, Mungyeong-si (Sanyang Jeonghengso)





4

**오미나라**  
보랏빛 오미자 향기

세 차례나 국가 정상 만찬주가 된 술이 있다.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곁’이다. 40여년 세월을 양조 분야에 몸담은 이종기 대표는 문경 오미자를 원료로 와인을 빚는 양조장 ‘오미나라’를 세우고 오미로제 연작을 발표해 크게 주목받았다. 오미자 와인을 두 차례 증류하고 유리피인 오크통에서 숙성한 프리미엄 증류주 ‘고운달’ 또한 문경의 풍류를 대표하는 명주다. 새 마음으로 잔을 부딪고 싶은 특별한 날, 오미자 향 그윽한 오미나라의 술이 떠오를 것 같다.

📍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9

**OmyNara**  
The Fragrance of Omija

Ever heard of a wine gracing the tables of three national banquets? That honor belongs to the sparkling omija wine, *OmyRose Kyol*. At OmyNara, the winery behind this famed drink, founder Lee Jong-ki has crafted a collection of omija-inspired creations. Among them is *Gowoon Dar*, a premium distilled spirit aged in European oak barrels, epitomizing Mungyeong’s refined spirit culture.

📍 609, Saejae-ro, Mungyeong-eup, Mungyeong-si

5

**한국다완박물관**  
문경을 기억하는 찻사발 만들기

이 고장엔 8대에 걸친 도공 가문이 있다. 조선 시대 1대 김취정 사기장에서 출발해 오늘날 8대 미산 김선식 사기장에 이르는 관음요의 장인들이다. 문경 특산품인 찻사발이 궁금한 여행자라면, 김선식 사기장이 전국 각지에서 모은 곱고 귀한

수집품을 전시한 한국다완박물관에서 전통 공예의 미감을 만끽하고, 특수 세라믹 펜슬로 연꽃·나비·봉황·매화·대나무·새 등 길한 기운을 불러올 관음요의 대표 문양을 그려 나만의 찻사발을 완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다. 관음요가 최근 론칭한 생활 자기 브랜드 ‘다미’ 또한 이곳에서 만난다.

📍 문경시 문경읍 온천5길 2-1

**Dawan Museum of Korea**  
Tea Bowls Embodying Mungyeong’s Culture

Curious about Mungyeong’s signature tea bowls? Visit the Dawan Museum of Korea, where master potter Kim Seon-sik’s collection showcases traditional craftsmanship. Participate in a hands-on workshop to design your own tea bowl using the iconic patterns of Gwaneumyo.

📍 2-1, Oncheon 5-gil, Mungyeong-eup, Mungyeong-si

6

**문경역**  
KTX로 더 빠르게 여행하기

경기도 성남 판교역에서 경북 문경역까지 90분에 주파한다. 2024년 11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으로 문경 여행이 한층 쉽고 즐거워졌다. 최고 시속 250킬로미터의 KTX-이음을 타고 경기도 이천, 충북 음성·충주·괴산을 거쳐 문경까지 빠르게 달려간다. 판교와 문경을 잇는 열차는 하루 여덟 번 운행한다. \*판교역 출발(하행) 08:50, 12:55, 17:25, 21:36 / 문경역 출발(상행) 06:25, 10:54, 15:15, 19:35

📍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414

**Mungyeong Station**  
Exploring Mungyeong by KTX

Traveling to Mungyeong has never been easier. Starting November 2024,

the newly opened Jungbunaeryuk Line connects Pangyo to Mungyeong in just 90 minutes from Gyeonggi-do Province. The KTX-Eum trains, reaching speeds of 250 km/h, make stops at Icheon, Eumseong, Chungju, and Goesan.

\*Departure from Pangyo Station (downbound): 8:50, 12:55, 17:25, 21:36  
Departure from Mungyeong Station (upbound): 6:25, 10:54, 15:15, 19:35

📍 414, Mawon-ri, Mungyeong-eup, Mungyeong-si

7

**애플문**  
문경 사과를 더 달콤하게 즐기는 법

사과라고 다 같은 사과가 아니다. 일교차가 큰 문경의 기후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사과를 길러 낸다. 9월 홍로, 10월 감홍, 11월 부사... 맛과 향이 빼어난 문경 사과를 색다르게 즐기는 법이 있다. 사과 디저트 카페 ‘애플문’의 다양각색 메뉴를 맛보는 것. 사과 당근 케이크, 사과 크로플, 사과 크로넛, 사과 스콘까지. 하이라이트는 잘게 썬 사과와 편으로 큼직하게 썬 사과를 한데 넣어 질감을 살린 사과 파이다. 재료를 아끼지 않아 풍미가 농밀하다.

📍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587-10

**Apple Moon**  
Savoring Mungyeong Apples

The drastic temperature shifts in Mungyeong produce apples with firm flesh and high sweetness. From Hongro apples in September to Gamhong in October and Busa in November, enjoy these varieties at Apple Moon, a café specializing in apple desserts. A standout is their apple pie, which blends finely diced apples with large, chunky slices for an irresistible texture.

📍 587-10, Saejae-ro, Mungyeong-eup, Mungyeong-si

# 강진이 즐거운 네가지 이유

고려청자축제에서 내 손으로 청자를  
빛어 보고, 전라병영성을 걸으며  
5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즐거움. '백금포 문화공간 1933'에서  
인생 사진을 찍고,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는 뿌듯함.  
올봄, 특별한 여행을 계획한다면  
전남 강진으로 향하자.

제작 지원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가는 방법** 강진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나주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나주역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1

# 1 비취옥의 영롱한 푸른빛 고려청자에 반하다

월출산과 녹차, 다산 정약용과 백련사, 마량향과 강진만 갯벌. 강진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대구면과 고려청자다. 봄날의 투명한 호수 같은 청록색에 날아갈 듯 유려한 봉황의 자태.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강진군 대구면에 있는 고려청자박물관으로 향해야 한다. 고려청자박물관에는 청자 운반선과 상감청자 제작 방법, 고려청자 생산 과정이 미디어처로 전시되어 있고, 대표 소장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해 놓아 고려청자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고려청자박물관에서 10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는 고려청자와 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이 있다. 반응형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꾸민 이곳에서는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으며 놀이하듯 고려청자에 대해 배운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인피니티 미러 존(Infinity Mirror Zone). 바닥과 네 면의 벽, 천장으로 이루어진 여섯 면이 모두 거울로 되어 있고, 청자 조형물이 중심을 차지한다. 가느다란 실 커튼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서면 원색의 화려한 LED 조명이 사방을 비취 무한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든다. 박물관 2층에는 고려청자를 주제로 한 실내 놀이터, 플레이 셀라돈이 있다.

주소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2



3



4

- 1 고려청자박물관 상설 전시장.
- 2 고려청자를 주제로 한 실내 놀이터 '플레이 셀라돈'.
- 3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메인 전시관. 4 고려청자박물관 미디어처 전시관.



## 제53회 강진청자축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요지 일원에서 제53회 강진청자축제가 열린다. 청자 빚기, 화목 가마 불 지피기 등이 펼쳐져 고려청자 제작 과정을 체험하고 만족스러운 가격에 청자를 구매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놀이 요소가 가미된 어린이 싱어롱쇼, 봄 내음 가득한 나물 캐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www.gangjin.go.kr

2

전라병영성 따라  
500년 전으로 시간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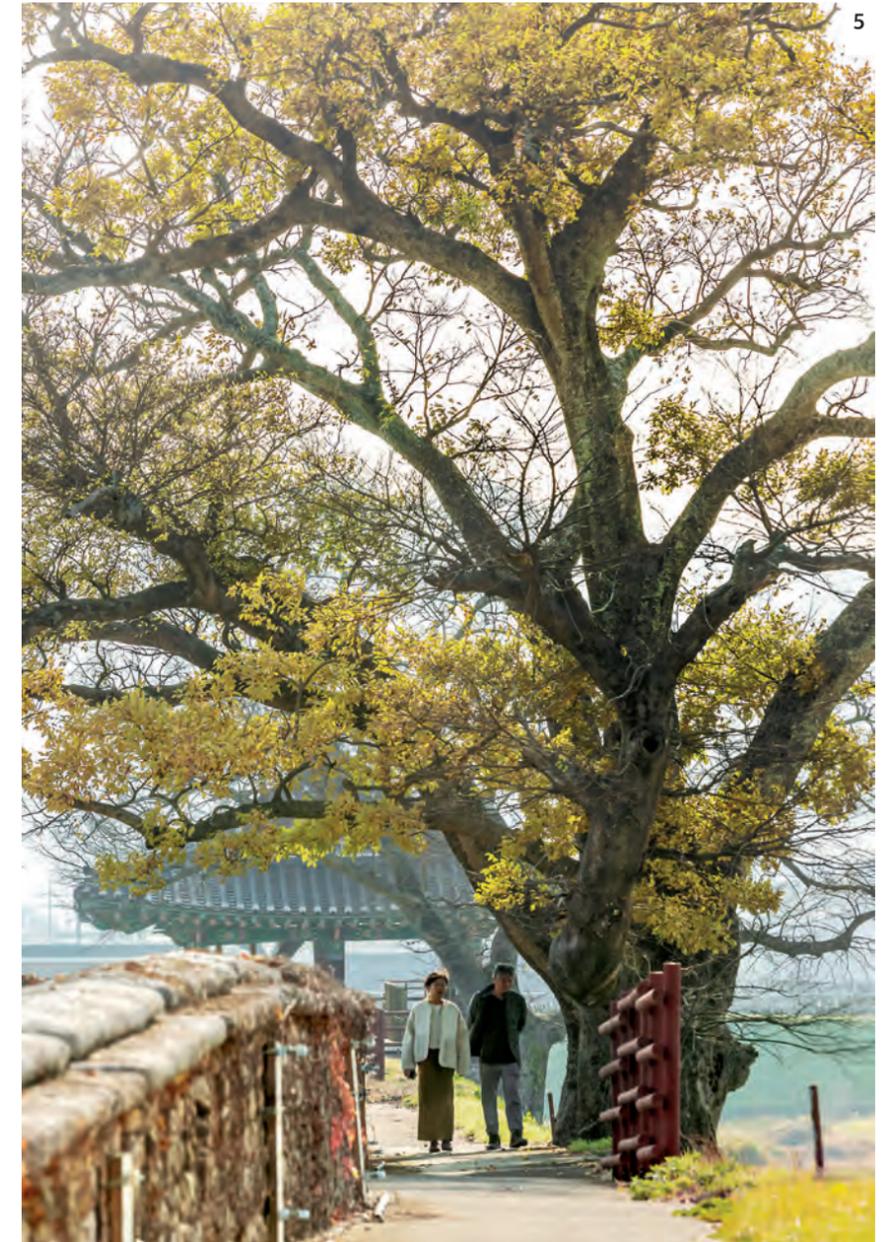
금강천을 건너 성자산 쪽으로 가다 보면 입을 떨군 은행나무 너머로 다부지게 쌓은 성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차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성곽길. 안으로 들어가 돌로 쌓은 계단을 오르면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도 남을 크기의 공간이 나타난다. 총면적 9만 3139제곱미터, 총길이 1060미터, 높이 3.5미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성곽은 바로 전라병영성이다.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설치되어 고종 32년(1895년)까지 조선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 총지휘부다. 병마절도사가 머무는 조선 시대 서남부 지역의 군사 본부였던 것. 전국적으로 병영과 관련된 성곽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전라병영성은 도성, 읍성과 달리 성 내부에 군사시설만 있는 군영성이다. 그 역사적 의미와 쓰임에 걸맞게 성곽의 위용은 놀라움 그 자체.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동서남북으로 거대한 문이 설치되어 있고, 북문과 동문 사이에는 활터가 자리한다. 1998년부터 복원 작업이 시작되어 남문과 동문은 완료되었고, 서문은 진행 중이다. 동문 건너편에는 우리나라를 서양에 최초로 알린 '헨드릭 헤멜'을 기리는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이 있다.

주소 전남 강진군 병영성로 180



제28회 전라병영성축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라병영성 내에서 제28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조선조 500년 역사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축제. 호패 만들기 체험, 옛날 감옥 체험, 짚신 신고 성곽 둘러보기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ww.gangjin.go.kr



1, 2 전라병영성 동문. 높이 3.5미터의 웅성이 감싸고 있다. 3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의 하멜 동상 4 전라병영성 북문에서 바라본 풍경. 5 강진 시민들이 산책 삼아 즐겨 찾는 전라병영성 성곽길.



1



2



3



4

### 3 | 옛 양곡 창고의 화려한 변신 백금포 문화공간 1933

탐진강 물줄기가 강진만으로 흘러드는 백금포는 일제강점기에 육지의 산물을 실어 나르는 포구였다. 당시 쌀 집산지였던 강진, 백금포에는 자연스럽게 벼를 쌓아 보관하는 대규모 양곡 창고가 들어섰다. 그로부터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백금포에 설치된 양곡 창고는 쓰임을 잃은 채 텅 빈 건물로 남았다. 바로 이곳이 깜짝 놀랄 문화 놀이터로 변모했다. '백금포 문화공간 1933'은 총 3개의 미디어아트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 그중 첫 번째 방은 '황금 들녘'. 뽕씨 한 알이 황금 들녘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시작으로 강진의 자연을 상상 속 판타지의 세계로 재해석했다. 쌀 폭포와 동백꽃 호수, 환상의 숲과 바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 발로 밟고 손으로 만지면 폭죽이 터지고 뽕씨가 모아지기도 해 감탄이 절로 나온다. 두 번째 방은 '강진 오솔길'. 사방이 거울이고 하늘하늘한 천이 길게 늘어진 방에 들어서면, 순간 아찔한 낮섬과 함께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세 번째 방은 '강진 만찬'. 싱그러움 과일과 색색의 쌈채소가 어우러진 물길 등 자연의 선물로 차린 강진의 만찬이 거울로 둘러싸인 만경경 안에 펼쳐진다. 백금포 문화공간 1933은 올봄에 문을 열 예정. SNS의 핫 스폿으로 떠오를 날이 머지않았다.

주소 전남 강진군 백금포길 28

1 '백금포 문화공간 1933' 외관  
2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휴게 공간. 3 강진의 자연을 상상 속 판타지의 세계로 재해석한 '황금 들녘'. 4 '백금포 문화공간 1933' 옛 창고에선 지금도 쌀 수매가 이루어진다.



1 월출산 아래 자리한 달빛한옥마을.  
 2 달빛한옥마을 담 위의 모과.  
 3 '강진 푸소' 팻말이 달린 집에서 한옥 민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은빛 운슬이 반짝이는 마량항의 오후.  
 5 병영마을의 명물, 병영대지불고기.



###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 어떻게 이용할까?

'강진반값'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내용과 조건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고, 사전 신청·정산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강진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진군 직거래 쇼핑몰 '초록민음강진'으로 바로 연결된다. 사용처는 지역 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착(chak)'에 안내되어 있다.  
[www.gangjintour.com](http://www.gangjintour.com)

## 4 진짜? 진짜!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

1인분에 5만 원인 한정식은 부담스럽지만, 2만 5000원이라면 결정이 빨라진다. 1박에 10만 원짜리 숙박 시설은 망설여지지만, 5만 원이라면 주저하는 사이 예약이 차버릴까 봐 마음이 급해진다. 강진군에서 기획한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은 여행자의 이런 마음을 십분 헤아린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 강진을 여행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여행비의 절반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강진에 있는 숙소, 음식점, 카페, 기념품 숍, 박물관 등에서 쓴 비용의 절반을 여행이 끝난 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여행 당일까지 '강진반값'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행 후에는 강진을 여행하며 찍은 관광지 인증 사진과 5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당일 바로 정산해 준다. 강진사랑상품권은 강진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어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여행하며 눈에 겨봐 둔 물건을 살 때 유용하다. 강진군의 온라인 쇼핑몰 '초록민음강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지역 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착(cha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5

## 여행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다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을 알았으니 마음의 부담을 절반은 덜어 낸 셈. 이제 강진으로 출발할 일만 남았다. 이 계절에 강진에서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강진만생태공원. 탐진강의 열린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강진만은 갈대 군락지가 펼쳐지고, 청정 갯벌이 살아 숨 쉬어 매년 멸종위기종 2급 큰고니 2500여 마리가 찾아든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에 맞춰 가면 큰고니와 저어새, 청둥오리 등이 구름처럼 몰려와 갯벌에서 노니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다. 전라병영성과 병영마을 돌담길 산책도 필수 코스. 이 동네에서 출출해진 배를 채우려면 아늑한 돼지고기를 연탄불에 구워 주는 병영돼지불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 해가 진 후엔 달빛한옥마을로 향할 것. 아름다운 한옥 숙소 10여 곳에서 숙박 프로그램 '푸소(FUSO)'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띄었다면 마량항에 가 볼 것을 추천한다. 강진군수협 위판장에서 매일 아침 경매가 열리는데, 경매사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듯 낙지며 문어를 경매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주변 식당에서 싱싱한 회를 먹고, 가게 주인이 직접 넣어 말린 건어물을 구매하는 것도 좋다. 월출산을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이한영차문화원 백운차실로 향하자. 다산 정약용의 제자 이시현 선생의 후손이자 한국 최초의 차 브랜드 '백운옥판차'를 만든 이한영의 고손녀 이현정 원장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백운옥판차 한잔에 수제 약과와 양갱을 곁들이면 강진에 하루 더 묵고 싶어진다.



1



3

## INTERVIEW

###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백경자 과장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여행객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구를 유입해 지방 소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여행비 반값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반값여행의 성과가 궁금해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여행객이 25퍼센트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반값여행 참여자가 사용한 정산금(강진 사랑상품권) 총액은 58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강진 관내 1812개 업체 모두 반값여행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덕분에 축제를 즐기신 분이 많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진청자축제' '전라병영성축제' '강진수국길축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강진의 주요 축제에 오신 분이 65만여 명에 이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를 강화해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입니다.

**1월에 강진을 찾은 분들께 여행 팁을 부탁드립니다.**  
다산초당과 백련사에서 사색을 즐기고, 강진만생태공원에선 겨울 철새들의 군무를 감상하세요. 가우도 정상, 높이 25미터의 청자타워에 오르면 강진만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곳에서 집트랙을 타면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진의 대표 음식인 한정식은 어릴 가나 만족하실 겁니다. 마량항에서 참돔·광어·송어 등 싱싱한 겨울 생선을 맛보고, 부드러우면서 기름기가 적은 병영돼지불고기도 꼭 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2



1 가우도의 청자타워. 집트랙을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다. 2 겨울 철새가 날아드는 강진만생태공원. 3 청자 자연 가습기. 4 백운차실의 백운옥판차. 5 백운옥판차에 수제 디저트를 곁들인 한 상 차림.



4



5



# Four Joyful Experiences in Gangjin

Gangjin Celadon Festival, Jeolla Naval Fortress Festival, Baekgeumpo Culture Warehouse 1933, and even half-priced trips—here’s why Gangjin should be on your travel list this year.

1

## The 53<sup>rd</sup> Gangjin Celadon Festival

Gangjin is home to Goryeo celadon with a 500-year legacy. Over 80% of Korea’s national treasures and relic-grade celadon originate from here, and of the 400 ancient kiln sites discovered nationwide, more than 200 are in Gangjin. To explore this rich history, head to the Goryeo Celadon Museum in Daegu-myeon. The museum offers miniatures depicting celadon production, exhibits on transport ships, and inlaid celadon-making techniques. Key artifacts are displayed by era, giving visitor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is traditional craft. Nearby, the Goryeo Celadon Digital Museum combines celadon heritage with cutting-edge technology. The media art space offers interactive learning experiences, while its second floor features Play! Celadon, a celadon-themed indoor playground. From February 22 to March 3, the 53<sup>rd</sup> Gangjin Celadon Festival will take place near the historic kiln sites of Daegu-myeon. Visitors can try their hand at celadon crafting, firing traditional wood kilns, and participating in half-price celadon auctions. Other fun activities include a children’s singalong show, foraging for spring greens, and admiring the fields of blooming rapeseed flowers. [www.gangjin.go.kr](http://www.gangjin.go.kr)

2

## Baekgeumpo Culture Warehouse 1933

A new cultural space in Gangjin, Baekgeumpo Culture Warehouse 1933, is set to open this spr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aekgeumpo served as an ideal port for transporting goods from the mainland. Gangjin, a major rice collection site at the time, naturally became home to large-scale grain depots, including those at Baekgeumpo. Nearly a century later, these depots have lost their original purpose, standing empty and unused—until now. This location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exciting cultural playground. Baekgeumpo Culture Warehouse 1933 features three exhibition halls brought to life with media art. The first hall, titled Golden Fields, is an interactive media experience reinterpreting Gangjin’s natural landscapes through the lens of fantasy. It begins with a single grain of rice transforming into a golden field. The second hall, Gangjin Forest Trail, is an enchanting mirrored room draped with delicate, flowing fabric. Visitors stepping into this space are greeted with a dizzying sense of unfamiliarity, as if transported to a mythical utopia. The third hall, Gangjin Banquet, presents a feast of Gangjin’s natural bounty within a kaleidoscope of mirrors. Baekgeumpo Culture Warehouse 1933 is sure to become the next Instagram hotspot once it opens in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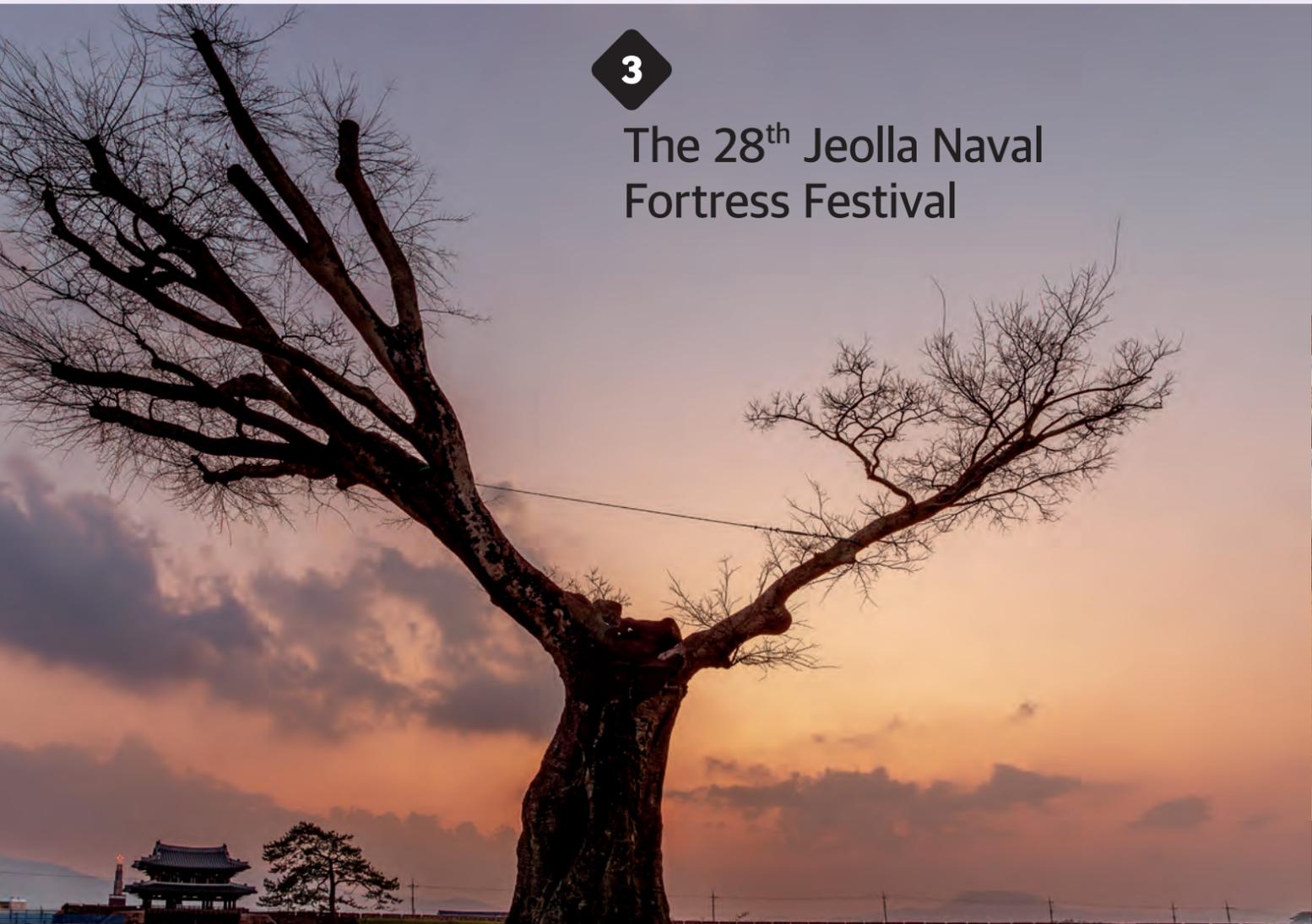




The Jeolla Naval Fortress was established in the 17th year of King Taejong's reign (1417) and served as the supreme headquarters of the Joseon Dynasty's army for 500 years, overseeing 53 provinces and six outposts, including Jeolla-do and Jeju Island, until the 32nd year of King Gojong's reign (1895). It was the military headquarters for the southwestern region during the Joseon era, where the commander-in-chief resided. Among the nation's fortress walls associated with military camps, the Jeolla Naval Fortress is the best-preserved. Walking along its rectangular fortress path, you'll encounter massive gates on all four sides—east, west, south, and north—and even see an archery range between the northern and eastern gates. Although the original buildings and relics have been lost, the fortress walls remain remarkably intact. Restoration efforts began in 1998, with the southern gate (Jinnamru) and eastern gate completed, while restoration of the western gate is still ongoing. From March 28 to 30, the 28th Jeolla Naval Fortress Festival invites visitors to experience this historic landmark. Activities include making traditional ID tags (hopae), visiting a recreated historical prison, and exploring the fortress in straw sandals. The highlight is a guided fortress tour led by cultural interpreters, who bring the site's 500-year history to life. [www.gangjin.go.kr](http://www.gangjin.go.kr)

3

## The 28<sup>th</sup> Jeolla Naval Fortress Festival



4

## Gangjin Half-Price Travel Program

Perhaps the most enticing reason to visit Gangjin is the Gangjin Half-Price Travel Program. This initiative reimburses 50% of your travel expenses in Gangjin in the form of Gangjin Sarang Gift Certificates, which can be used as cash within the region. Accommodations, restaurants, cafes, souvenir shops, museums, and activity programs are all eligible for this benefit. For example, if you spend KRW 100,000 on your trip, you'll receive KRW 50,000 back in gift certificates. Participation is simple. Visit the Half-Price Travel website before your trip and register by entering your travel dates, personal details, and proof of residency outside Gangjin (e.g., an ID or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After your trip, submit your receipts, spending details, and photos of the places you visited for reimbursement. Check the regional gift certificate app Chak for more information on participating locations, or visit Gangjin's online shopping mall, Green Trust Gangjin.

Gangjin Half-Price Travel | [www.gangjintour.com](http://www.gangjintour.com)  
Green Trust Gangjin | [greengj.com](http://greengj.com)



# 설국 열차 타고 스위스 산악 마을을 가다

스위스 알프스의 겨울은 낮설지만 매혹적이다. 베르너 오베를란트 알프스에 눈이 내리면 숨겨진 '겨울 왕국'이 레일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붉은색 산악 열차가 덜컹거리며 샬레 사이를 오가고, 뤼렌·벵젠·그린델발트 등 순백의 마을을 지날 때마다 가슴 뭉클한 장관이 펼쳐진다.



베르너 오베를란트 알프스는 스위스 알프스의 웅대한 중심이다. 아이거, 융프라우, 뮌히 등 해발 4000미터급 고봉 30여 개가 나란히 도열해 있다. 빼어난 봉우리를 배경으로 봄가을에는 트레킹,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알프스의 험터인 산악 마을은 해발 1000~2000미터에 소담스럽게 등지를 틀고 있다. 인터라켄을 출발한 산악 열차는 라우터브루넨, 그린델발트를 거쳐 뵘겐, 뮌히까지 마을과 간이역을 경유해 아이거와 융프라우 봉우리로 내달린다.

### 산악 마을 뮌히와 뵘겐의 겨울 단상

라우터브루넨역에서 케이블카와 열차로 닿는 뮌히는 은밀한 동네다. 해발 1639미터에 위치한 이 마을

에서는 아이거, 융프라우, 뮌히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인다. 100년 전 지은 목조 가옥들은 여전히 우아한 멋을 뽐낸다. 자그마한 종과 산양 머리뼈로 장식된 창문은 때어가고 싶을 만큼 독특하다. 뮌히는 주로 스키 마니아들이 찾아들 뿐 인적이 뜸해 오붓하게 여행을 즐기려는 신혼여행객에게 인기가. 뮌히에서 그뤼취알프역까지는 알프스를 바라보며 철로와 나란히 걷는 평화로운 산책로가 이어진다. 라우터브루넨역에서 톱니바퀴 열차로 갈아타면 청정마을 뵘겐에 닿는다. 전기 자동차만 오가는 뵘겐은 눈 속에서 한껏 기지개를 켜다. 치즈 가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스키를 타며 오후 시간을 보낸 후 저녁에는 스파를 하는 것으로 알프스에서의 나른한 하루가 마무리된다. 뵘겐 마을 주민들이 말하는



2



3

1 노란 열차가 오가는 산악 마을 뵘겐에서 즐기는 망중한. 2 뵘겐 치즈 가게 지하에서 숙성되는 알프스 치즈. 3 뮌히로 올라가는 한 칸짜리 산악 열차. 4 호젓한 뮌히는 신혼여행객의 은밀한 여행지로 사랑받는다.



1



4



진정한 '알프스 치즈'란 해발 1400미터 이상 목초지에 방목한 젖소의 우유로 만든 것만을 의미한다. 치즈 가게 지하 창고에는 사람 얼굴 크기만 한 알프스 치즈가 콧김을 뿜어낸다. 뵐겐 마을 깊은 곳에는 오래된 영화관이 빛바랜 필름처럼 들어서 있고, 교회에서는 멘델스존을 기리는 음악제가 열린다.

### 그린델발트, 스키와 함께 열차에 오르다

고즈넉한 라우터브루넨과 달리 그린델발트는 연중 활기찬 분위기다. 특히 스키 시즌이 되면 산악 액티비티의 천국다운 면모를 자랑한다. 그린델발트 거리의 상가들이 자정까지 문을 열고, 스키나 보드를 멘 채 열차나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봄가을 트레킹 코스였던 곳에 눈이 내리면 자연스럽게 천연 슬로프가 만들어진다. 아무도 지나지 않은 파우더 스노 위에 스키어들은 자신만의 흔적을 남긴다. 11월에 시작된 스키 시즌은 4월까지 이어진다.

그린델발트에서 연결되는 해발 2168미터의 피르스트는 겨울 액티비티의 '제2캠프'다. 트레킹과 흥미로운 탈것으로 북적였던 공간에 눈이 내리면 스키어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피르스트역에는 이방인들의 쉼터인 산장이 들어서 하루 묵을 수 있고, 등산화나 스키 대여도 가능하다. 피르스트 클라이더나 플라이어를 타고 설경 속을 가로지르는 체험은 언제나 짜릿함을 선사한다. 역과 역을 잇는 산 중턱 길은 눈썰매가 가로지른다. 융프라우 일대에는 총 50킬로미터에 이르는 눈썰매 코스가 펼쳐져 있다. 피르스트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주인공 이정혁(현빈 분)과 윤세리(손예진 분)가 알프스 봉우리를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진다. 해발 2000미터가 넘는 벼랑에서 설산 계곡으로 뛰어드는 알프스 패러글라이딩은 실제로 드라마틱하다. 에메랄드빛 호수를 배경으로 이정혁이 피아노

1 눈 덮인 봉우리를 배경으로 피르스트에서 즐기는 트레킹. 2 오두막 앞, 노년의 스노보드. 3 피르스트 슬로프에서 휴식하는 스키어들. 4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등장했던 알프스 패러글라이딩. 5 겨울이면 스키어들은 산악 열차에 스키를 싣고 이동한다.



연주를 하는 장면은 산 아래 호수 마을 이젤트발트에서 촬영했다.

### 아이거에 깃든 감미로운 휴식

라우터브루넨과 그린델발트를 출발한 열차는 클라이네샤이텍에 집결한다. 이곳에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역인 융프라우요흐(해발 3454미터)로 향하는 붉은색 산악 열차가 출발한다. 알프스의 암벽을 뚫고 들어선 톱니바퀴 철로는 그 세월이 100년을 넘었다. 클라이네샤이텍 뒤로는 아이거가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다. 알프스의 3대 북벽 중 하나인 아이거는 한때 등반 금지령을 내렸을 만큼 코스가 험난하다. 70여 년 전 첫 등정을 위해 사투를 벌인 청년 등반가들의 도전 이야기가 빛바랜 철로 위에 아스라이 남아 있다. 아이거를 배경으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고, 아이거 등반가들의 역사와 도전에 관한 자

료를 모은 박물관도 문을 열었다.

융프라우요흐에 닿기 전 마지막 간이역인 아이거글레치(해발 2320미터)가 최근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그린델발트 터미널에서 아이거글레치까지 익스프레스 곤돌라로 연결되는 직행 루트가 생긴 것이다. 올겨울에는 옛 철도 본부를 개조한 '더 월 바(The Wall Bar)'가 문을 열었다. 야외 테라스에 앉아 아이거를 추앙하며 암벽 등류소에서 정제한 진을 마실 수 있다. 역 레스토랑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초콜릿 공장도 있다. 갓 구워 낸 아이거 북벽 모양 수제 초콜릿이 설경 속에 녹아든다. 알프스의 간이역과 산악 마을에선 다채롭고 독특한 음식을 판매한다. 그중 루젠브로이는 융프라우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맥주로, 산 아래 인터라켄 근교에 브루어리가 들어서 있다. 이 일대는 치즈 풍뎉에 곁들이는 화이트 와인의 명성이 높다.



### 알아 두세요

#### 가는 방법

한국에서 취리히까지 스위스 항공 직항편이 운항한다. 취리히에서 산악 열차 출발점인 인터라켄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산악 마을과 봉우리들은 열차와 곤돌라로 연결된다.

#### 숙소

알프스의 간이역은 대부분 레스토랑과 산장 숙소를 갖추고 있다. 스키 시즌에는 인터라켄보다 산 중턱의 그린델발트, 뵅겐, 뮌덴에 있는 숙소의 인기가 높다. 샬레퐁의 개별 숙소에서 오붓하고 따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이벤트

아이거 익스프레스의 출발역인 그린델발트 터미널에서는 주말마다 '애프터 슬로프 사운즈' 콘서트가 개최된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탄 후 DJ와 함께 신나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뵅겐 인근의 라우버호른에서는 매년 1월 중순 스타급 선수들이 스피드를 겨루는 '라우버호른 스키 월드컵'이 열린다.

#### 액티비티

스키를 못 타도 곳곳에 눈썰매 코스가 있어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좋다. 특히 아이거를 등지고 달리는 13킬로미터의 융프라우 아이거 런 코스가 인기다. 세계에서 가장 긴 눈썰매 코스는 피르스트와 그린델발트를 잇는 15킬로미터다.

#### 융프라우 VIP 패스

베르너 오베를란트 지역 내 정해진 노선에 한해 기차, 산악 열차, 케이블카, 버스, 유람선 등을 무제한 탑승 가능한 패스다. 기차를 타고 융프라우요흐를 포함 피르스트, 뮌덴, 멘리헨 등을 등정할 수 있다. 문의 [www.jungfrau.co.kr](http://www.jungfrau.co.kr)(동신항공)

1 알프스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진 산악 레스토랑. 2 아이거 북벽 앞의 클라이네샤이텍역 풍경. 3 아이거글레치역 공방에서 만든 초콜릿. 4 진으로 목을 축이는 산악인.



# 에히메현 소도시 여행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고,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일본 에히메현으로 여행을 떠난다.

## 도시의 편리함, 시골의 여유로움

일본은 단거리 여행지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저비용 항공편 확대로 N차 여행객이 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를 찾는 이들의 수요가 많아졌다. 2024년 가장 주목 받은 소도시 중 하나가 바로 마쓰야마다. 일본 열도를 이루는 주요 섬 네 곳 중 가장 작은 시코쿠의 에히메현 중부에 위치한 마쓰야마는 '낮설지만 낯설지 않은 곳'이다.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도고 온천이 있고,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도련님>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산성이 굽어보이는 거리에서 레트로 노면전차를 타고 30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온천으로 떠나는 여행. 도시의 편리함, 시골의 여유로움을 두루 느낄 수 있는 마쓰야마는 관광지의 설렘과 일상의 평온함이 공존해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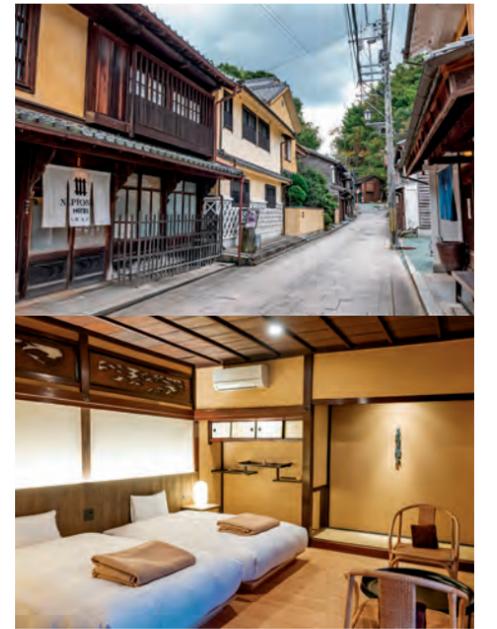


## 에히메현 여행의 중심, 마쓰야마 & 도고 온천

마쓰야마의 대표 여행지이자 필수 코스인 도고 온천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중 하나다. 1994년 공중목욕탕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약 5년 반 동안 보수공사를 하고 2024년 7월 전관 영업 재개를 한 도고 온천 본관에는 새로운 휴게 공간 두 곳이 생겼고, 입장권도 리뉴얼했다. 아스카노유는 2017년 하반기에 문을 연 도고 온천 별관으로 일본 아스카 시대를 현대 감각에 맞게 재해석해 꾸몄다. 마쓰야마 여행의 중심인 도고 온천에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심심하지 않다. 어느 온천 여행지와 다르게 시내와 가까워 시티 투어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고 온천은 20~55도의 온도가 각기 다른 원천 열여덟 곳에서 끌어 올린 온천수를 욕탕으로 보내기 전에 적당한 온도로 섞는다. 온천수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는 순수 알칼리성 온천수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특히 좋다. 뜨끈한 온천수에 몸을 담근 후 자판기에서 뽑은 우유를 한 병 마시고 고풍스러운 거리와 상점가를 거닐며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 보자. 마쓰야마는 '도련님'의 도시답게 곳곳에 그 흔적이 가득하다. 붓짱 가라쿠리 시계, 즉 '도련님 시계'에서는 매시 정각, 소설 속 등장인물이 오르골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역시 '도련님'에서 이름을 딴 붓짱 열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돈 후에 레트로 분위기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잔 마신다.

## 레트로한 시간 여행, 우치코 & 오즈

마쓰야마 시내에서 기차를 타고 30여 분 가면 에도 시대 말 번성했던 상업 거리가 잘 보존된 우치코가 나오고, 우치코역에서 30여 분 더 가면 '이요의 작은 교토'라 불리는 오즈에 닿는다. JR 마쓰야마역에서 JR 우치코역을 지나 JR 이요오즈역까지 하루 동안 이용 가능한 '우치코 오즈 산책 1일 패스'를 구매하면 닮은 듯 다른 두 도시를 하루에 돌아볼 수 있다. 우치코는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초의 원료인 목랍 생산과 해외 수출로 번성했던 마을이다. 지금도 19세기 분위기를 간직한 목조 가옥이 즐비한 작은 골목은 고풍스러움이 느껴진다. 목랍 자료관과 작은 상점들을 돌아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오즈는 아지카기하면서 정겨운 소도시 감성을 오롯이 간직한 동네다. 히지카와강을 끼고 있는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오즈성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변 환경과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아름다운 성이다. 에도 시대 번주의 정원이자 메이지 시대 대상인의 별장이었던 가류 산장에서는 일본 정원 건축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오래된 수목에 둘러싸인 산장과 정원 산책로 끝에 있는 다실 '후로안'은 가류 산장 내에서도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다. 반짝이는 윤슬을 뿜내는 히지카와강을 바라보면 시끄러운 속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잠시 들렀다 가는 게 아쉽다면 오즈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다. '닛포니아 호텔 오즈 조카마치'는 오즈의 오래된 민가를 개조해 자연, 문화, 음식, 역사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재탄생했다. 각기 다른 인테리어의 31개 객실이 손님을 맞이한다. 객실이 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번주의 집무실, 거상의 저택과 공간, 400년 된 노포, 오즈의 유서 깊은 건축물 등 각각 다른 곳에 자리해 마을을 탐험하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택의 온기를 간직하면서 현대적인 편리함도 놓치지 않아 천연일물적인 호텔이 싫은 여행자라면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것이다.



**인천-마쓰야마 / 제주항공 / 매일 2회 왕복 운항**  
가는 편 ① 07:00 인천~08:40 마쓰야마 7C1771  
② 13:05 인천~14:40 마쓰야마 7C1703  
오는 편 ① 09:40 마쓰야마~11:15 인천 7C1772  
② 15:40 마쓰야마~17:35 인천 7C1704  
**부산-마쓰야마 / 에어부산 / 주 6일 왕복 운항(월요일 제외)**  
가는 편 16:35 부산~17:40 마쓰야마 BX134  
오는 편 18:35 마쓰야마~19:55 부산 BX133

좌측 합조 에히메현 진행 인페인더르본

# 무무와 함께하는 양평 나들이

반려견 가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 겨울도 예외일 수 없다. '오늘 안 나가?' 아련한 눈빛을 보내는 강아지를 보면, 어느새 주섬주섬 패딩 코트를 꺼내 입게 된다. 땡땡이와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 경기도 양평행 KTX에 몸을 실었다.



## 강아지 친화 여행지, 양평

서울 도심을 벗어나 팔당 방향으로 접어들니 가슴이 확 트인다. 오른쪽으로 북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겨울 하늘은 시리도록 파랗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반려견 무무와 양평역에 도착했다. 가평과 더불어 수도권 사람들이 여행지로 즐겨 찾는 양평은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다. 큰 만곡이나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지닌 것도 양평의 매력. 천년 고찰 용문사와 수령 1000년이 넘는 은행나무를 품고 있는 용문산,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두물머리,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 그리고 푸른 잔디밭에서 양과 교감할 수 있는 양평 양떼목장 등 산 좋고 물 맑은 양평엔 강아지와 갈 곳도 많다.

양평역에 내리면 바로 우측에 관광 안내소가 있다. 대부분 지나치고 말지만,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잠시 시간을 내 들러 보길 추천한다.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반갑게 맞이하는 관광 안내소 직원들은 '땡이엔 냥평(양평 땡이와 냥이의 핫 플레이스)'이라는 반려동물 동반 관광 안내 지도를 쓱 건네 주었다. 펜션·야영장·휴양림·캠핑장·리조트 등 반려동물 동반 숙소 28곳, 공원·관광지·시장 등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43곳, 동물병원 16곳의 정보까지 양평 지도에 반려견 동반 여행 정보가 가득하다. 그동안 반려견 친화 여행지를 꽤 많이 다녔는데, 양평처럼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곳은 보지 못했다. 단, 강아지 크기에 따라 제한을 두는 곳이 있으니 중·대형견 입장이 가능한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 사람도 강아지도 행복한 두물머리

양평을 소개하는 여행 팸플릿은 두물머리를 첫 번째 관광지로 소개한다. 흙냄새, 물냄새가 가득한 두물머리는 강아지 산책 장소로도 제격이다. 어느 반려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아지에게 자연의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과 같다고. 그 정도로 짜릿한 일이라니, 무무에게 냄새 맡을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무무야, 너 지금 엄청 재미있는 유튜브 보는구나?” “쿵쿵!” 얼마나 재미있는지 불러도 응답이 없다.

두물머리.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 물과 강원도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 두물머리는 과거 강원도에서부터 물길을 따라온 뗏목과 어부가 쉬어 가던 쉼터였으며, 한양의 뚝섬나루와 마포나루를 이어 주던 마지막 나루터로 번창했다. 물길의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두물머리는 안개 자욱한 아침 풍경이 압권이지만, 생명력이 느껴지는 낮 풍경도 더없이 눈부시다. 황금빛 갈대가 춤을 추고, 수면에 햇살이 부딪혀 반짝반짝 윤슬을 만들어 낸다. 강가에 서 있는 황포 돛배도 운치를 더한다. 두물머리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배는 과거에 한강을 왕래하며 땀감이나 식량을 실어 날랐다. 지금 서 있는 배는 원형이 아니고, 장인이 과거의 모습을 복원한 것이다.

두물머리의 명물은 400년 넘는 느티나무인데, 강 쪽으로 특 튀어나온 곳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다. 나무 아래 고인돌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인돌엔 복두칠성 등 별자리를 나타내는 구멍(성혈)이 뿔뿔 뚫려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두물머리가 기운 좋은 땅, 명당이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 앞에 서서 잠깐 소원을 빌었다. 2025년엔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길. 가끔 흔들릴지라도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강아지와 두물머리를 산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포토 스폿은 두 군데다. 강가에 커다란 액자 프레임이 있는데, 액자를 통해 바라보는 풍경은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액자 프레임에 무무를 올려놓고 멋진 독(dog)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함께 걸터앉은 자세의 사진으로 추억을 또 하나 남겼다. 사람들은 액자 뒤에 서기도 하고, 점프도 하는 등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한다. 또 다른 포토 스폿은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비록 나무가 다섯 그루뿐이어서 길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앵글을 잘 맞춰 사진을 찍으면 어느 메타세쿼이아 길 못지않은 멋진 장면을 담을 수 있다. 나무 아래서 무무와 걷는 모습의 사진은 바로 SNS 프로필 사진이 되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양평역까지 50분 정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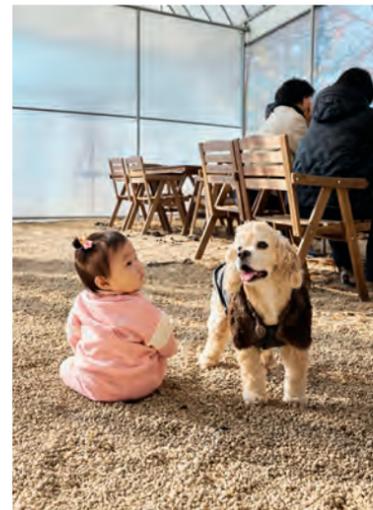
### 구버울

주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남한강변길 123-19  
영업시간 10:00~21:00  
문의 070-8801-2319



### 강아지와 즐거운 커피 타임

강아지 목줄을 잡은 손이 꿈꿉 열기 시작하니 따뜻한 커피 한잔이 간절하다. '구버울'은 배우 남상미가 운영하는 카페로 유명한 곳. 강물이 어울려 흐르는 모양이 말발굽 같다 하여 이 지역을 '굽어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구버울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조선 시대 '사천장팔경도'라는 그림에도 등장하는 풍광은 구버울의 야외 테라스에서 한눈에 담진다. 카페 안에는 강아지가 들어갈 수 없지만, 구버울은 훨씬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계단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커다란 온실이 사람과 강아지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햇살이 구석구석 스며드는 온실은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인 실내보다 훨씬 더 따뜻해서 좀처럼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커피와 땅콩크림라테, 소금빵은 구버울의 시그니처다. 양평에서 찾은 또 하나의 카페는 '하우스 베이커리'. '집빵'이라는 뜻의 하우스 베이커리에는 고소한 빵 내음이 가득하다. 한옥을 재해석해 서까래는 그대로 두고, 소반을 소품으로 전시하는 등 고즈넉한 한옥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다. 강아지는 실내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풋살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너른 잔디밭이 있어 강아지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단, 목줄을 푸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우스 베이커리는 많은 연예인이 극찬했을 정도로 빵 맛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과육이 통째로 올라간 망고 스무디와 크림이 가득 든 소복소복이 인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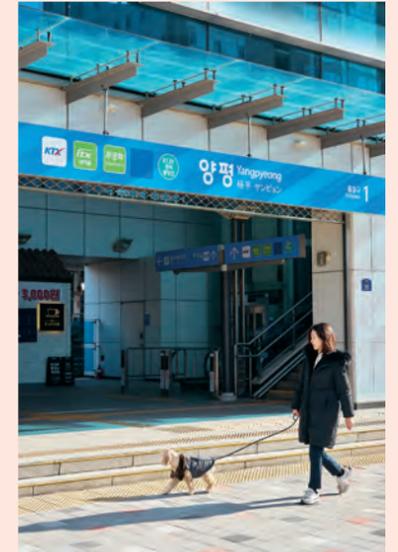
### 하우스 베이커리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684  
영업시간 10:30~20:00 문의 031-772-8333



### 동물도 KTX에 탑승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위한 승차권을 구입해 KTX를 함께 이용해 보자. 단,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간혹 강아지 좌석을 유아 승차권으로 구매하기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강아지 역시 성인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어길 경우 기준 운임의 10배에 달하는 부과 운임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유아 좌석 승차권을 끊고 강아지를 태웠다가 부정 사용으로 벌금을 40만 원 넘게 낸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KTX에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은 필수 예방접종을 마친 개, 고양이, 새 등으로 무게 10킬로그램 이내여야 한다. 또 길이 100센티미터(45×30×25센티미터) 이내 이동장에 넣어 동행하는 것이 규칙이다. 도사견·도베르만·셰퍼드·핏불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설치류·파충류 등 다른 승객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동물은 탑승이 금지된다. 단,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의 보조견은 이동장을 이용하지 않고 동반 승차할 수 있다.



# 부산 원도심의 청년 사업가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를  
통해 부산 원도심에 매력적인  
여행 콘텐츠를 이식한 젊은  
사업가들이 있다.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체,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역 관광 문화의  
구심점이자 해결사 DMO의 제안을 따라  
더 깊이, 더 살들하게 여행을 즐겨 보자.

제작 지원 한국관광공사





## 산복어울스테이 & 하이앤드하우스 보수동과 여행자들을 잇는 따뜻한 공간

책방골목으로 유명한 중구 보수동. 산복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고,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이 모세혈관처럼 이어진다. 교통이 불편한 데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구 소멸 위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두 청년 사업가가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마을에 숨을 불어넣으며 온기를 돌게 한다. 모디하우스 1호점 '산복어울스테이'를 운영하는 '청년문화로 협동조합' 이예진 대표와 모디하우스 2호점 '하이앤드하우스' 정하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모디하우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정하연)** 모디하우스는 부산관광공사와 부산 DMO가 '모두의 여행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한 '모-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편안한 휴식처를 조성해 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산복도로에 1호점 산복어울스테이와 2호점 하이앤드하우스가 위치하고 이바구길에 자리한 3호점 이바구캠핑은 빈집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 민박촌으로 운영 중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업, 어떻게 시작했나요? (이예진)** 버려진 주민 공용 시설 건물을 부산 중구청에서 위탁받아 산복어울스테이 공간으로 활용하게 됐어요. 보수동은 인구가 많지만 청년 인구가 적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데다 유동 인구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언덕 뒷동네는 주거지이고, 오래된 책방골목이 펼쳐진 아랫동네는 여행자들이 종종 찾기는 하지만 체류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뒷동네와 아랫동네를 연계하고 보수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행자들이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하고 부산관광공사의 도움을 받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유예요. 여기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하이앤드하우스는 카페도 겸해 여행자 라운지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092 **산복어울스테이를 찾는 여행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예진)** 보수동은 외부인이 많이 찾



### 모-디

모-디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 사업 '모두의 여행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의 약자다. 이동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이가 여행할 수 있도록 한 입간판 경사로 조성 사업,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포용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모디 부산 플랫폼 사업, 생활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중구 산복도로의 빈집을 활용한 모디하우스 숙박 프로그램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모디하우스는 현재 1호점 산복어울스테이, 2호점 하이앤드하우스, 3호점 이바구캠핑을 운영 중이다.

산복어울스테이 부산시 중구 망양로288번길 7-3  
하이앤드하우스 부산시 중구 고가길 24-1



1 산복어울스테이는 원룸형 객실이지만 집이식 문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2 보수동에서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이예진, 정하연 대표. 3 산복도로의 역사와 이야기가 깃든 사진과 지도. 4 하이앤드하우스의 감수성이 느껴지는 식음료 패키지와 캐리어. 5 하이앤드하우스 1층 카페는 여행자에게 라운지로, 지역 주민에게 카페로 열려 있다. 6 가파른 계단으로 이어진 보수동 뒷동네와 아랫동네.

는 동네가 아니어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될까 의문이 들었어요. 다행히 주말엔 손님이 적지 않은 편이고 성수기엔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꽉 찹니다. 특히 20·30대 손님이 많아요. 방과 거실이 트였으니 사생활을 공유할 만큼 편한 사이인 분들이 좋아하세요.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라 '이런 곳에 숙소가 있네?' 하고 놀라는 분이 많은데 '언덕이긴 하지만 조용해서 쉬기 좋다' '공간이 넓고 예쁘다'고 반응하는 손님도 계속요. 호텔보다는 저렴하고, 모텔에 비해선 넓은 공간을 장점으로 봐 주시는 듯해요. 공용 공간인 1층에서는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고, 2층 숙소에서는 고전 오락 게임과 보드게임, TV 시청이 가능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도 하시죠.

**부산 DMO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정하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 DMO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았습니. 예컨대 부산 DMO에서 소개받은 리모델링 업체와 공사를 진행했고, 부산관광공사의 도움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홍보 마케팅 대행사를 연결해 주셔서 브랜딩 작업이 매우 수월하기도 했고요.

**보수동에서의 삶, 히로애락이 궁금합니다. (정하연)** 부산이 고향인 사람이 보기에 보수동 주택가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만큼 사람 간 거리도 가까워요. 도시의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따스하고 끈끈한 정서를 느끼면서 관계망을 만드는 이 사업에 더 큰 애정이 생겼습니다. **(이예진)** 저는 서구에서 태어나 오랜 시간 부산 시민으로 살았고, 지금은 김해에 거주합니다. 어린 시절 산복도로와 민주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아직 갖고 있죠. 산복도로가 관통하는 보수동에 애착함을 느끼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운명인 듯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알려 주세요. (이예진)** 수익을 창출하고자 산복도로의 이미지를 담아 만든 페이퍼 디퓨저를 출시했습니다. 포장 디자인은 제가 직접 했어요. **(정하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4호점, 5호점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합니다.



# 무명일기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공간



영도는 부산이 제2의 수도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일꾼들이 모여 삶을 이룬 곳이다. 작은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물양장에는 각종 선박과 컨테이너, 창고가 즐비해 투박한 정취를 자아낸다. 영도의 역사적 건물들은 이제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감각적인 음악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 중 한국관광공사의 '요즘 여행, 로컬 체험' 사업에 선정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명일기(無名日記)'의 김미연 대표와 만났다.

**무명일기는 어떤 공간인가?** 무명일기는 '정해지지 않은 일상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무명일기의 관점으로 의식주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합니다. 물양장 주변을 영도 카페 거리라 하지만, 이곳은 카페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명일기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구현되는 중심 공간에 가까워요. 문화를 공유하는 라운지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무명일기 브랜드를 소개하는 편집숍이자 공연과 전시, 커뮤니티 행사 등이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무명일기를 정의하는 것은 무명일기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1 영도 물양장의 낡은 건물을 개조한 무명일기. 투박한 맛이 느껴진다.  
2 무명일기의 푸드 콘텐츠 '영도소반'의 브런치 도시락. 소쿠리와 무명 보자기를 활용해 영도산 먹거리를 감각하게 담았다.  
3 고유한 관점과 취향이 두드러지는 무명일기의 제품 큐레이션. 4 영도의 바다가 그림 액자처럼 펼쳐진다. 5 사람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무명일기의 김미연 대표.



**지향하는 콘텐츠를 소개해 주세요.** 무명일기가 추구하는 가치는 음식 콘텐츠 '영도소반'에서 잘 드러납니다. 영도를 기반으로 한 브런치 도시락으로 부산, 특히 영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음식이 담겨 있죠. 한국에서 처음 고구마를 재배한 곳이 영도라는 사실 아시나요? 무명 보자기에 싼 소쿠리를 열어 보면 조내기 고구마 크로켓, 해너 카르파초 샐러드, 625전쟁 당시 피란민의 애환이 서린 이복식 기지떡까지 영도 사람 또는 역사와 얽힌 식재료를 옷감이 담았습니다. 부산 바닷가에 흔한 테트라포드 형태를 본뜬 티라미수 케이크 또한 지역의 풍경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렇듯 디저트 하나에도 지역을 품기 위한 고민이 깃들어 있습니다. 공간 여기저기에 놓인 각종 오브제와 의류, 소품, 책 등도 모두 무명일기에서 직접 기획하거나 다른 로컬 브랜드와 연계해 제작한 것입니다. 제품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합니다.

**무명일기가 나아갈 방향이 궁금합니다.** 영도에 자리한 여느 대형 카페와 비교하면 이곳은 한없이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무명일기는 지금까지 천천히 '포근한 온기, 소소한 것들을 통해 마음으로 공감하다'라는 슬로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 드릴 거예요. 올해는 공간 일부를 리노베이션할 계획입니다. 1.5층에 긴 테이블을 놓아 워크 스테이션으로 조성하고, 1층엔 무명일기 제품을 전시하는 쇼룸을 마련할 생각이예요. 더 큰 계획은, 무명일기 바로 앞 부두에 있는 폐버지선을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이른바 '부유식 해상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예요. 영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명일기 부산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178

## 지역을 만나는 법, DMO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O(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Organization)는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광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지역 관광 마케팅 및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민과 사업체,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지역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는 그 지역만의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한다.



# made in

부산을 만든 사람과 공간, 그 일곱 가지 이야기

# BUSAN

no.01

커피로 부산을 알린다  
모모스커피



1

항구도시 부산은 이제 '커피의 도시'로 불린다. 2024년에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렸다. 그 중심에 2007년 온천장의 식당 창고에서 시작해 2011년 첫 생두를 수입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해 온 '모모스커피'가 있다. 모모스커피는 2019년 전주연 공동대표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주목받기 시작해, 2021년 영도 봉래동 물양장 앞 1820제곱미터(약 550평) 면적의 창고를 개조한 모모스 로스터리 & 커피바를 오픈하며 커피 문화를 이끄는 브랜드로 급성장했다. 간편도 찾기 힘든 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술가의 유리 작품 너머로 원두 로스팅 과정을 볼 수 있는 로스터리와 커피 바가 감각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소통하기 좋은 낮은 높이의 커피 바에서 바리스타들은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내린다. 영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작품 같은 커피를 음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나 다른 도시에서 온 여행자들이다. 커피 바 뒤쪽에 자리한 로스터리에선 하루에 1.2~1.5톤의 원두를 생산한다. 그중 60퍼센트는 매장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모모스 로스터리 & 커피바를 오픈하며 '부산 시그니처 블렌드'를 선보였는데, 6·25전쟁 당시 부산항을 통해 백국 가베(브라질 커피) 수입이 왕성했다는 신문기사에서 착안해 호불호가 없는 브라질 원두를 베이스로 블렌딩했다고. 앞으로 모모스커피가 커피를 통해 어떻게 부산을 알릴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 부산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160  
☐ 08:00~18:00



2



3

interview

전주연 모모스커피 공동대표

**영도에 모모스커피 두 번째 매장을 연 이유가 뭔가요?** 로스팅 시설 확장이 필요한 때에 영도 물양장 앞 창고 건물을 보러 갔다가 '부산스러운' 풍경에 반했어요. 거칠고 낡은 항구의 모습이 진짜 부산 아닐까 싶었죠. 커피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으니 여기에 피란민을 받아들이던 환대와 포용의 마음을 잇는 공간을 만들자고 마음먹었죠. **모모스커피는 전 매장이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고요.** 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늦게까지 열어야 하고,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일찍 문을 닫는 게 좋잖아요.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 커피의 본질이 정신을 깨우는 음료이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로 결론 냈어요. 바리스타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부산 외 지역 분들도 모모스커피에서 일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희 구성원의 80퍼센트가 타지 사람이예요. 부산 지역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청년 유출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좋은 회사가 되면 청년 유입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로컬 브랜드로서 모모스커피의 꿈이 있다면요?** 부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이자 부산으로 여행을 오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온천장 본점부터 마린시티점, 도모현점, 그리고 모모스 로스터리 & 커피바까지 각 매장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는 브랜드요.



4



5

1 물양장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2 창고를 개조한 모모스 로스터리 & 커피바.  
3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가 내리는 핸드 드립 커피.  
4 영도점에선 로스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전주연 공동대표의 꿈은 모모스커피가 부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1



2



3

문화를 입은 시장 관사  
**도모현**

부산시 수영구 황령산로7번길 60  
화~금, 일요일 10:00~18:00  
토요일 10:00~21:00  
공간 해설 투어 11:00, 14:00,  
16:00(홈페이지 및 현장 접수)



1 창밖으로 부산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번루.  
2 옛 시장 관사의 외관을 새로 꾸민 도모현.  
3 연못이 있는 소소풍 정원. 4 채광이 좋은 계단식 강연장, 다할.  
5 번루에선 도모현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4

“새로운 부산을 함께 도모하는 시민을 위한 집, 도모현입니다.” 김보경 공간 해설사는 40년 만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돌아온 옛 부산 시장 관사, 도모현을 이렇게 소개한다. 도모현은 ‘걸고 머물고 기억하다’를 주제 삼아 산보하기 좋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입구에서 정원까지 근사한 산책로를 조성했고, 정원에는 앉아서 쉬기 좋은 잔디밭과 연못을 만들었다. 소풍 나온 마음으로 즐기라는 뜻에서 정원 이름은 ‘소소풍’으로 지었다. 본관 1층, 전시회가 열리는 라운지 이름도 소소풍이다. 소소풍 라운지 옆에는 카페가 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지만, 커피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면 더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정원 너머 광안대교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라운지 ‘번루’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번루는 머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되는 공간이다. 번루 뒤편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공간에 조성한 계단식 강연장 ‘다할’에서는 부산에 대한 강연이 열리기도 한다. 2층에는 번루와 다할 외에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콘퍼런스 룸 ‘취람’과 소파에 앉아 책을 읽기 좋은 미팅 룸 ‘두룩’이 자리한다. 두룩 옆으로 이어지는 발코니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도모현을 찾은 날, 테라스로 나가자 때마다 시민들이 따사로운 햇살을 쬐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정원에선 유치원생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소풍 나온 것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도모현에서는 누구나 느긋하게 공간을 향유할 일이다. 이 공간에 깃든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하루 세 번 진행되는 공간 해설 투어에 참여해도 좋다.

5





1

KTX를 타고 부산을 찾는 여행자들이 부산역 편의점에서 기념품처럼 사는 맥주가 있다. 파도처럼 거세고 투박한 부산 사투리 '마!'를 브랜드명으로 삼은 로컬 맥주가 그 주인공. 굳이 표준어로 바꾸자면 '아!'와 비슷한 '마!'는 부산 사람에게는 친근하게 다가오고, 여행자에게 재미와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 시리즈는 '마! 라거' '마! 흑맥주' '마! 허니라거' 3종으로, 2019년부터 프라이드 브루어리에서 만들고 있다. 프라이드 브루어리는 '피지네이블 바와 '카사 부사노' 카페를 운영해 온 (주)문화의물결 FNC가 부산의 자공심을 담은 수제 맥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기장에 설립한 양조장이다. 지난 5년간 주류 업계에서 쌓아 온 경험을 살려 맥주를 양조해 바텐더의 레시피를 반영하고, 기장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를 만들어 지역색을 살리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그렇게 탄생한 맥주가 '애프터'와 '마! 허니라거'다. 열대 과일 향이 돋보이는 IPA '애프터'는 비트로 붉은색을 내 마치 칵테일 같다. '마! 허니라거'는 부산 기장 문정농원의 아카시아 꿀을 사용해 시트러스한 홀과 천연 벌꿀의 풍미가 달콤한 조화를 이룬다. 부산 프라이드 브루어리 맥주는 부산역 편의점 외에 롯데마트, CU 주류 특화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을 동서길 84-2

마!  
이  
맛  
이  
부  
산  
맥  
주  
아  
이  
가

피  
지  
네  
이  
블  
브  
루  
어  
리



2

1 부산 프라이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로컬 맥주. 2 양조장에서 생산한 '마! 흑맥주'. 3 기장에 자리한 양조장. 4 부산의 자공심을 담은 맥주를 만들고 싶다는 박용원 대표.



3

interview

박용원 프라이드 브루어리 대표

로컬 수제 맥주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4세에 피지네이블이라는 바를 창업했어요. 올해가 23년째네요. 바 운영으로 다양한 주류 문화를 경험하면서, 부산의 고유한 맛과 이야기를 담은 로컬 맥주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부산의 고유성을 강조하려고 브랜드명도 **사투리로 만든 건가요?** 맞아요. '마!' 맥주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하면 '마! 이 맛이 부산 맥주 아이가예요. 영어로 MA는 'Malt'와 'Aroma'의 이니셜로 맥주의 품질과 풍미를 상징하는 의미를 더했고요. 디자인에도 부산 로컬 맥주의 색을 더하기 위해 광안대교의 낮과 밤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양조장을 기장에서 운영하는 이유는요?** 기장만큼 물과 공기가 맑고, 해운대 같은 관광지와의 가까운 지역이 또 어디 있겠어요. 도심과 가까우니 물류 측면에서도 편하고요. 여러모로 기장이 양조장을 운영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마!' 맥주가 부산으로 여행 오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맥주 바와 숙소가 함께 있는 스테이를 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4



1

1 광안종합시장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49번길 71  
2 타타 에스프레소 바  
10:00~19:00(화요일 휴무)



2

1974년에 문을 연 광안종합시장은 쌀집, 방앗간, 과일 가게 등 동네 주민들이 장을 보는 소박한 시장이었다. 몇 해 전부터 시장 골목에 카페와 베이커리, 레스토랑이 슬금슬금 들어서며 시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골목 안에서 익숙한 발걸음으로 장을 보는 동네 주민과 여행 가방을 끌고 보물찾기하듯 가게를 기웃거리는 여행자가 공존한다. 변화의 시작은 50년 된 쌀집 '진양농산' 맞은편에 문을 연 감각적인 카페 '타타 에스프레소 바'였다. "평생교육원에서 커피 강의를 하며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예를 보여 주고 싶어서 상권이 없는 곳을 찾다가 건어물 가게 자리에 에스프레소 바를 열게 됐어요." 노련한 손길로 커피를 추출하며 최혁진 대표가 건네는 말이다. 타타 에스프레소 바 맞은편 신도마켓은 1975년 부산에서 아홉 번째로 문을 연 정육점 신도축산물유통의 스토리에 이끌려 광안종합시장 골목에 동지를 틀었다. 정육점 자리에 신도마켓이란 이름으로 정육점, 신도축산물유통이 쓰던 냉동 창고는 '신도랩'이라는 4인 정원의 작은 스테이크 바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골목에는, 문을 여는 날은 며칠 안 되지만 문만 열면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홈메이드 케이크 숍 '무구 디저트'가 자리한다. 무구 디저트 건너편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 왔다가 이 골목의 감성이 좋아 아예 이사해 온 두 디자이너의 공방 '스튜디오 뿔'이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핀로컬과 뉴로컬의 만남  
광안종합시장



3



4



5

- 1 힙한 가게가 속속 들어선 광안종합시장.
- 2 광안종합시장 안 풍경.
- 3 디자이너의 공방, 스튜디오 뿔.
- 4 시장 골목의 터줏대감인 타타 에스프레소 바.
- 5 신도마켓 옆 럭키베이커리.
- 6 신도마켓에서 운영하는 스테이크 바, 신도랩.



6



1



2

항구의 삶은 예술이 되어

강강이예술마을

“그림 예쁘지요? 브라질 화가가 그렸대 아입니까.” 부산 영도구 강강이예술마을 안 쌘지공원  
에서 만난 마을 주민이 건넨 말이다. 쌘지공원 벽을 알록달록하게 채운 제 팔리토의 '경이로운  
자연'이 골목 안까지 화사하게 이어졌다. 숨은그림찾기 하듯 골목 안 벽화를 둘러보다 바다가  
일렁이는 항구로 나서니 수리 조선소와 공업사, 선박 부품업체가 늘어서 있다. 여기가 한국 근  
대 조선 산업의 발상지이자, 1970~1980년대에는 선박 수리의 메카였던 대평동이다. 지명은  
대평동이지만 '강강이예술마을'로 통한다. 강강이예술마을은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 내는 망  
치질 소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배가 한 척 들어오면 30명씩 아슬아슬한 줄에 매달려 여기서  
강강, 저기서 강강, 망치질로 배에 달라붙은 해조류와 조개껍데기를 떼어 냈다. 이 일을 하던  
중년 여성들은 '강강이 아지매'라 불렸다. 가족을 위해 고단한 일도 마다하지 않던 강강이 아지  
매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벽화가 되어 남아 있다. 강강이예술마을을 건물과 골목에 공공 예  
술 프로젝트로 색과 그림을 입힌 덕에 항구의 삶은 현재와 소통하는 예술이 되었다. 강강이 아  
지매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은 수리 작업 기구와 각종 선박 관련 용품 등을 전시해 놓은 강강  
이생활문화센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말에 이곳을 여행한다면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마  
을 투어에 참여하거나, 강강이 유람선을 타고 대평동 수리 조선소 일대를 돌아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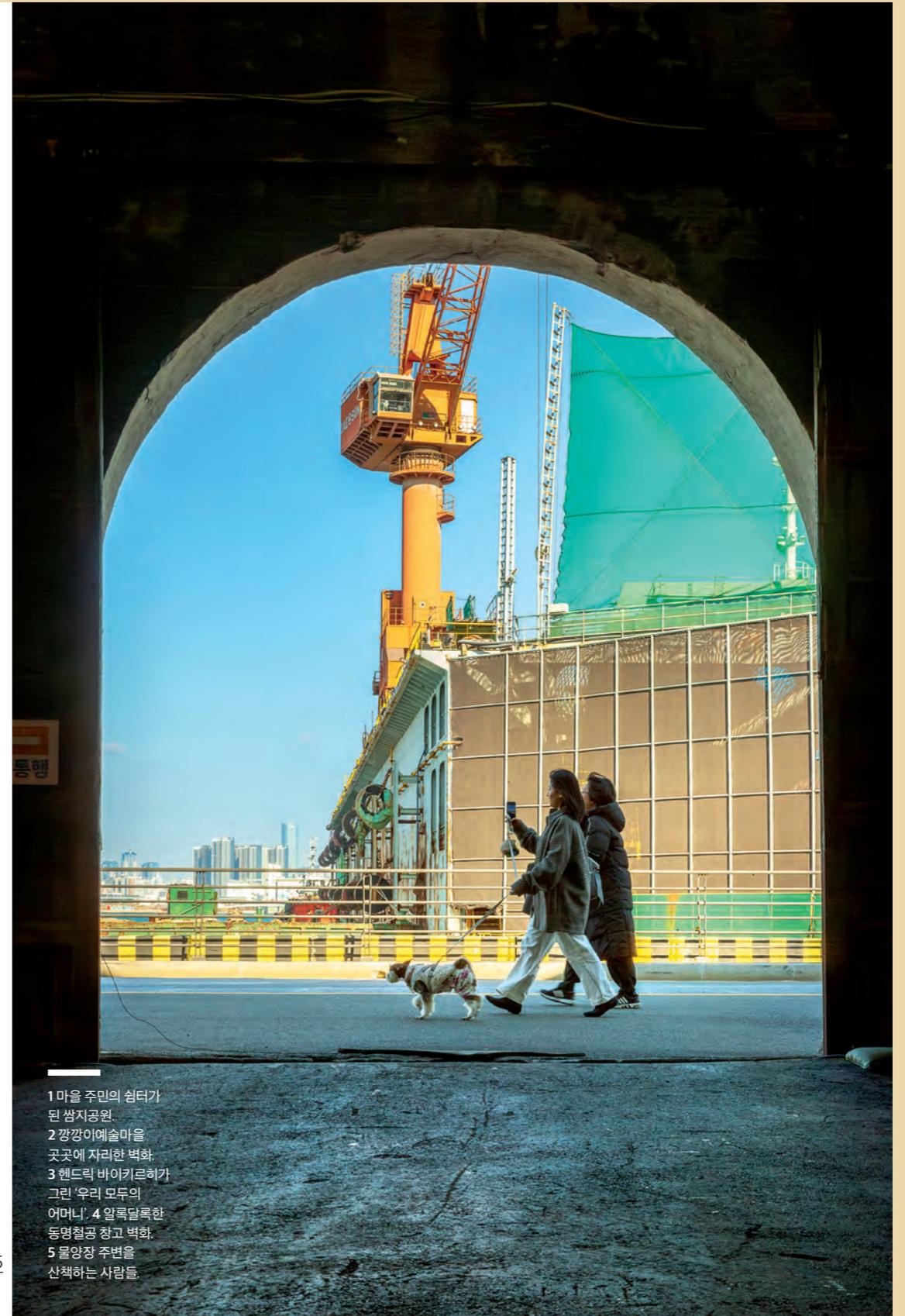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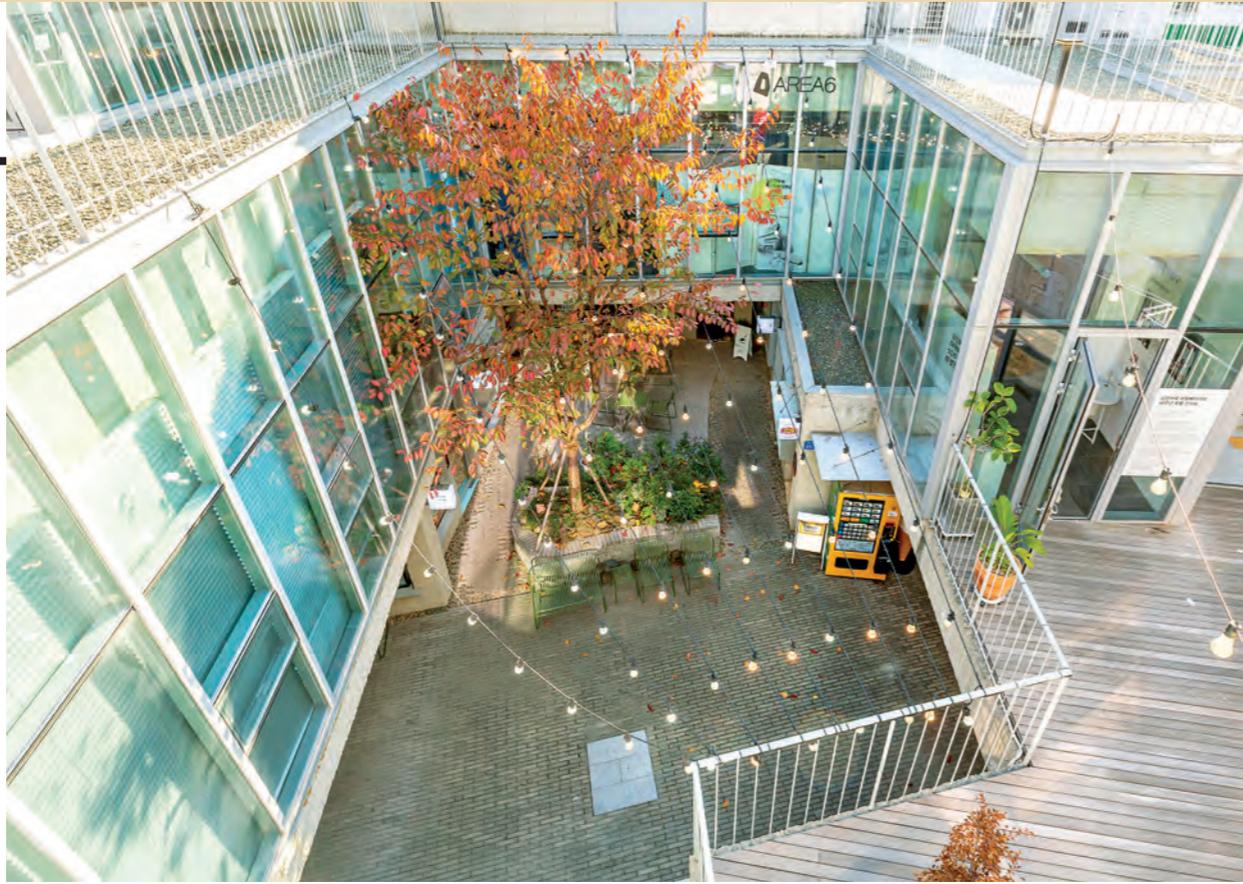


- ① 강강이안내센터 부산시 영도구 대평북로 36
- 강강이생활문화센터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27번길 6
- ② 마을 투어 주말 14:20
- 강강이 유람선 주말 13:00, 14:00, 15:00



5

- 1 마을 주민의 쉼터가 된 쌘지공원.
- 2 강강이예술마을 곳곳에 자리한 벽화.
- 3 헨드릭 바이키르히가 그린 '우리 모두의 어머니'.
- 4 알록달록한 동명철공 창고 벽화.
- 5 물양장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



1



4



5



6



7



2

1 주택 여섯 채를 리모델링해 마을처럼 꾸민 아레아식스.  
2 '칠하고 바르고 칠하고 붙이고'라는 뜻의 츠바츠바 매장.  
3 타올쿤을 내세운 송월마을. 4 캐릭터가 돋보이는 머거본 매장.  
5 조광페인트의 다양한 색깔. 6 초록 컬러가 산뜻한 아레아식스 쇼핑백. 7 롤로와에서 파는 부산사이더.



3

로컬 브랜드의 재발견  
**아레아식스**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105번길 37-3  
10:00~18:00  
(월요일 휴무)

1953년 영도에서 탄생한 삼진어묵은 '어묵 베이커리'라는 어묵 문화를 만들어 낸 로컬 브랜드다. 어묵 베이커리는 다양한 어묵을 베이커리처럼 진열해 고를 수 있게 꾸민 매장이자. 장인 정신에 트렌드를 더해 리브랜딩에 성공한 삼진어묵이 영도 본점 옆에 '아레아식스(AREA6)'를 열어 로컬 브랜드의 스토리를 재발견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아레아식스의 콘셉트는 '로컬을 밝히는 아티장 골목'. 주택 여섯 채를 리모델링해 가운데 중정을 두고 마을처럼 꾸민 로컬 컬러 플랫폼이다. 아레아식스에서 만날 수 있는 로컬 브랜드는 송월마을, 머거본, 츠바츠바. 1949년 부산에서 시작한 송월마을은 캐릭터 '타올쿤'을 내세우는 한편 부산의 바다와 도시, 랜드마크를 컬러와 아이콘으로 표현한 '부산 에디션'을 소개해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1989년 부산에서 시작한 '머거본'은 툭툭 튀는 감성이 돋보이는 스토어에서 칼몬드 등 다양한 견과류와 레트로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판매한다. '칠하고 바르고 칠하고 붙이고'라는 뜻의 조광페인트와 롤드페인트의 컬러버레이션 매장 '츠바츠바'도 흥미롭다. 부산에서 페인트 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한 조광페인트와 창의적인 패턴과 컬러의 마스킹 테이프를 만드는 롤드페인트가 부산의 색과 무늬를 담은 커스텀 페인트와 마스킹 테이프를 선보인다. 츠바츠바 옆 그로서리 스토어 '롤로와'에선 부산 사이더, 자갈치 아지매 등 개성 있는 로컬 제품을 판매한다.



부  
산  
역  
뒤  
**북  
항  
친  
수  
공  
원**

부산의 숨은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북항 친수공원으로 가 보자. 부산역 2층과 연결된 공중 보행교를 따라 걷다 보면 바다와 도심이 어우러진 북항 친수공원에 닿는다. 북항 해안과 맞닿은 북항 친수공원은 국내 첫 항만 재개발로 조성한 공원이다. 바다와 이어진 수로 옆으로 산책로를 조성해 러닝을 하거나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꼽힌다. 해 질 녘부터는 야경을 감상하기 좋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드넓은 공원을 밝히면, 붉게 물든 하늘과 용두산타워, 부산역, 그리고 수로에 비친 다리의 반영이 몽환적인 풍경을 빚어 낸다. 밤이 깊을수록 LED 조명이 선명하게 빛나고, 수로는 찬란한 빛으로 물든다. 녹색에서 푸른색, 푸른색에서 다시 붉은색으로 변하는 불빛에 시시각각으로 눈이 즐겁다. 이곳에선 수로에 놓인 제2보도교 너머로 영도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을 잇는 3368미터의 부산항대교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참고로 부산항대교에 불이 켜지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이다.

📍 부산시 동구 이순신대로 164

🕒 05:00~24:00

야경 명소 오페라브리지 위에 서면 제3보도교와 제2보도교가 보인다.

1 밤이면 더욱 화려하게 변신하는 북항 친수공원 산책로.  
2 형형색색 조명을 밝힌 북항 친수공원 너머로 부산항대교가 보인다.



no.01  
**BUSAN**  
X  
**KTX** MAGAZINE

모모스커피

도모헌

프라이드 브루어리

광안종합시장

깡깡이예술마을

아레아식스

북항 친수공원

WRITER 우지경(프리랜서) · PHOTO 김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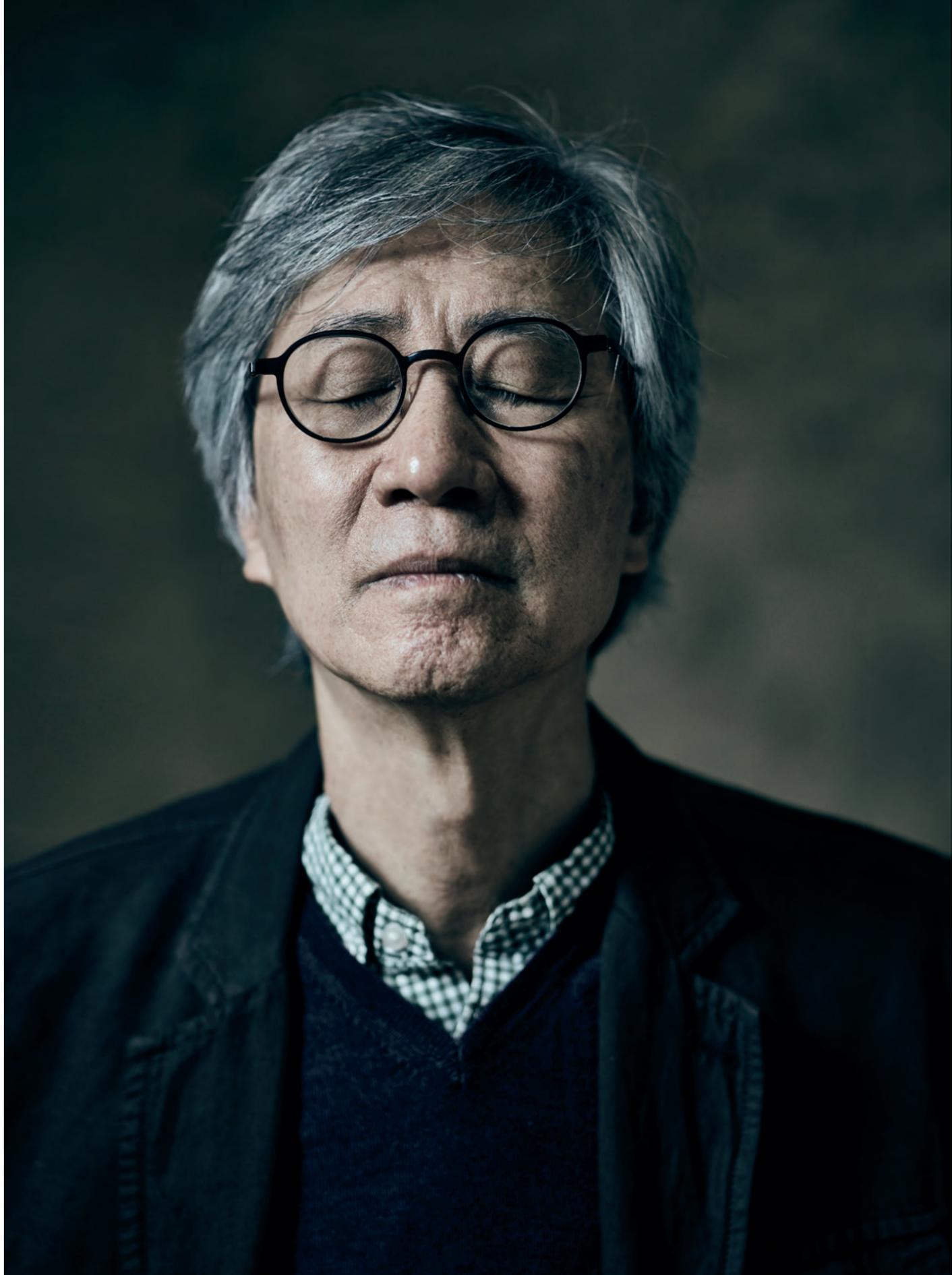
# 지금 여기

대화할 수 없는 사물과의 대화, 구분창 | 이끼바위쿠르르의 新산수화 | KTX 타기 1시간 전, 춘천역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첫걸음, 김포 | 삶의 향기, 용인중앙시장 | 망원동·합정동, 채식주의자를 위한 레스토랑 7



## 대화할 수 없는 사물과의 대화 〈구본창: 사물의 초상〉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세계적인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 'ACC 포커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시리즈의 첫 주자로 구본창을 택했다. 객관적 기록이라는 전통 역할을 넘어 사진을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확장시킨 사진작가 구본창을 만났다.



좁고 어두운 복도 끝 작은 화면 위로 전쟁의 상흔이 흘러간다. 총탄, 단검, 지뢰 같은 살상 무기부터 참전 군인이 사용했던 철모, 군화, 회중시계 등 여러 사물이 무채색으로 포개진다. 사진작가 구본창이 2010년 6·25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기록한 '비무장지대' 연작으로, 작가는 사물을 보여 주지만 관객의 시선은 전장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영혼과 그가족의 애잔한 마음을 좇게 된다. 복도 끝을 사선으로 비추는 빛을 따라 전시장에 들어서면 거대한 사원이 드러난다. 공중에는 조선백자를 프린트한 대형 족자가 걸려 있고, 바닥에는 땅속에서 찾아낸 화려한 신라 금관이 라이트 박스에 담겨 놓여 있다. 작가는 백자와 금관을 보여 주지만, 관객에게는 해외로 유출돼 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백자의 혼과 흠에 파묻혀 잊힐 운명을 타고난 금관의 혼이 어른거린다.

### 대한민국 현대사진의 시작

구본창은 객관적 기록이라는 사진의 전통 역할을 넘어 주관적인 표현을 담아내며 사진을 현대미술의 장르로 확장시킨 인물이다. 독일 함부르크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1986년 한국으로 돌아온 구본창은 회화, 조각, 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사진에 반영했다. 셀피 사진 조각을 이어 자화상을 만들고, 대형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인화지를 꿰매기도 했으며, 필름을 긁는 스크래치 기법을 쓰기도 하고, 슬라이드 필름에 색을 칠하기도 했다.

그리고 1988년 사회적 사건을 기록하거나 실제 대상을 피사체로 삼기보다 내적 의지에 따라 감성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사진 전시 <사진, 새시좌>를 기획하며 연출 사진을 한국에 소개했다. 평론가들은 이 순간을 한국 현대사진의 시작이라 부른다.

자아에 대한 탐색과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실험적 작품을 이어 오며 강렬하고 인상적인 작업을 지속하던 그는 아버지와 작별하며 전환기를 맞는다. '숨' 연작은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진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식물이 마르듯 사람에게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기록한 작품인데, 숨이 멈추는 찰나에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보여 준다. 이후 그는 자연의 순환을 주제로 고요하고 정갈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시간의 그림' '먼지' '화이트' '인테리어' 등의 연작을 선보였고, '백자'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에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오래된 믿음은 한국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시선으로 이어졌다. 탈, 조선백자, 곱돌 공예품, 지화, 청화백자, 신라 금관 같은 사물 연작 시리즈는 이렇게 우리 곁으로 오게 됐다.

### 사진가의 시선으로 시처럼 써 내려간 사물의 초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기획 전시 시리즈 'ACC 포커스'가 지난해부터 인류 문화 예술의 틀을 바꾼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개인전 형식으로 바뀌었다. <구본창: 사물의 초상>전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로, 구본창이 2000년 이후 작업한 주요 사물 연작을 통해 사물의 서사를 살펴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에 주목한다. 사물 연작 160여 점을 비롯해 수집품과 아카이브 200여 점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역사를 품은 사물에 숨결을 입히다'에서는 조선백자와 신라 금관 설치 작품을 비롯해 청화백자 연작과 곱돌 연작 등 공적인 사물의 초상을 선보인다. 2부 '일상 속 사소한 사물을 발견하다'에서는 구본창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일상적 물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5세기 프랑스에서 건물 모퉁이나 문을 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샤스루'를 비롯해 '탈' '꼭두' '비누' '식기 포장재' '거울' 등 사적인 사물의 연작을 만날 수 있다. 3부 '구본창의 시선과 마주하다'에서는 지금은 전설이 된 소설가 한강·박완서, 배우 윤여정·안성기·배두나 등 예술인들의 초상과 함께 작가의 수집품을 공개한다.

전국 각지 탈춤 패의 장적인 모습을 담은 초상 사진 '탈' 연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신라 시대 금령총 금관  
구본창, 황금 KR 045, Transparency in Lightbox, 187x148x12cm, 2023 © 구본창



구본창, '리플렉션 10(Reflection 10)', Archival Pigment Print, 123x98cm, 1983 © 구본창



구본창, '컬렉션 18(Collection 18)', Archival Pigment Print, 123x98cm, 2019 © 구본창



1998년 '꼭두' 도록 <한국의 나무꼭두> 속 '꼭두' 시리즈.



2024년 3월 막을 내린 대규모 회고전 <구본창의 향해>는 78일간 12만 명 가까운 이들이 관람했다. 관람객은 짧은 시간 안에 대형 전시로 다시 만나게 돼 기쁘지만, 작가는 부담이 컸을 것 같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주로 융·복합 전시가 열리는 공간으로, 층고가 높고 공간이 넓다. 전시장에 왔을 때 어린 시절에 보던 TV 만화 <폴란다는의 개>가 떠올랐다. 꿈이 화가인 네로는 루벤스의 작품 '성모 승천'을 보는 것이 소원이다. 하지만 돈이 없던 네로는 루벤스의 작품을 가림막으로 가려진 채 감상해야 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네로는 크리스마스에만 무료로 공개하는 그 그림을 보기 위해 성당으로 간다. 층고가 높은 넓은 전시장을 보고 그 성당이 떠올랐다.

구본창이 사랑한 사물에 띄우는 연애 편지가 될 줄 알았는데, 서정적인 사물의 장례식 느낌이다.

전시장을 오가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했고, '사물'이란 테마 아래 사물의 서사를 끌어내겠다고 생각했다. 3관은 유물로 대표되는 공적인 사물의 초상으로, 4관은 사적인 사물의 초상으로 채웠다.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았다. 사진을 벽에 거는 대신 공간감을 살려 전시하기로 했다. 층고가 높고 넓은 전시장에 조도를 낮춰 경건하고 장엄한 느낌을 주는 거대한 사원으로 만들고 싶었다. 입구에 가벽을 세워 긴 복도를 지나 본전시장에 들어오도록 동선을 짜고, 백자 14점을 족자에 프린트해 공중에 걸었다. 그리고 '황금' 연작 9점을 프린트해 라이트 박스에 담아 바닥에 놓았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백자의 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금관을 발굴하는 느낌을 살렸다.

아시아 문화를 테마로 융·복합 전시를 보여 주는 공간이라는 장소성이 전시에 미친 영향이 있다.

'백자' 연작의 경우 해외 박물관 소장품만 선택해 프린트했다. 그리고 광주라는 지역성을 살려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한 달항아리 작품을 한 점은 밝게, 한 점은 어둡게 프린트해 전시하기도 했다. '황금' 연작에는 신라 금관과 함께 백제 금동관 한 점을 전시했다. 처음 공개하는 '코리아 판타지'는 한국 4대 고궁의 단청을 재해석한 영상 작품이다. 고궁 천장과 단청의 문양을 오버랩해 만화경처럼 리듬감을 표현했다. '탈' 연작은 실물 크기로 프린트해 패널을 한 방향으로 세우고, 뒤쪽에 '꼭두' 연작을 전시해 반전을 주었으며, 'V' 자 가벽을 세워 공간을 구분하기도 했다.

'황금' 연작의 신라 금관을 촬영하기 위해 7년을 기다려 작업했다고 들었다.

교과서나 박물관 도록에 실린 금관 사진이 늘 아쉬웠다. 찬란했던 신라 문화와 당대 최고 장인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으로 백자의 가치를 되찾아 준 것처럼, 나의 시선을 통해 신라의 찬란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몇 가지 필연적인 사건도 겹쳤다. '백자' 연작을 작업하기 전 전시 때문에 호주에 간 적이 있다. 근처 금광을 견학했고, 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다. 몇 년 후 교환교수로 페루 리마를 방문했을 때는 잉카 유물에 마음이 쓰였다. 잉카문명은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으나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 사라졌고, 유물만 덩그러니 남아 박물관을 지키고 있었다. 나를 초대해 준 대학 총장 덕에 박물관이 소장한 잉카 유물을 촬영할 수 있었고, 그것이 포트폴리오가 됐다. 경주국립박물관에 편지를 썼고, 성사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

제대로 된 '초상' 사진이 필요한 유물이 많은데, 특별히 신라 금관에 더 관심이 간 이유가 있다.

금관은 당대 최고 장인이 당대 최고 세공 기술로 만들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땅에 묻힐 목적으로 제작했고, 고분이 발굴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땅속에 묻혀 있었을 거다. 내 사진을 통해 대중이 신라 금관을 다시 '발굴'해 주길 바랐다. 나는 애처로움을 발견하면 쉬이 지나치질 못한다. '백자' 연작은 잡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백자가 애처로워 보여 사진에 담아 영혼이라도 고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시작한 작업이다. '비누' 연작도 마찬가지다. 비누는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가장 잘 산 삶이다. 그런데 찌꺼기처럼 남아 갈라지고 부서지다 버려지는 것이 슬퍼 보였다.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애처로움을 발견하는 기질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어린 시절 나는 외톨이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다. 사물을 발견하고 사물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다. 크고 새로운 장난감이 아닌 마당에서 주운 돌이나 키 작은 풀잎, 기르던 강아지와 나는 대화할 동안은 소중한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때부터 영혼이라는 말이 내 안에 깊이 새겨졌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 물건이 나와 관계를 맺는 순간 영혼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물에 마음을 썼던 것 같다. 사물을 처연하게 바라보고 외로움을 읽어 내는 능력은 나 자신을 사물에 투영하면서 기른 능력이자 대상을 해석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인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밝은 인상의 배우도 내 사진 속에서는 처연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재미있는 수집품이 많다. 이러한 사물들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나는 물건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에 집착한다. 나와 인연이 있거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은 충분히 아름답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신기하게도 아무 의미 없던 물건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는 시점이 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거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예전에 경험했거나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순간이 내가 가진 물건들과 결합해 하나의 이미지로 떠오르곤 한다. 그래서 물건을 잘 못 버린다. 과거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또는 여행 중에 이러한 경험을 했지만,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를 보면서도 비슷한 일을 겪는다.

<KTX매거진> 독자에게 전시를 관람하는 팁을 알려 달라.

나는 모로코 상점에서 판매하는 기념품보다 수많은 여행객이 들렀을 천막 자락에 신경이 쓰이고, 고급 식기보다 식기가 담겼던 통에 남은 오래된 자국에 시선이 간다. 전시 포스터에 사용한 '컵'은 일본 여행 중 발견한 것이다. 식당 계산대 옆에 아무렇게나 놓인 투명한 컵 안쪽 면을 빨간 색연필 자국이 채우고 있었다. 박서보 선생의 묘법이 연상될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다. 시간을 품은 사물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세월의 때가 묻은 사물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고 싶었다.



ACC FOCUS <구본창: 사물의 초상>

기간 3월 30일까지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의 1899-5566

# 이끼바위쿠르르의 新산수화

한반도 곳곳에 버려진 불상이 전시장에 소환됐다.  
<이끼바위쿠르르: 거꾸로 사는 돌>전에서 과거의 돌이자 미래의 존재,  
미륵불을 마주한다.



인간이 질병과 전쟁 등으로 존재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지구는 반대로 상처를 회복했다. 코로나19가 지구를 점령했을 때, 대기오염 물질과 탄소 배출량이 급감하면서 인도 뉴델리 시민들은 몇십 년 만에 대기오염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인적이 드물어진 영국의 해안 도시에는 산양 떼가 내려와 거리를 활보했다. 지구에 잠시 세들어 사는 인간이 빠르게 지구를 좀먹어 가는 상황에 대한 고민은 최근 10년간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문제다.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다. 재난의 시대에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아마도 이 시대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돌, 미륵

이끼가 덮인 바위를 뜻하는 '이끼바위'와 의성어 '쿠르르'를 결합한 이끼바위쿠르르는 고결, 김종원, 조지은이 구성한 '시각 연구 밴드'다. 자연과 환경의 일부로 자생하고 있는 농부들, 열대와 해초 등 자연현상을 연구해 온 이들의 작업 태도는 어떤 것도 해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확장하는 이끼와 닮았다.

첫 번째 개인전 <이끼바위쿠르르: 거꾸로 사는 돌> 역시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들은 오랜 시간 비바람에 풍화되고 이끼와 풀과 들꽃을 자신의 몸 가장자리에 피워 가며 자리를 지킨 '돌'들의 시간, 그중에서도 돌로 만들어진 미륵의 시간을 거꾸로 더듬어 올라간다. 모든 것은 무상하므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석가모니의 뒤를 이어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미륵은 일종의 구원자였다. 그만큼 셀 수 없이 많은 미륵불 조각상이 전국 각지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륵은 버려졌고,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돌로 남겨졌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이 버려진 미륵들을 전시장 안으로 불러 모아 그들의 몸에 새겨진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미륵의 손바닥, 수인이다. '부처님 하이 파이브'는 부처가 중생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는 수인인 시무외인(施無畏印)의 형상을 한 조각으로, 실제 미륵 조각상의 손을 본떠 주조했다. 미륵의 환대를 받으며 전시장에 들어서면 전시와 동명의 영상 작업 '거꾸로 사는 돌'을 만난다. 이끼바위쿠르르는 구원자이자 신앙이었던 미륵이 이제는 수도권 외곽이나 논과 밭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해 그 일대를 원경으로 응시했다. 영상은 도시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빼대만 구축한 잿빛 건축물, 산업폐기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외딴 곳, 바다의 먼 풍경을 포착한다. 그 한편에 돌처럼 자리한 미륵의 모습이 보인다. 버려진 미륵은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자연과 어울려져 한 몸이 됐다. 영겁의 시간 동안 녹아들어 어떤 것도 해하지 않는 미륵, 인간을 광대무변한 자연의 일부로 여겼던 동양철학과 산수화의 정신성을 떠오르게 한다.



미륵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56억 7000만 년이 지나면 도솔천을 떠나 사바세계에 출현해 중생을 교화한다는 미래불(未來佛)이다.





크기로 본떠 만든 동명의 조각 '거꾸로 가는 돌'이 있다. 손때가 묻어 짙어 나간 코와 인자한 미소를 띤 미륵을 정면에서 마주하자 그 뒤편으로 조금 전 보았던 영상 '거꾸로 가는 돌'이 시야에 들어온다. 조각 '거꾸로 가는 돌'을 다시 영상 위에 포개어 감상하는 동안 공간은 문득 고요한 사찰로 변모한다. 관람자는 미륵의 눈, 귀, 입, 손바닥에 둘러싸여 미륵이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조용히 따라가게 된다. 미륵의 얼굴 조각에서 시선을 양옆으로 옮기면, 사찰의 탱화만큼 거대한 벽면 드로잉 '더듬기'를 만날 수 있다. 총 16점으로 구성된 이 드로잉은 직접 미륵 조각상에 한지를 댄 후 그 표면을 숯으로 더듬고 문질러 미륵의 형상과 질감을 살린 작품이다. 석상의 재료인 화강암의 거친 표면이 숯의 흔적과 미세한 요철로 고스란히 드러나니, 얇은 한지 위에 미륵의 시간이 그대로 녹아 있는 듯하다. 전시장 한가운데 위치한 '우리들의 산'은 한국 석산의 기개와 아름다움을 조각해 만든 상상의 산이다. 지점토와 먹으로 만든 석산은 먹을 번지게 하는 발묵법으로 그린 산수화가 조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 석산은 대상화하지 않은 자연 그 자체로, 영상 '거꾸로 사는 돌'의 풍경과 대비를 이루며 작품과 공간 사이의 여백을 채우고 균형을 조율한다.

### 잠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자

영상 작업 '쓰레기와 춤을'은 어쩌면 이끼바위쿠르르가 이 전시를 빌려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직설적으로 담아낸 메시지함인지도 모르겠다. 영상의 배경은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난 먼 미래의 지구, 그러니까 56억 7000만 년 후의 지구다. 미륵은 약속대로 인간을 구하려 지구에 내려왔다. 그런데 이미 인간은 멸종했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벌판과 쓰레기만 남아 있다. 쓰레기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굴러다니며 춤을 춘다. 미륵은 그것을 그저 바라본다. 미륵의 시선을 쫓는 동안 우리의 비관적인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인류에게 미래는 있을까. 이제는 과거를 살아 낸, 모든 시간을 몸에 새긴 자애로운 미륵처럼 우리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이 전시는 말한다. 재난의 시대에 이 전시의 의미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버려진 미륵을 공간 안으로 소환하는 것, 그 공간을 미륵의 과거-체험적 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 그럼으로써 인류의 과거와 잘못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계속 전진만 거듭하다가 지난날을 돌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가슴에 와닿으리라 생각한다." 전시를 기획한 김지나 큐레이터가 밝힌 의도다. 우리는 뾰족하게 자신을 소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이야말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추동한다 믿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난다. 모두가 잠시 멈추고 과거의 시간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인류가 자신의 잘못으로 극한 상황에 몰린 지구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하듯, 저마다 쉽 없이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며 숨을 고르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를.



수인은 불보살이 양쪽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모양을 뜻한다. 깨달음의 내용이나 활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다.



### 한 걸음 더

지구 환경 문제를 논하는 전시가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전시 폐기물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가당착적 상황이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친환경적인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자 했다. 가령 영상 작업의 경우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대신 조도를 조정하는 등 영상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전 전시에 썼던 가벽을 재활용해 최대한 폐기물의 양을 줄였다. 공간의 적절한 여백과 작업 사이의 균형감 역시 인위성을 최대한 덜어 내고 전시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이끼바위쿠르르: 거꾸로 사는 돌>

기간 1월 26일까지

문의 02-733-8949(서울 아트선재센터)

# 나눌수록

의료 기관 정보

## 건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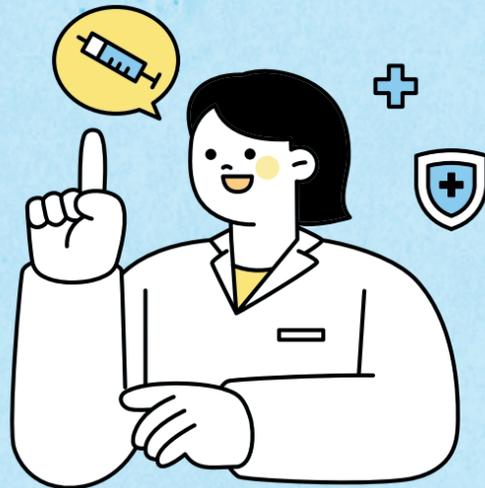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 의료 경험 수기 공모전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를 개최해 미담을 발굴했다. 지역 의료 기관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난다.



# 우리 동네 병원

의료 경험

# 이야기



### 건강한 지역 의료 경험을 나누는 공모전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1820편의 경험담을 모집·심사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최근 3년 동안 거주 지역에서 필수·중증·응급 의료를 안전하게 받은 경험, 우수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경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활용 경험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미담을 발굴해 보건 의료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 지역 의료 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 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양호 기관, 난임 시술·응급 의료·재활·전문 병원 지정 기관 등 다양한 지역 의료 정보를 검색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건강e음'에 접속해 본다. 문의 [www.hira.or.kr](http://www.hira.or.kr)

# 동네 병원, 우리가 먼저 알아줍시다



남편의 목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온갖 의료 보조기를 주문해 목에 낀 채 전류를 흘려보내고 '두두두두' 마사지를 해대더니 결국 목 디스크 두 개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그 길로 병원에 다녀오더니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툭, 내뱉었습니다. "아니, 목 디스크 쪽은 신경도 많이 지난다는데 여기서 수술해도 되겠어요? 육지 병원을 알아보시다." 걱정 어린 제 말에 남편이 답하기를, "참, 요즘 의료 파업으로 육지 병원이 난리잖아요. 제주도 병원도 안전하게 잘하니까 걱정 말아요" 하는 겁니다.

제주도 병원은 요즘은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사람들이 큰 병을 얻으면 육지, 정확히는 서울에 있는 병원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수고라든가, 만만찮은 체류 비용을 감내하더라도요. 제주에서 수술을 했다고 하면 "육지에 안 가 봐도 괜찮은 건가?"라며 괜한 걱정을 하고, 혹여 치료 결과가 안 좋기라도 하면 "아

이고, 그것 보라. 육지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하면서 애석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지금껏 제주도 병원이나 육지 병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런 경우가

닥치니 육지 병원 타령부터 하고 봅니다. 게다가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이라니, 저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싶어 불편한 마음이 몽글몽글 커져 갔습니다.

운 좋게 서울 병원에 예약했다 해도 빠른 치료를 받기는 힘들 터, 결국 남편은 제주도 병원에서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컨디션 어떠세요? 수술은 잘됐어요. 오래

"아니, 목 디스크 쪽은 신경도 많이 지난다는데 여기서 수술해도 되겠어요? 육지 병원을 알아보시다."

누워 있지 말고, 수술이 끝났다고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니 평상시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통증이 사라지니까 환자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아주 조금만 신경 써도 좋아져요. 알겠죠?" 매번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은 환자뿐 아니라 저처럼 의심이 많은 보호자에게 수술 후 회복 경과를 비롯한 주의 사항, 결국은 병원 안 오는 게 제일 좋다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까지 하며 살뜰히 챙겨 주셨습니다.

"거 봐요, 당신 그 자세가 문제라니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의사 선생님의 잔소리에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까지 슬쩍 엮어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나니 조금은

"아휴, 걱정하지 말아요. 제주 병원 다 잘하잖아요. 치료 잘될 거예요. 이동할 시간에 치료를 받아야죠. 그 병원에 딱 그대로 계세요!"

불안감이 씻겨 나갔습니다. 수술 후 3개월.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 우려처럼 통증이 사라지니 또 편한 대로 하는 것 같아 잔소리를 늘어 놔야 하지만, 남편은 무탈하게 지내는 중입니다. 결정적 순간 육지 병원을 고집하던 저 또한 제주 병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육지까지 나가지 않아도 지역 의료로 충분하다는 신뢰가 싹텃고, 종합병원만 고집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같은 의료 위기 시기에는 전문적이고 우수한 지역 의료의 빛을 발하는 듯합니다.

"승훈 엄마, 남편이 어머니 댁 짐 옮기다가 트럭에서 떨어져 뼈에 금이 갔다고 하네요. 일단 구급차로 가까운 병원에 왔는데, 어디 아는 병원 있나 해서 전화했어요." 지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스마트폰 너머로 웅웅거립니다.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휴, 걱정하지 말아요. 제주 병원 다 잘하잖아요. 치료 잘될 거예요. 이동할 시간에 치료를 받아야죠. 그 병원에 딱 그대로 계세요!"

제주 속담에 "동네 심방 내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어로 무당을 뜻하는 '심방'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제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동네 심방, 아니 동네 병원 실력은 우리가 먼저 인정해 줄 일입니다.

# 내 심장을 다독여 준 우리 동네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는 원주혁신도시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꾸려 가는 소시민입니다. 하루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서 운전 도중 급히 정차하고 119에 신고해 지역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의료진은 외래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터라 진료 예약을 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했다니 증상이 여전하더군요. 이따금 휴식이나 수면 중에 증상이 나타났고, 발생 주기도 짧아졌습니다.

중증 방문하던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듣고는 상급 병원에서 심장 질환 관련 정밀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곧장 지역 상급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료진은 친절하게 제 증상을 경청하며 관련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심장 질환 발병률이 낮은 나이임에도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경식도 초음파를 통해 승모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막 문제로 심장에서 피가 역류하는 영상을 보는 동안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특히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판막 이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증으로 진행되므로 의료진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전원을 하느냐, 지역 병원에서 수술을 받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섣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지만 그간 저를 진료해 온 선생님과 심장 수술을 집도할 선생님, 두 분과 면담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다독이며 자신감을 내비친 두 분

덕분에 저는 지역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굳이 지역에서 수술을 받느냐고들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확고한 선택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의료진의 실력입니다. 다양한 기사, 후기 등을 통해 지역 병원 의료진도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이 생겼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사후 관리입니다. 이동 거리가 짧아 시간과 비용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었고, 위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지역 의료 서비스 이용을 망설인다면 제 경험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훌쩍 넘은 지금, 정기 진료와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입니다. 이따금 수술 후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겪을 때 마다 빠르게 대응해 왔는데, 이는 지역 병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술과 회복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중증 응급 안전망과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 의료에 대한 편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수한 지역 의료 기관을 통해 제 선택이 옳았음을 체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냅니다. 누군가 지역 의료 서비스 이용을 망설인다면 제 경험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든든하고 수준 높은 지역 의료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진심을 다하는 우리 동네 소아과 선생님



단풍이 물드는 계절,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12개월 차이 연년생 아이들을 돌보느라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요즈음입니다. 최근 아이 출생신고를 한 뒤 지역 보건소에 문의해 1차 영유아 검진, BCG 피내 접종, B형 간염 2차 접종이 모두 가능한 소아과를 찾았고, 즉시 예약 가능한 곳을 발견해 방문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였지만, 어느 병원과는 다른 친절함과 다정함이 느껴져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원 스태프와 환자 모두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며 소아과 특유의 긴장감을 경험했기에 이런 분위기가 다소 낯설면서도 아늑하게 다가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니 따스한 인상의 의사 선생님이 저와 아이를 맞아 주셨습니다. 간단한 신체 계측 후 시력과 청력 등을 살핀 선생님은 아이의 심장에 청진기를 댄 채 한참을 귀 기울이시더군요. '잡음이 들린다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 순간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 갔느냐는 질문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통 조리원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회진하기 때문에 심장 잡음이나 황달 등을 생후 20일 이내에 확인하는데, 저희는 첫째 아이를 돌봐야 해서 조리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한 번 더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미 오래 살피셨는데도 재차 청진기를 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진료를 진행하게 될지 큰 병원에서 제대로 확인하면 되니까요. 우리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느 쪽에 구멍이 생겼는지 알아낸 뒤 치료 계획을 세울 거예요. 별문제 없이 구멍이

진료실 뒤편, 아이들의 편지와 그림일기가 붙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났다는 사실에 지역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응원에 힘을 얻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잘 닫혀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기도 많아요." 저를 진정시킨 선생님은 진료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전산 서류를 큰 병원에 챙겨 보낼 거예요. 어머니는 검사 예약 일정에 관한 전화만 잘 받아 주시면 됩니다." 정말이지 든든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면역력 저하 문제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확인해 주신 덕에 지나칠 뻔했던 안면마비 증상을 발견하곤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심장에서는 구멍이 발견됐지만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라, 꾸준히 추적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료실 뒤편, 아이들의 편지와 그림일기가 붙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났다는 사실에 지역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응원에 힘을 얻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위기 일발, 목숨을 구한 지역 병원



지난봄 가족과 남해 독일마을로 여행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급히 삼천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직 의사는 곧장 대학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큰 수술이니 만큼 서울로 가야 하나 망설였지만, 시간을 다투는 위급 상황이라 가까운 곳에서 수술하는 편이 낫겠다고 권유하더군요.

아내는 결국 창원의 사립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주변 대학병원에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창원으로 향했는데, 교통 체증에 이송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끝내 의식을 잃은 아내는 삼천포 병원에서보다 두세 배 심한 출혈로 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지역 의료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응급 상황, 병원은 진정한 의료의 가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신속 정확한 수술 절차는 물론 수준 높은 서비스와 관리 체계에도 감명받았습니다. 모든 진료가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져 동선이 효율적이었고, 고객 편에서 귀를 기울이는 친절 서비스 덕분에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로해 주신 병원 담당자님께 무한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병원이 지역 병원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지역 병원의 최첨단 응급 의

료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의료 대란 속에서 아내의 생명을 구해 준 병원의 모든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역에 이 병원처럼 우수한 병원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한시가 급한 응급 상황, 병원은 진정한 의료의 가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신속 정확한 수술 절차는 물론 수준 높은 서비스와 관리 체계에도 감명받았습니다.

## 특별 부문

### 4행시 | 좋은 병원 | 김지현

- 중** 당께, 참말로 살기 좋당께.
- 은** 제 으디가 으뜨케 아파도 극쩍이 읍자네~
- 병** 원이 가잡게 있음게 치료도 허벌나게 빨라야!
- 원** 없이, 한평~생을 살다 갈 수 있겠소!

### 4행시 | 우리 지역 | 박선주

- 우** 왕좌왕, 병원 찾다 낭비되는 골든 타임!
- 리** 스크를 줄여 보세요.
- 시** 금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 병원!
- 역** 대급의 만족을 드립니다.

### 이어 말하기 | 우리 동네 좋은 병원이 있기에 | 차지훈

우리 동네 좋은 병원이 있기에

마음 놓고 들썩을 낳았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장염에 걸려도 언제나 활기차게 맞아 주시는 동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만 믿고 들썩을 낳았습니다! 책임지세요!”

### 이어 말하기 | 우리 동네 좋은 병원이 있기에 | 김경준

우리 동네 좋은 병원이 있기에

아쉬움은 OUT, 모든 게 쉬워집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진료 속도, 의사 선생님과 관계 등 대형 병원에서는 느껴 온 아쉬움을 경험하지 않고도 모든 게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 키워드 찾기 | 김현아

용기

엄마

“곧 태어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진찰해 주시는 선생님들 모습에 한 번 더 엄마가 될 용기가 생겼습니다.”

### 키워드 찾기 | 장수철

정답

명답

“건강관리의 정답, 가깝고도 편리한 동네 병원에서 명답을 찾다!”

# 춘천역에서 보물찾기

기차에 오르기 1시간 전, 강원도 춘천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주목하자. 흥미로운 볼거리와 군침 도는 먹거리, 아기자기한 물건 쇼핑까지 여행자의 오감을 만족시킬 춘천역 부근 스폿을 소개한다.

## 독보적인 뷰와 맛 리버레인

춘천역에서 도보로 9분 거리에 위치한 카페 '리버레인'. 대형 루프톱 카페로, 좌석 대부분이 위암호를 향하고 있다. 호수를 조용히 바라보며 쉬어 가고 싶다면 3층을, 아이를 동반한 여행객이라면 수유실과 유아용 의자가 있는 2층이 제격이다. 엘리베이터를 운행해 이동하기 편리한 것도 장점. 야외에 좌석을 마련한 너른 마당이 있는데, 카페에서 배드민턴 채와 공, 캐치볼을 빌려 활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리버레인의 시그니처 메뉴는 막걸리슈페너. 무알코올 막걸리 시럽으로 만든 부드러운 크림이 코끝에 향긋하게 번지고, 입안에서는 달콤한 커피 향이 퍼진다. 리버레인에서 매일 생산하는 다양한 빵과 인절미슈페너도 인기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529-47  
영업시간 11:00~22:00 문의 0507-1340-1067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ITX-청춘을 타면 춘천역까지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선박의 세월이 깃든 공간  
**춘천시문화광장숲**

2024년 11월, 춘천역 뒤편 소형 선박이 접안하던 부지가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했다. 춘천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춘천시문화광장숲'이 그 주인공이다. 수변 공간을 활용해 만든 산책로로, 너른 잔디마당과 공연장, 야생 화원, 전망대 등이 들어섰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노을이 질 때까지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의암호를 감상하며 쉬거나 해가 진 후 야간 경관 조명을 벗 삼아 강가와 춘천대교를 조망하기도 한다. 숲을 기점으로 왼쪽 산책길을 따라가다 보면 공지천유원지에 다다르고, 오른쪽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카페 리버라인과 상중도배터를 지나 소양강스카이워크가 있는 봄내길 코스로 이어진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611  
 운영 시간 06:00~23:00



춘천 유일의 창고형 셀렉트 빈티지 숍  
**오슬로**

춘천역에서 도보로 19분 거리에 있는 빈티지 숍. '낭비 없이 마음껏 즐기는 나만의 스타일'을 콘셉트로 간판 없는 창고형 빈티지 숍을 표방한다. 커다란 컨테이너 안에 자리 잡은 오슬로에 들어서면 공간이 한눈에 들어온다. 색깔별·종류별로 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으며, 피팅 룸을 갖췄다. 오슬로의 의류는 1킬로그램당 1만 9000원에 판매한다.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해 잘만 고르면 돈을 아낄 수 있다. 빈티지 의류를 킬로그램당 판매하는 1층과 달리 2층은 폴로, 아디다스 등 브랜드 의류로 구성했다. 곳곳에 신발, 가방, 모자 등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오슬로는 제품 판매뿐 아니라 개별 수거를 하기도 한다. 판매가 불가능한 의류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패션 문화를 지향한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494번길 15  
 영업시간 11:00~20:00  
 문의 0507-1468-7820



춘천 1호 막국수집  
**실비막국수**

막국수는 닭갈비와 함께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 기차를 타기 직전까지 막국수를 먹을 기회가 없었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춘천역에서 도보로 22분 거리에 위치한 실비막국수는 춘천 내 막국수 판매 1호점으로 알려졌다. 현재 3대째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7년 연속 '블루리본'에 선정되었다. 춘천에 수많은 막국수집이 있지만 이곳은 좀 특별하다.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개발한 이복식 막국수 레시피를 고수하는 것. 이 때문인지 빨간 양념도 매콤함보다는 고소한 맛이 강하다. 메밀면에 양념을 넉넉히 올려주는데, 물국수와 비빔국수 구분 없이 취향껏 육수를 부어 먹으면 된다. 두툼하고 바삭한 빈대떡, 아들아들한 수육, 실비막국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달콤한 닭갈비, 손만두 등 사이드 메뉴도 훌륭하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소양도개길 25  
 영업시간 11:30~19:00(화요일 휴무)  
 문의 033-254-2472



호반의 멋이 발아래 펼쳐지는  
**소양강스카이워크**

2016년에 문을 연 국내 최장 길이의 스카이워크. 춘천역에서 도보로 20분,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는 춘천의 랜드마크다. 바닥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발밑으로 보이는 호수의 세찬 물결이 아찔하게 느껴진다.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켜 온 쏘가리상 분수가 있는 스카이워크 끝에서는 춘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맞은편에 있는 '자전거 여행자의 집'에 오르면 호수와 함께 스카이워크 전체가 눈에 담기고, 지하보도로 스카이워크까지 갈 수도 있다. 스카이워크 입장료는 2000원. 춘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주므로 무료인 셈이다. 매표소 옆에는 춘천 여행의 추억을 간직할 작은 기념품 숍이 자리한다. 춘천시에서 선정한 사회적 기업 '소박한 풍경'이 운영하는데, 춘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소품은 물론 지역 청년 작가나 수공예가의 손길이 담긴 상품 등 다양한 굿즈를 만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 시간 10:00~17:30(화요일 휴무)  
문의 033-240-1695



대한민국 최초의 로스터리 카페  
**이디오피아**

춘천역에서 도보로 24분,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는 공지천유원지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옆, 강렬한 빨간색 지붕의 벽돌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1968년 문을 연 이후 56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은 카페 '이디오피아'다. 내부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가져온 각양각색의 소품. 그중에서도 에티오피아식 커피 세리머니를 볼 수 있는 전통 기구가 가장 호기심을 자극한다. 조수경 대표는 매년 직접 에티오피아에서 원두를 공수해 카페에서 갓 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곳을 방문한다면 꼭 에티오피아의 원두로 내린 핸드 드립을 맛볼 것. 총 열두 가지 종류의 에티오피아 원두가 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시다모'다. 은은한 과일 향과 기분 좋은 산미가 잘 어우러져 부드러운 맛이 느껴진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이디오피아길 7  
영업시간 10:00~22:00 문의 033-252-6972



청년 창작자들의 열린 공간  
**근화동396청년창업공간**

겉껍이 쌓인 컨테이너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 춘천역에서 도보로 22분 거리에 있는 '근화동396청년창업공간'이다. 열 팀 이상의 지역 청년 창작자들이 입주해 소품을 운영한다. 디지털부터 아웃도어 제품, 패브릭 소품, 비즈 공예 등 다양한 아이템을 구비하고, 원데이 클래스를 여는 소품도 마련했다. 다양한 콘셉트의 소품을 하나하나 둘러보는 것도 재미 있고, 이들 제품을 한데 모아 놓은 'P6 스토어'에서 한번에 쇼핑을 즐기는 것도 좋다. 춘천의 멋과 정취를 담은 제품을 비롯해 이기자기한 굿즈, 팬시 제품 등 눈을 즐겁게 하는 물건이 많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플라마켓이 열린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86  
영업시간 09:00~20:00(토요일 오전 11시 오픈, 일요일 휴무)  
문의 033-256-3961

**에디터가 고른 소품**

**고프빌리 Gorp Ville**  
초경량 직물 다이너마 원단을 활용해 수작업으로 옷을 짓는 아웃도어 브랜드다. 강철보다 15배 강하고 극한의 환경에 최적화된 배낭, 파우치, 월릿 등 초경량 제품을 선보인다.  
문의 @gorp\_ville\_

**몽글리 Monglee**  
영국에서 개발한 친환경 수성 아크릴 레진으로 비누, 화분, 트레이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오브제 숍. 제품을 만들 때마다 고유한 마블링이 생겨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이 완성된다. 소품에서 판매하며,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한다.  
문의 @monglee\_official



#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첫걸음, 김포

'김포'라는 지명,  
그리고 '김창수'라는 선구자의 이름을 내건  
위스키가 탄생했다.





1

1 김창수 대표가 발효조를 열자 시큼한 냄새가 퍼진다.  
2 작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제조 설비를 갖췄다.  
3 증류소에는 오크통 200~300개가 적재되어 있다.



2



3

###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김창수 대표의 지난 10년

- 2024년**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정규 제품 '김포' 출시
- 2023년**  
김창수 하이볼 출시
- 2022년**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첫 제품 출시
- 2020년**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설립  
다케쓰루 마사타카 자서전 <위스키와 나> 번역
- 2018년**  
서울 영등포 CS바 개업
- 2015년**  
일본 지치부 증류소 연수  
NHK 방송 출연
- 2014년**  
영국 스코틀랜드 증류소 102곳 방문

글을 읽는다고 작가가 될 수 없듯,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누구나 마스터 디스틸러가 될 순 없다. 그의 국적이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면 애당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테다. 2020년 여름, 경기도 김포 통진읍에 증류소를 세우고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붙인 전무후무한 위스키 생산자가 있다. 김창수. 미담의 영역에 깃발을 내리꽂은, 한국 위스키의 닐 암스트롱.

### 김포에서 위스키를 만든다는 것

누구도 만들지 않았으니 만들어 보기로 했다.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김창수 대표에게 어쩌다 위스키를 제조할 결심을 했느냐 묻자 날아온 답이다.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위스키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실은, 누군가 안 된다고 하면 더 해 보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같은 성미가 있거든요. 너는, 한국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못한다고들 하니까 오히려 자극이 됐죠. 지난 10년간 조ろ과 멸시를 당하면서 외롭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위스키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난 10월,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는 3년여의 숙성을 거친 '김창수 위스키 김포 더 퍼스트 에디션 2024'(이하 '김포')를 완성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싱글 몰트위스키의 최소 숙성 기간인 3년을 넘긴, 이 증류소의 첫 정규 제품이다. 2500여 병 한정수량으로 선보인 '김포'는 출시 1분 만에 품절을 알렸다. 완성도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으며, 출시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되팔기 거래가 성행했다.

제품명 '김포'는 위스키의 숙성 환경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위스키는 브랜드 제품명으로 지역 특성을 보여 줘요. 와인이나 탁주가 지역의 산물로 빛을 술이라면, 위스키는 숙성 환경이 고스란히 반영된 술이거든요. 김포라는 지역의 기후와 환경이 담긴 술이니까, 그걸 나타내기 위해 '김포'라 명명했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위스키 제조국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극소수였다. 영국을 위시한 몇 개 지역에서만 생산했으므로 연교차와 일교차가 적고

습윤한 기후를 유지해 증발량이 극히 미미한, 즉 스코틀랜드 같은 환경에서만 훌륭한 위스키가 생산된다는 통념이 굳건하게 형성돼 있었다. 김 대표는 이것이 '위스키 사대주의적 관점'이라 단언했다. "다른 기후는 다른 위스키를 만들 뿐입니다. 특정 기후에서 좋은 위스키가 나온다는 건 스카치위스키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세뇌한 메시지예요." 그는 타이완 위스키 브랜드 '카발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타이완은 아열대 지역이니만큼 증발량이 많은 편이고, 연교차가 큰 한국 또한 연간 5~10퍼센트의 증발량을 기록한다. 스코틀랜드에서의 증발량이 연간 1~2퍼센트임을 감안하면 이는 제법 큰 차이다. "증발량이 많다는 건 오크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다른 기후'의 장점을 이용하면 숙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는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저숙성 제품을 테스트 삼아 내놓았다. 여느 신생 크래프트 위스키 증류소처럼 소수의 팬을 대상으로 이벤트 형식의 제품을 출시해 제품의 변화, 혹은 진화 과정을 공유하며 소통을 시도한 것이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고, 열광은 컬트적으로 이어졌다. "위스키 애호가들은 제품의 역사에 가치를 두니까요. 누구도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듣지 않는 와중에 제 행보를 지켜보는 몇몇 분이 계셨어요. 한국 위스키 문화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차츰 응원을 보내는 분, 도움을 주는 분이 늘어났고요. 대기업이 자본을 들여 위스키를 만든다 한들 이런 스토리는 나올 수 없겠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모든 말에 결연함과 절실함이 배어 있다.

### 오랜 세월 숙성한 꿈,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2000년대 중반, 스무 살의 김창수는 한국 전통주를 빛에 골몰했다. 막걸리나 청주 등 한국 술의 근간이 가양주, 즉 집에서 빚는 술이었으므로 흥미를 붙이고 손쉽게 연구하기 좋았다. 그러기를 3년, 전 세계 술을 섭렵한 그는 위스키에 매료된다. 각별

“못 한다고들 하니까 자극이 됐죠. 지난 10년간 외롭게 주장했습니다. 위스키를 만들어야 한다고. 다른 기후는 다른 위스키를 만들 뿐입니다.”

히 끌린 것은 피트(이탄) 향이었다. 피트는 위스키의 원료인 몰트(보리)를 건조하고 훈연하는 과정에 쓰는 연료로, 스모키한 풍미가 특징이다. “피트 향이 두드러지는 위스키를 처음 마실 때 충격을 받았어요. 소독약, 타르, 나프탈렌, 흔히 피트 향을 논할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화학 물질을 동원해 묘사하는데, 그런 특이함에 관심이 갔어요. ‘러브 오어 헤이트(Love or Hate)’, 피트 향은 사랑하거나, 증오하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해요.” 대학 시절 주류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 내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열기도 한 김 대표는 이미 위스키 생산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민하는 중이었다. 스물여덟 나이에 졸업 후 허겁지겁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영 맞지 않는 옷이었고, 10개월 만에 퇴사해 바텐더가 됐다. 돈 벌면서 위스키를 배울 수 있는 곳이란 2010년대 초·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싱글 몰트위스키 바쁜. 이렇게 간신히 1000만 원을 모아 중고 텐트와 자전거를 구입한 그는 위스키의 고향 스코틀랜드로 떠났다. 스코틀랜드 증류소 102곳을 반년 동안 모두 돌아볼 심산이었다. “여행이 아니라 일을 구하러 간 거였어요. 위스키 학교에서 유학할 돈은 없었으니까요.” 여정 막바지, 취업에 실패한 채 102번째 증류소를 둘러보고 바에 가서 위스키를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동양인이 김 대표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와의 인연으로 일본 지치부 증류소에서 일주일간 제조 연수를 받고, 증류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위스키 여정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시작한 김 대표는 귀국 후 먼

세점과 외국계 주류 회사에서 근무하며 위스키 업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몸부림쳤다. “먹고살 만해서, 너무 안정적이어서 다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서울 영등포에 바를 연 거예요. 공간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위스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이라면 혼자서도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 모은 돈과 빌린 돈을 합쳐 2020년 7월 김포에 건물을 계약했어요. 그 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죠.” 다시 ‘김포’로 돌아온다.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첫걸음 ‘김포’는 피트 향이 강하게 피어오르는 위스키다. 김 대표가 처음 위스키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한, 바로 그 피트다. “위스키란 태생적으로 애호가 위한 술이지만, 이번엔 대중의 기호를 함께 충족하고 싶었어요. 유리피언 와인 캐스크나 아메리칸 셰리 캐스크 등 다양한 캐스크를 조합해 더 복합적인 맛을 추구한 이유예요. 반걸음쯤은 대중적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여정의 결실인 ‘김포’는 그에게 어떤 기쁨을 안겼을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걱정과 시름에 휩싸여 있고, 좀처럼 만족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다만 위스키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외국의 평가 기관이든, 한국의 소비자든, 어느 누구에게든요. 그때가 제겐 최고의 순간이에요.”

### 애주가를 위한 김포 여행법

**위스키 '김포' 즐기기** 김창수 대표는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물만 곁들여 마시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뜨겁지 않고 간이 세지 않은 회를 추천한다. 한강에서 조업을 하는 마지막 포구인 전류리 포구, 인천 강화와 마주한 대명항 수산시장에 들러 갓 잡은 해산물을 즐겨 봐도 좋겠다. 구래동의 '몰트 바 글렌루나'에서는 위스키 '김포'를 만날 수 있다. **김포 양조장 투어** 비옥한 토양과 거대한 한강 물길을 낀 김포에는 근사한 양조장이 여럿이다. 특등급 김포 금쌀로 감각적인 막걸리를 빚는 '팔팔양조장', 꿀과 물과 효모로만 발효한 술 미드를 빚는 '메들리양조장', 김포도시철도 운양역 3번 출구에 위치한 도시형 양조장 '백형양조', 김포 하성면으로 이전해 한층 진화한 맛을 선보이는 '독브루어리'를 주목할 것.

1 위스키가 잔을 타고 흐르는 모양 '레그'를 확인한다. 2 로고는 태극 문양을 본떠 제작했다. 3 마침내 첫 공식 제품 '김포'를 출시한 김창수 대표.





# 정이 피어나는 삶의 풍경 용인중앙시장

쿵쿵한 냄새를 따라 순대와 죽발 가게가 늘어난 골목으로 빨려 들어간다.  
소복이 쌓인 눈 위로 새들의 발자국이 총총히 찍히고, 상인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경기도 용인중앙시장에서 마주한 삶의 생생한 순간들.



## 시대를 관통하는 만물상

흰 눈이 소복이 쌓인 풍경만큼이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것들이 있다. 딱 이맘때 볼 수 있는 제철 재료.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 알알이 영양분을 품은 것들 말이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제철이 어딤느냐' 하겠지만, 시장에 가면 단박에 알 수 있다. 큼지막한 노란 호박과 고슬고슬한 팔랑김이 가득 든 국화빵, 말린 노가리, 소박하게 담긴 시금치가 그렇다. "시금치 한 소쿠리에 얼마예요?" 하고 물으니 무심한 표정의 아주머니가 "4000원인데, 3000원만 줘유" 한다. 이곳에서만 통하는 계산 법인가. 손톱 밑에 거뭇게 흙물이 든 할머니가 내 손에 쥐여 준 3000원어치 시금치 봉투. 그 푸릇하고 넉넉한 마음에 죄송한 생각이 먼저 든다. 용인중앙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용인 중심가에 자리한다. 그 시작이 언제쯤이냐면, 무려 2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영조 46년(1770년)에 편찬한 <동국문헌비고>에 용인중앙시장의 현 주소지인 '김량장'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한다. 그 옛날 김량장의 금학천을 따라 상권과 주막촌이 형성되었다. 이후 김량장의 명성은 용인 시내로까지 뻗어 갔고, 행정과 경제, 유통의 중심 거리로 성장했다. 김량장은 용인재래시장이란 이름을 거쳐 현재의 용인중앙시장이 되었고, 명실공히 용인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 골목 사이로 겨울의 맛이 차오른다

하루하루 매서워지는 날씨 속에도 용인중앙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상인들의 오랜 자부심과 손님들의 웃음소리 덕분이다. 보통 전통시장이 장날에만 북적이고 평소에는 한산한 것과 달리, 용인중앙시장은 언제나 많은 사람으로 붐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백암순대의 명맥을 이어 온 60년 전통의 재래식 순대 골목부터 떡·만두·족발 골목 등 먹거리가 풍성해 식사 시간이면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뿐 아니다. 닭꼬치, 호떡, 매운 어묵 등 추억의 간식부터 타이완 길거리 토스트나 튀르키예 케밥 같은 외국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어디 유튜브예요?” 몇몇 상인이 사진을 찍는 우리에게 익숙한 듯 질문을 쏟아 낸다. 용인중앙시장의 다채로운 먹거리가 입소문을 타다 보니 방송국과 잡지사는 물론 SNS 채널에서도 취재를 온다고. 유튜브에 익숙한 한 사장님은 영상 찍는 건 자신 있다며 옆집 뒷집 할 것 없이 주변 맛집들을 소개해 준다. “백암순대는 옛말이여! 여기 이 집도 맛있고, 저 집도 맛있고, 우리 다 맛있게 잘해! 들어와 봐!” 이 골목에서 경쟁은 없다. 용인중앙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땀땀 땀 땀의 의리와 자부심으로 백암순대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뜨끈한 순대국이며 쿽쿽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 가는 족발, 차가운 공기 중에 피어오르는 김너머 겹겹이 쌓인 시장의 푸근한 얼굴이다.





### 세대를 뛰어넘는 축제의 공간

시장의 진짜 즐거움은 골목에 있다. 용인중앙시장은 점포가 500여 개인 규모가 꽤 큰 시장이다. 먹거리 골목과 의류·잡화 골목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 30년 된 순댓국집과 2대째 진한 국물 맛을 이어 온 만둣국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렇다고 옛날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 2017년에 문을 연 순댓국집도 있고, 빈티지 의류 숍과 타투 스튜디오 등 청년 상인도 꿈을 펼치는 중이다. 외국 식품 도소매 상점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기업이나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많이 와요. 장사 잘돼요!” 한국에 온 지 8년째라는 파키스탄 상인 무쉬타크 아흐맛은 이국적인 비즈 공예 숍과 케밥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3년 전부터는 용인중앙시장에서 ‘별빛마당 야시장’도 열어 활기를 더한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개최된 별빛마당 야시장에는 분식, 꼬치 등 먹거리 관련 팀과 액세서리, 수공예품 판매 팀 등이 대거 참여해 흥겨운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여기에 버스킹 공연이 가세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별이 총총히 뜬 밤에는 플루트 연주가 용인중앙시장을 감미로운 멜로디로 물들였다. 미래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전통 시장, 용인중앙시장이 즐겁고 유쾌한 이유다.

# 망원동·합정동, 채식주의자를 위한 레스토랑 7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삼림 벌채를 하는 이유 중 80퍼센트가 소 목장을 만들기 위한 땅 개간이다. 매년 880억 마리 이상의 육지 동물이 식량 생산을 위해 사육되고 도살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더 이상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경고다. 그래서 찾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레스토랑. 서울의 힙한 동네, 망원동과 합정동에서 제대로 맛을 내는 일곱 곳을 엄선했다.

##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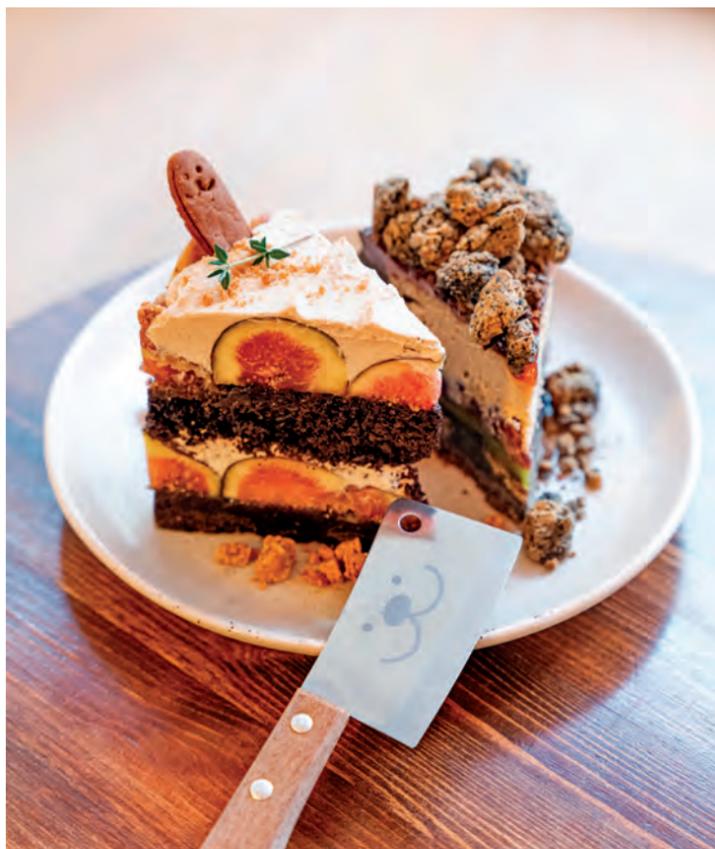
### 아이와 지구를 생각하는 건강 식단 풀

포은로의 별 잘 드는 건물 2층 널찍한 공간에 자리한 '풀'은 채식주의자는 물론 망원동 미식가들의 사랑방이다. 건강에 좋고 맛있기까지 한 비건 음식과 디저트를 맛볼 수 있기 때문. 홍보 브랜딩 회사를 운영하던 부부는 환경과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풀을 오픈했다. 독일과 미국 뉴욕-워싱턴 등에서 외교 부 소속 셰프로 일해 온 어머니에게 콩국을 비롯한 비건 요리 레시피를 전수해 여름엔 콩국수, 겨울엔 가정식 콩물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콩은 모두 가족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공수하는데, 사계절 메뉴인 현미밥에는 아침마다 볶짚을 넣어 발효한 콩과 수제 된장이 들어간다. 또 하나의 인기 메뉴는 비건 치즈 라사냐.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풍미가 훌륭하다. 시나몬과 정향, 생강을 넣은 수제 디카페인 콜라와 유기농 토종 밀로 만든 포카치아도 놓치지 마겠다. 풀에서는 인근 대안 학교 아이들과 함께 요리 클래스를 열거나 소외 계층에 빵을 제공하는 활동도 한다. 널따란 오픈형 주방이 있는 구조의 인테리어도 특별하다.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모서리가 둥근 모듈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다. 테이블에는 '풀과 세상을 바꾸자'라는 글귀가 점자로 새겨져 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89

영업시간 11:00~20:00(월요일 휴무) 문의 070-4047-3133





### | 3 |

#### 실험 정신 빛나는 1세대 비건 레스토랑 어라운드그린

최근 망원동과 합정동의 경계로 터를 옮긴 '어라운드그린'은 국내 비건 레스토랑 1세대 격인 곳이다. 동물과 건강한 음식에 대한 애정으로 어라운드그린을 시작한 김혜선 대표는 8년째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요리한다. 팜유처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배제하고, 유전자 변형 작물을 피하고자 생산자가 확실한 국산 콩과 통밀만 취급해 사용한다. 치즈의 질감을 내기 위해 찹쌀떡을 넣어 보거나, 파스타의 두유 비율을 조절해 더 좋은 맛을 찾기도 하는 등 식물성 재료의 매력에 집중한다. 어라운드그린에선 다양한 창작 요리를 선보여 왔다. 두부를 전분 물에 튀긴 후 그린빈과 피망, 버섯 등 각종 재료와 함께 간장을 넣고 볶은 두부 데리야키 현미밥, 수분을 빼서 꼬들꼬들하게 만든 두부 도 위에 느타리버섯·표고버섯·새송이버섯 등을 볶아 올린 세 가지 버섯 피자. 어라운드그린의 시그너처 메뉴다. 두유라테나 비건 밀크티 같은 음료도 추천한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44-1 **영업시간** 수·목요일 11:00~20:00, 금·토요일 11:00~17:00 **문의** 0507-1480-9797



### | 2 |

100퍼센트 비건 디저트

#### 두두리두팡

동물성 재료와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비건 디저트를 선보이는 케이크 전문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육소하 배우가 팬데믹 기간 동안 체중 관리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디저트를 고민하다 직접 차린 가게다. 제빵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케이크나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익숙했다고 한다. '두두리두팡'에선 비건 가토 케이크부터 글루텐프리 카놀레와 파운드, 스콘, 크럼블, 두유 그릭 요거트, 치즈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코코넛 크림과 두유, 바닐라를 배합한 수제 샤틀리 크림이 들어가 꾸덕꾸덕한 식감의 비건 가토는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메뉴. 핼러윈 기간에는 호박이 들어간 케이크,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레드 벨벳 케이크나 초콜릿과 말차, 딸기 등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한다. 이곳에선 사장님은 '두장님', 직원은 '두원', 손님은 '두민'으로 불린다. 두두리두팡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3길 19 **영업시간** 목~일요일 12:00~19:00 **문의** 070-8810-2379



### | 4 |

#### 타이인도 반한 타이의 맛 카멜스 키친

타이 음식을 메인으로 하는 합정동의 채식 레스토랑. 육류를 먹지 않는 '페스코'에 해당하는 대표는 망원동에서 4년간 타이 음식점 몽타이를 운영했고, 잠깐 휴식 후 합정동으로 자리를 옮겨 2023년 카멜스 키친을 오픈했다. 카멜스 키친의 뽕암꿍은 향신료보다 코코넛 밀크를 많이 쓰는 것이 특징. 호불호가 갈리는 뽕암꿍에 미처 입문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담백한 느낌을 살리고, 향이 강하지 않은 고수를 넣어 문턱을 낮췄다. 몽타이의 맛을 그리워하던 단골은 물론 타이 음식 입문자, 채식을 실천하는 외국인까지 다양한 손님이 찾아온다. 한 타이인은 고향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한국에 올 때마다 카멜스 키친을 찾는다. 아보카도나 버섯, 레드 커리, 수제 간장 소스 등으로 맛을 낸 볶음밥류부터 뽕암꿍, 팟타이, 해산물 쌀국수, 뽕암 파스타, 타이 밀크티 등 타이 냄새 물씬 나는 메뉴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음식점이다. 한식과 타이 음식을 함께 즐기고 싶은 채식주의자라면 이곳을 방문하자.

주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52-1 **영업시간** 화~목·토요일 11:30~20:30, 금요일 11:30~15:00 **문의** 02-6326-3200



| 5 |

모두가 사랑하는 비건 김밥  
**샐러마리**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공수해 샐러드, 김밥, 우동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으로 6년째 망원동을 지키고 있다. “처음부터 비건 메뉴를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망원동에 워낙 채식하는 손님도 많아 김밥을 주문할 때마다 몇 가지 요구를 하셨죠. 이걸 거면 아예 비건 메뉴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 인기 메뉴가 된 참나물김밥, 시금치된장 김밥이에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오래 일한 경험을 살린 이기원 대표는 ‘샐러마리’의 감각적인 브랜딩까지 신경 썼다. 귀엽고 편안한 분위기의 매장 인테리어와 메뉴가 망원동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편. 외국인 여행객, 초등학교 자녀를 동반한 젊은 부부, 인근의 어르신까지 속이 편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여름엔 바질우동, 겨울엔 채소로 국물을 낸 장우동이 인기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55-3 **영업시간** 11:00~19:00(수·일요일 휴무) **문의** 02-6104-9105



| 6 |

싱글 오리진 초콜릿의 성지  
**카카오다다**

‘카카오다다’는 한국에 몇 없는 빈투바 초콜릿을 만드는 곳. 커피처럼 단독 지역에서 나온 빈으로 만든 싱글 오리진 초콜릿이다. 카카오다다의 ‘다다’는 ‘모쪼록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이라는 뜻이 담긴 순우리말이다. 초콜릿 메이커가 세계 각지의 카카오 농장에서 선별한 카카오 빈을 직접 로스팅하고 갈아 내는, 128시간 이상 걸리는 제조 과정을 통해 초콜릿 바를 완성한다. 2017년 국제초콜릿대회에서 수상한 이후 매년 수상작이 나올 만큼 한국 초콜릿 업계에서 유명한 곳이다. 올해 역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아카데미 오브 초콜릿 어워즈(Academy of Chocolate Awards)에서 줄줄이 수상했다. 락토 오보라면 밀크가 섞인 초콜릿을, 비건이라면 다크 초콜릿을 선택해 달콤 쌉싸래한 맛의 세계에 빠져 보길.

주소 서울시 마포구 회우정로10길 15  
**영업시간** 목~토요일 11:00~20:00 **문의** 02-3446-7007



| 7 |

제철 채소 페스토의 무한 변신  
**웃셈 by 페스토 페스토**

한때 다섯 명 남짓 앓을 수 있는 작은 음식점이었지만, 지금은 2호점까지 확장한 페스토 전문점. 비건 전용 페스토가 있어 채식주의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던 대표가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술안주를 요리하던 것이 시작이었다. 망원시장에서 산 저렴한 제철 채소로 만든 페스토 소스를 바른 샌드위치는 당시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던 메뉴였는데, 지금은 이곳의 인기 메뉴가 됐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 구입하기 쉬운 재료로 페스토를 만든다. 카운터에서 시식한 뒤 그로서리에서 구매하거나 샌드위치, 리소토, 콜드 파스타 등을 맛보자. 술에 진심인 대표가 운영하는 만큼 하이볼이나 위스키, 전통주 등과 페어링하는 것도 추천한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회우정로16길 23-6 **영업시간** 11:30~21:00  
**문의** 02-336-9294



# 터치드와 떠나는 음악 여행

힘 있는 목소리와 강렬한 연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터치드. 디지털 싱글 'Last Day'로 돌아온 네 멤버가 기차에서 듣기 좋은 음악을 소개한다.

터치드 윤민(보컬·기타), 김승빈(드럼), 존비퀸(베이스), 채도현(키보드)으로 구성된 록 밴드. 제31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Blue'로 대상을 수상한 후 2021년 디지털 싱글 '새벽별'로 데뷔했다. 2022년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우승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대표곡으로 'Highlight' '불사' 등이 있다.

© 엠피엔지뮤직,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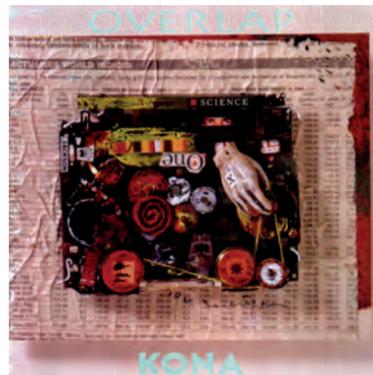


채도현

### 김동현 '출발'

진짜 여행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만드는 노래예요. 어쿠스틱 기타 리프와 퍼커션 사운드가 가방 챙길 때의 설렘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짐 싸는 과정을 상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길과 사람이 눈앞에 그려지는 시각적인 가사 덕에 목적지로 향하는 시간이 행복하죠.

📍 고민이 사라질 정도로 아름다운 대관령이 있는 강원도 평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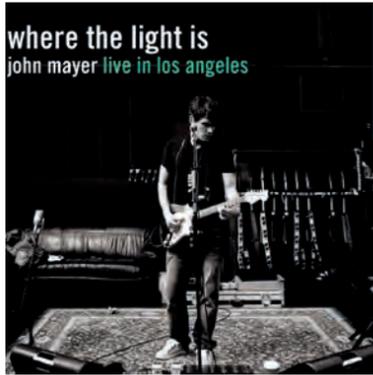


김승빈

###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평상시에 자주 들어요. 노래방에서 부를 정도로 좋아하고요. 파도 소리로 시작할 뿐 아니라 바다를 연상시키는 리듬과 사운드가 이어지고 로맨틱한 가사가 인상적이죠. 필요한 물건만 담은 백팩 하나 메고 즉흥적으로 떠날 때 어울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 언제 가도 동해가 반겨 주는 강원도 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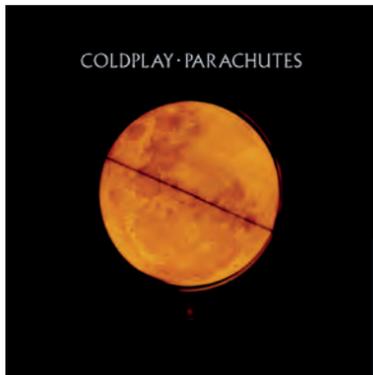


존 메이어

### 존 메이어 'Stop This Train'

6년 전 동유럽 여행 중에 기차를 탔어요. 무심코 이 노래를 틀었는데 곡 분위기와 가사가 감정을 증폭시키더라고요. 어떤 감정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도 기차에서 비슷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 골랐어요. 미국 LA의 한 공연장에서 부른 버전으로 들어 보세요.

📍 차창 밖 풍경을 충분히 감상할 만큼 먼 곳 전남 여수



콜드플레이

### 콜드플레이 'Don't Pa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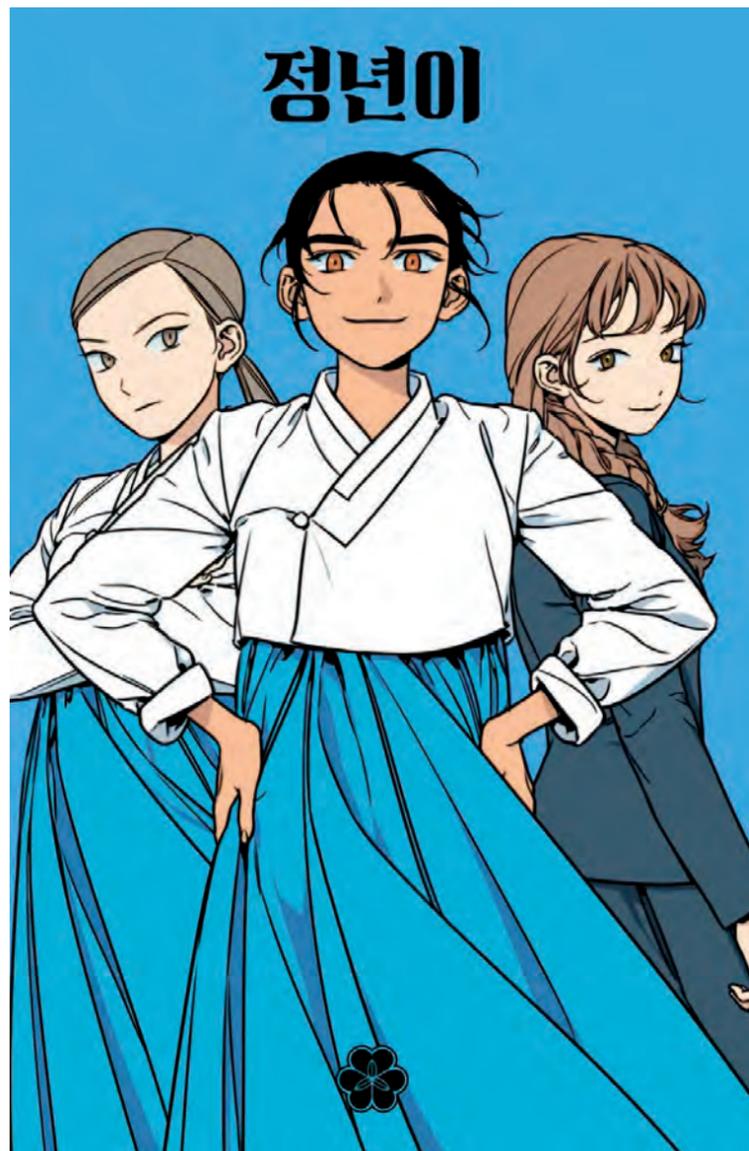
미국에서 유행하던 시절, 힘들 때마다 콜드플레이 음악에 기댔어요. 특히 'Don't Panic'이 수록된 <Parachutes> 앨범을 자주 감상하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지금도 이 곡을 들으면 기차 타고 도시로 나가던 장면이 생각나요. 마음을 다독여 줄 목소리가 필요한 분에게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 공연차 여러 번 방문한 여행지 부산



# 만화를 찢고 나와 영화가 된 이야기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등을 기반으로 한 실사화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2025년 흥행을 예고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지난 11월 네이버 웹툰 <정년이>가 넷플릭스 드라마로 영상화돼 화제를 모았다. 여성 국극이라는 낯선 소재, 김태리·라미란 등 실력 있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극 속의 극을 보는 듯한 재미 등 <정년이>는 여러모로 시선을 끌 만한 요소를 갖췄고, 실제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뒤이어 12월, 디즈니플러스에서는 <무방>을 그린 웹툰 작가 강봉의 인기작 <조명가게>가 드라마로 제작,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태원 클라쓰> <여신강림>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살인자ㅇ난감> 등 최근 몇 년 사이 인기 순위 상위에 랭크된 드라마는 대부분 이처럼 웹툰을 원작으로 기획되었다.

웹툰의 실사화는 팬들에게 그림 안에서 노닐던 '최애'가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보는 재미를 제공한다. 웹툰 <정년이>를 감상할 때 독자는 인물이 부르는 창을 어렵잖이 상상해야 하지만, 드라마 <정년이>는 이를 구체화해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 가상 공간,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캐릭터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지점이 우리가 실사화 콘텐츠에 열광하는 이유다. 웹툰을 넘어 게임이 영화화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배우 톰 홀랜드가 연연을 펼친 영화 <언차티드>, 실사화 3부작을 예고한 영화 <프레디의 피자가게>는 각각 액션 어드벤처, 공포 게임에 뿌리를 둔다. 영화로 만나게 될 웹툰과 게임, 2025년 개봉을 앞둔 작품들을 살펴보자.



## 흥행 예감, 2025년 실사화 영화 4

#1 새로운 동화의 시작

### <백설공주>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1937년 제작한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영화로 재탄생했다. 주인공 백설공주는 배우이자 가수 레이첼 지글러, 원작과 달리 주체적인 면모를 선보일 공주의 이야기가 감상 포인트다.

개봉 3월 예정 제작사 월트 디즈니 픽처스

#2 영화가 된 게임

### <마인크래프트 무비>

아이는 물론 어른까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모장 스튜디오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영화로 탄생했다. 그래픽, 세계관, 효과음 등 원작을 고스란히 구현하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책 블랙이 주인공 스티븐 역할을 맡아 익살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개봉 4월 예정 제작사 워너 브라더스

#3 추억 속 털복숭이 친구

### <릴로와 스티치>

2002년 나타난 귀여운 악동, 스티치를 기억하는가. 릴로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 생명체 스티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다. 릴로만큼 사랑스러운 배우 마이아 케알로하가 주연에 캐스팅됐다. 원작 스티치를 연기했던 미국의 영화감독이자 성우 크리스 샌더스가 이번에도 주연으로 참여했다.

개봉 5월 예정 제작사 월트 디즈니 픽처스

#4 드래곤과 바이킹의 우정

### <드래곤 길들이기>

드림웍스의 첫 실사 프로젝트로, 동명의 애니메이션 영화 3부작을 완성한 캐나다 감독 딘 데블로이스가 연출을 맡았다. 드래곤과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홀리건 바이킹 족장의 아들인 히컵은 드래곤과 싸우는 대신 그들을 길들이며 우정을 쌓는 방법을 택한다. 주인공 히컵 역에 엄청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배우 메이슨 테임즈를 캐스팅했다.

개봉 6월 예정 제작사 드림웍스

EXHIBIT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감각한 차이

예술은 남다른 감각과 표현에서 출발한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에 동지를 틈 시각 예술 전문 공간 '모두미술공간'은 장애인·비장애 관람객에게 고유한 신체와 감각이 자아내는 장애 예술의 풍경을 펼쳐 보인다. 330권의 점자책으로 이루어진 '감각의 벽'을 비롯해 감수성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줄 작품을 만날 기회다.

기간 2월 7일까지 문의 02-760-9797(서울 모두미술공간)



청주 국사봉에 오른 사람들

청동기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총복 청주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 즉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사업단지 부지에서 출토됐다. 지역의 유적 발굴 성과를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 기획한 특별전으로 기와 가마와 탄요 유구, 토굴과 토실, 통일신라 시대 석곽묘와 조선 시대 토광묘를 두루 조명한다.

기간 2월 16일까지 문의 043-201-4255(충북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그림책도서관 10년, 한국그림책 10년

다채로운 원화 전시를 선보이며 무수한 어린이와 어른 독자를 그림책의 세계로 이끈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도서관 수장고에서 잠자던 김병하·김재홍·김환영·류재수·이수지·한병호 등 한국 대표 그림책 작가의 원화와 그림책보다연구소가 선정한 주제별 그림책을 공개한다.

기간 3월 23일까지 문의 061-749-8892(전남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BOOK

등산 시령

고등학교·대학교 산악부 활동부터 등산 학교 교육 수료, 등산 전문 잡지사 근무까지 산과 떨어질 틈 없던 <월간 산>의 윤성중 기자. '등산 시령' 산악회를 만들어 등산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일 의사를 자처한다. 그가 내린 처방은 멈추기를 반복하며 천천히 걷기.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에 마음이 가벼워진다. 윤성중 지음 안은복스 펴냄

어떤 어른

<어린이라는 세계> 출간 후 김소영은 수많은 독자에게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전작이 어린이를 새롭게 조명했다면, 신작 에세이 <어떤 어른>에서는 아이 눈에 비친 모습을 상상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자고 말한다. 작가의 일터인 독서 교실을 비롯해 일상 공간에서 어린이와 어른이 수차례 스친다. 김소영 지음 사계절출판사 펴냄

동물 인터넷

세계 최초 동물 네트워크 개발에 관한 기록물이다. 동물에 발신기를 부착하고 전파천문학에 쓰이는 위성 기술을 이용하면 동물의 행동을 물론 온도, 습도 등 환경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저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동물의 지혜를 공유하고 기후 위기,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리라 믿는다. 마르틴 비켈스키 지음 박래선 옮김 휴머니스트 펴냄



MOVIE



은빛살구

웹툰 작가 정서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어머니 돈을 떼먹은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동해 묵호항으로 떠난다.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낯선 동네의 모습에서 피로를 느끼지만, 이복동생 정해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 이해관계로 얽힌 가족의 풍경이 정서의 웹툰 속 뱀파이어 이야기와 묘하게 포개진다. 1월 개봉. 감독 장만민 출연 나애진, 안석환

리얼 페인

검뭉치처럼 붙어 다니던 사촌지간 데이비드와 벤지는 할머니 고향 폴란드를 함께 여행하며 홀로코스트 투어에 나선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좌충우돌하며 소동을 벌이지만 끝내 이해하고, 아픔을 어루만지고,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다다른다. 2024 선댄스 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이다. 1월 개봉. 감독 제시 아이젠버그 출연 제시 아이젠버그, 키에란 컬킨



SHOW

고스트 베이커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일 테노레> 등을 함께 만든 작사가 겸 각본가 박천후와 작곡가 월 애런슨이 다시 호흡을 맞춰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로 돌아왔다. 최고의 제과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리던 순희는 제과점에서 해고당한 뒤 허름한 빵집을 계약한다. 그곳의 옛 주인 유령은 순희에게 가게를 뺏기지 않으려 버티고, 둘은 불편한 동업을 이어 간다. 순희 역에 박지연·박진주·이봄소리, 유령 역에 송원근·전성우·이재환이 출연한다. 기간 2월 23일까지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문의 070-4190-1289



양철지붕

2011년 경기희곡창작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작곡가 안효영의 손을 거쳐 오페라로 재탄생했다.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후 건설 현장 식당에 숨은 현숙은 동생 지숙을 보살피는 데 집중하지만 옛 연인 기태가 출감한 후 다시 비극이 시작된다. 복수라는 이름 아래 악순환되는 폭력과 인간 내면의 어둠을 탐구한다. 현숙 역할은 메조소프라노 신성희, 지숙 역할은 소프라노 김예은, 기태 역할은 베이스 박익현이 맡는다. 기간 1월 17일~18일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문의 031-272-0920



#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0회 철도사진공모전 은상 '생신을 품고' © 조남원



**KTX**

KORAIL NEWS

소외 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철도공사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했다. 지난해 연말 전국 20개 코레일 봉사단은 지역 복지 기관과 함께 소외 계층에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연탄을 배달했다. 앞으로도 한국철도공사는 지역사회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 사랑 철도 여행’ 상품 대상 지역 확대



지난해 11월 27일, 한국철도공사가 경북 문경·안동, 충남 논산 등 지방자치단체 열 곳과 해당 지역의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추가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1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 열차 승차권 50퍼센트 할인과 관광 명소 관람 혜택을 포함한 ‘지역 사랑 철도 여행’ 상품을 3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철도 차량 핵심 부품 10종 국산화 성공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11월 27일 대전 사옥에서 열린 ‘철도 차량 부품 개발 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KTX-이음과 전동 열차 등 철도 차량 핵심 부품 10종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부품 수입과 비교했을 때 조달 기간이 최대 10개월 단축되고 연간 49억 3000만 원이 절감될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에서 한국철도공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해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한국철도공사는 심사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광명에서 “체크인” “수하물발송” 미리하고,  
공항에서 전용출구로 기다림 없는 출국

#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영업개시 2024.12.16.(월)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이용안내



##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b>좌석간격</b> Seat Space</p>  <p><b>KTX</b> 930mm</p>	<p><b>등받이와 시트 조절</b>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b>이동통신망</b>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b>충전용 콘센트 &amp; USB 포트</b> Socket &amp;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b>좌석간격</b> Seat Space</p>  <p><b>KTX</b> 1120mm</p>	<p><b>등받이와 시트 조절</b>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b>식음료</b>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b>KTX 3·4호차</b>와 <b>KTX-산천 4·14호차</b>에 있습니다.</p>	<p><b>KTX 미니 도서관</b> KTX Mini Library</p>  <p>단행본은 <b>KTX 4호차</b>와 <b>KTX-산천 3·13호차</b>, 잡지·신문은 <b>KTX 3·5호차</b>와 <b>KTX-산천 3·13호차</b>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의 시설 Amenities

<p><b>화장실</b> Restroom</p>  <p>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b>장애인 관련 시설</b>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b>수유실</b>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b>물품 보관소</b>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b>자동심장충격기 AED</b>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b>자동판매기</b>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b>의약품</b>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b>금연</b>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모바일지 전환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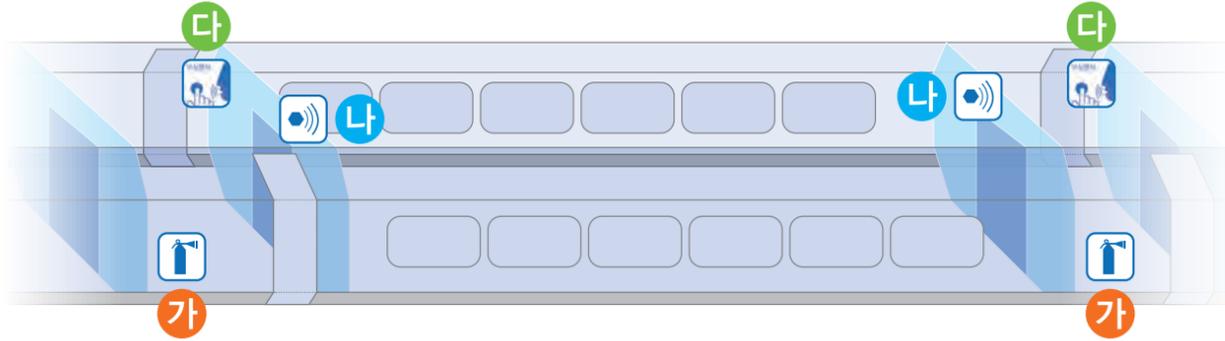
기한	출발 전		기한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개월~출발 1일 전	무료	400원 (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20분까지	15%
당일~출발 3시간 전	무료	5%	20분 경과 후~60분	40%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5%	10%	60분 경과 후~도착	70%
			도착 시각 이후	환불 불가

##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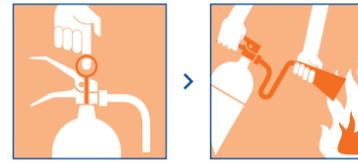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Mon-Thu	Fri-Sun, holidays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Free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Up to 20 minutes	15%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Free	5%	20-60 minutes	40%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5%	10%	60 minutes-arrival time	70%
			After arrival time	No refund

## 비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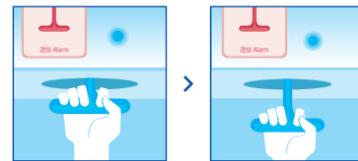
###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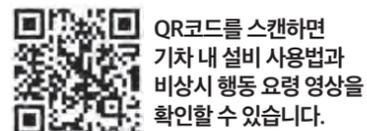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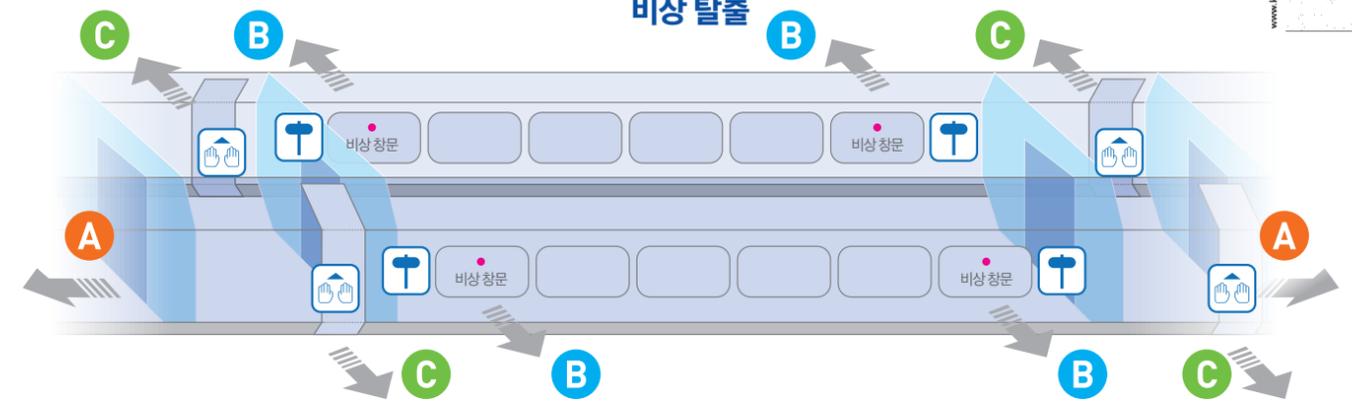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 비상 탈출



###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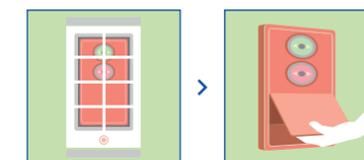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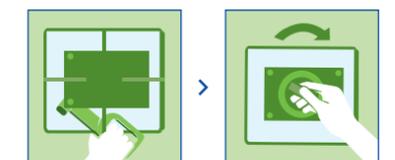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새로운 <KTX매거진>이 도착했습니다.  
더 빠른 소식, 더 친근한 이야기, 더 선명한 풍경을 싣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KTX매거진>과 함께 떠나 보세요.



[www.ktxmagazine.kr](http://www.ktxmagazine.kr)

# 제53회 강진 청자 축제

휴, 사람 그리고 불

2025.  
2. 22<sub>토</sub> - 3. 3<sub>월</sub>  
10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GANGJIN  
CELADON  
FESTIVAL

주최·주관  
강진군·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